



포스코 50년사

1968 - 2018

—
화보

열정과 도전의 50년을 넘어 100년 기업 POSCO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 온 포스코가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포스코는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정부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경험도 없는 철강 불모의 땅에서 포스코는 창업이념인 제철보국(製鐵報國)을 충실히 실천하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고 산업근대화를 견인해 왔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채 지워지지 않았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포스코가 이룩한 눈부신 성공 역사는 세계 철강업계의 기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제철보국의 일념으로 열정을 불태우고 희생을 감내했던 박태준 명예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와 주주, 고객사, 공급사, 협력사, 지역사회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은 포스코 50년 여정에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포스코 창립 50주년을 맞아 이 모든 분들께 각별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포스코는 전·현직 임직원들의 50년간의 도전과 열정은 물론 그동안 희로애락을 함께해 주신 이해관계자들의 애정을 모두 모아 <포스코 5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50년사>에는 모래바람 가득한 영일만에서 첫 삽을 뜬 이후 수많은 역경을 딛고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회사로 우뚝 서기까지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여정은 비단 포스코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발전사이며, 우리나라 산업근대화의 교과서가 되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따라서 <포스코 50년사>는 희생과 봉사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조국 산업발전에 진력했던 선배님들에 대한 헌사(獻詞)이기도 합니다.



또한 <포스코 50년사>에 담긴 지난 50년의 경험은 앞으로 포스코가 철강뿐만 아니라 에너지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최고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는 데 등대가 되고 소중한 자양(滋養)이 될 것입니다.

이제 포스코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온 제철보국의 창업이념을 승화 발전시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로 선순환하는 당당하고 강건한 '100년 기업시민 포스코'로 만들어가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포스코의 100년 여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대표이사 회장 **최정우**



발간사	002
TIME LINE	008
연혁화보	014
1편 포항제철 탄생	016
01 포항제철 이전의 국내 철강업	020
02 KISA를 통한 종합제철 건설 추진	022
03 종합제철 입지로 포항 선정	024
04 종합제철 공업단지 기공식	026
05 실수요자 선정과 '종합제철공장건설사업추진위원회' 구성	028
06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창립	030
07 기반시설공사-철도·도로·공업용수	032
08 기반시설공사-항만	034
09 건설의 전초기지-룸멜하우스	036
10 주민 이주와 부지 조성 공사	038
11 직원 주택단지 조성	040
12 종합제철에 대한 국민적 관심	042
13 대일청구권자금 전용(轉用) 구상과 자주적 103만 톤 사업계획 수립	044
14 한일협력으로 종합제철 건설자금 확보	046
15 실질적인 건설 파트너 JG(Japan Group)	048

2편 포항제철소 건설	050
01 영일만 대역사의 서막	054
02 설비 및 원료 구매	056
03 위기를 기회로-공기단축 전동의 시발점	058
04 종합제철 건설 현장	060
05 피와 땀의 결정-첫 제품 출하	062
06 만세! 첫 출선의 감격	064
07 우리나라 최초 종합제철 탄생(포항 1기 준공)	066
08 일면건설, 일면조업의 결실(포항 2기 준공)	068
09 제강사고와 안전의 생활화	070
10 또 하나의 전통, 완벽한 공사 추구	072
11 건국 이후 최대의 공사(포항 3기 준공)	074
12 안정적 원료 확보 노력	076
13 기업체질 강화와 자주관리활동	078
14 영일만 대역사의 완성(포항 4기 준공)	080
15 910만 톤 체제 완성과 스테인리스 일관생산체제 구축	082
3편 광양제철소 건설	084
01 논란을 거듭한 제2제철 실수요자 및 입지 선정	088
02 바다를 육지로-호안축조공사	090
03 연약지반 개량공사, 기반시설공사	092
04 광양1기 건설공사	094
05 최첨단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096
06 생산관리 시스템의 최적화	098
07 품질 제일주의를 향한 발걸음	100
08 포항공대 설립 및 포항방사광가속기 건설	102
09 1사 2소 체제 구축(광양 1기 준공)	104
10 국민주 기업 제1호	106
11 세계 3위 철강기업으로 도약(광양 2기 준공)	108
12 철강 자급도 90% 달성(광양 3기 준공)	110
13 4반세기에 걸친 건설 대역사 완성(광양 4기 준공)	112
4편 2100만 톤 체제 정착	114
01 4반세기 건설 대역사 완성 보고	116
02 기업이념 선포	117
03 2100만 톤 체제 조기 정착 추진	118
5편 신포스코경영 추진	120
01 신포스코 창조 및 윤리강령 선포	122
02 복합수출전략, 신기술 투자 지속	124
03 신사업 투자	125

6편 국제화와 경영다각화	126
01 경영위원회 신설 및 사외이사제도 도입	130
02 기축사업중심 사업구조 조정	132
03 글로벌 R&D 네트워크 구축	134
04 뉴욕증시 상장	136
05 화합의 기업문화	138
06 해외투자 가속화, 세계로 뻗어가는 포항제철	140
07 신기술 도입과 지속적인 설비확장	142
08 포스코센터 준공	144
09 IISI 회장사로 활동	145
7편 경영혁신과 민영화	146
01 정도경영·투명경영·책임 경영 추진	150
02 프로세스의 혁신	152
03 포스코센터 음악회 개최	154
04 광양 5고로 가동	156
05 신일본제철과 전략적 제휴	158
06 포스코역사관 건립	159
07 민영 포스코 출범	160
08 글로벌 경쟁력 향상	162
09 자동차강판시장 공략 시동	164
8편 투명경영과 고부가가치경영 추진	166
01 윤리를 제일의 가치로	170
02 글로벌 생산 및 네트워크 강화	172
03 혁신의 체질화	174
04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176
05 자동차강판 전문제철소 지향	178
06 고유기술체제 확립	180
07 함께하는 포스코	182
08 신사업 발굴	184
9편 글로벌 통합경영 전개	186
01 녹색성장 추진	190
02 세계 최대 규모, 최고 경쟁력 추구	192
03 창의적 기업문화 혁신	194
04 EVI 활동 본격화	196
05 사업영역 확장	198
06 패밀리 차원 기술혁신 적극 추진	200
07 사랑받는 기업, 포스코	202
08 글로벌 생산기지 확대	204
박태준 명예회장 영면	206

10편 경쟁력 회복과 재도약 기반 마련	208
01 철강사업 본원경쟁력 강화	212
02 포스코 고유 혁신모델 정립	214
03 고강도 경영쇄신 추진	216
04 포스코명장, 듀얼래더(Dual Ladder) 체계 구축	218
05 기가스틸 시대 개막	220
06 사회공헌사업 확장	222
07 미래성장동력 창출	224
08 자동차강판 1000만 톤 판매체제 구축	226
09 고객가치 지향 솔루션마케팅	228
10 Smart POSCO, Smartization 실현	230
11 100년의 새 꿈, 미래비전 선포	232

11편 With POSCO,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출발	236
01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미래 가치 추구	240
02 신뢰와 창의의 기업문화 조성	242
03 '100대 개혁과제' 발표	244
04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반 미래 기업으로 도약	246

현황화보	248
철강비즈니스	252
신성장비즈니스	282
그룹비즈니스	286
글로벌비즈니스	296
지속가능경영	316



1968-

50 YEARS HISTORY OF POSCO

LINE 2018



1968



1972

- 07. 04 포항 1후판공장 준공(7. 31 첫 출하)
- 10. 03 포항 1열연공장 준공(10. 5 첫 출하)
- 11. 26 후판제품 1500톤 첫 수출(미국)
- 12. 31 본사 포항 이전

1973

- 06. 08 포항 1고로 화입
- 06. 09 포항 1고로 첫 출선(오전 7시 30분)
- 07. 03 포항 1기 종합 준공(조강 103만 톤)
- 11. 01 ZD(Zero Defect) 운동 시작
- 12. 01 포항 2기 종합 착공

1974

- 10. 01 주물선고로 화입
- 10. 21 사내 직업훈련소 개소
- 12. 31 수출 1억 달러, 매출액 1000억 원 달성

1975

- 04. 07 기성제도 신설
- 04. 25 한국종합제철 흡수 합병 결정
- 11. 29 1억 달러 수출의 탑 수상

1976

- 05. 31 포항 2기 종합 준공(조강 260만 톤)
- 08. 02 포항 3기 종합 착공
- 11. 16 학교법인 제철학원 설립

1977

- 01. 01 기술연구소 설립
- 04. 24 포항 1제강공장 용선 유출사고 발생(5. 28 복구 완료)
- 08. 02 발전송풍설비 불량 콘크리트 구조물 폭파
- 10. 09 국제철강협회(IISI) 정회원 승격
- 11. 09 미국 타노마 광산 개발계약 체결

1978

- 04. 24 제1회 안전의 날 시행
- 06. 12 포항 3기 설비 건설비상 선포
- 09. 17 추석휴가 반납운동·합동성묘제 시행
- 10. 27 정부, 제2제철 실수요자로 포항제철 확정
- 12. 08 포항 3기 종합 준공(조강 550만 톤)

1979

- 02. 01 포항 4기 종합 착공
- 05. 01 포항축로 지분 참여(현 포스코캠텍)
- 12. 06 기업체질강화추진위원회 구성

1980

- 04. 01 <자주관리> 창간
- 06. 30 캐나다 그린힐스 광산 합작개발 합의
- 12. 06 품질정보센터 출범

1981

- 01. 21 노사협의회 발족
- 02. 18 포항 4기 종합 준공(조강 850만 톤)
- 02. 28 정부투자기관에서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
- 03. 02 박태준 초대 회장 취임
- 09. 01 포항 4기 2차 종합 착공
- 11. 01 자주관리의 날 선포
- 11. 04 정부, 제2공장 입지로 광양만 최종 확정

1982

- 04. 01 전 사원 월급제 도입
- 07. 09 호주 마운트슬리 광산 원료탄 최초 입하

1983

- 01. 18 미국 타노마 광산 원료탄 최초 입하
- 05. 25 포항 4기 2차 종합 준공(조강 910만 톤)
- 10. 24 광양제철소 개소

1984

- 01. 20 광양 연약지반 개량 공사 착공
- 04. 01 제1호 기성 탄생(연봉학 기성)
- 09. 06 포항 CTS 준공

1988

- 01. 27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 02. 15 포항도금강판 설립(현 포스코강판)
- 06. 10 주식 상장(국민주 1호)
- 07. 12 광양 2기 종합 준공(조강 1450만 톤)
- 10. 09 제22차 국제철강협회(IISI) 서울총회 개최
- 11. 01 광양 3기 종합 착공

1989

- 01. 27 전사 조강 생산 누계 1억 톤 돌파
- 03. 31 포항 스테인리스 1제강공장 열연공장 준공

1990

- 04. 01 전 직원 단일 호봉제 시행
- 07. 31 스테인리스 일관생산체제 가동
- 09. 12 <POSCO 주간뉴스> 창간
- 12. 04 광양 3기 종합 준공(조강 1750만 톤)

1991

- 01. 05 광양 4기 종합 착공
- 02. 02 포스텍 제1회 졸업생 배출
- 04. 20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 12. 02 전사 전자메일 시스템 가동



1965

- 05. 22 박정희 대통령, 코퍼스(Koppers) 포이 회장과 종합제철 건설 의견 교환

1966

- 07. 21 정부, 종합제철 건설 기본계획 확정
- 12. 06 대한국제제철사관단(KISA) 발족

1967

- 06. 30 포항을 종합제철 건설 입지로 확정
- 09. 11 종합제철 건설 실수요자로 대한중석 선정
- 10. 03 종합제철 공업단지 기공식
- 10. 20 정부와 KISA, 종합제철 건설 기본협정 체결
- 11. 10 종합제철공장건설사업 추진위원회 발족(위원장 박태준 대한중석 사장)
- 12. 06 추진위원회, 정부에 신설회사 설립계획안 제출(상법상 주식회사 건의)

1968

- 03. 20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창립총회(박태준 사장 선임)
- 04. 01 포항제철주식회사 창립
- 05. 25 건설부, 포항 항만공사 착공(8.1 준설공사)
- 05. 27 포항 건설사무소 개설(일명 롬멜하우스)
- 05. 30 경상북도, 부지 매입 완료
- 09. 10 직원 주택단지 공사 착공
- 11. 12 박정희 대통령, 포항제철 건설현장 첫 방문

1969

- 02. 01 제철연수원 개소
- 02. 24 건설부, 부지조성 공사 착공(1973. 3. 20 완료)
- 06. 03 종합제철사업계획연구위원회 출범
- 07. 22 연구위원회, 조강 103만 톤 규모의 사업계획서 작성
- 08. 04 정부, 포항제철 조강 103만 톤으로 확정
- 08. 28 한일각료회담(도쿄)에서 포항제철 건설 협력 합의
- 09. 02 KISA 기본협정 해지
- 12. 03 종합제철 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한일 간의 기본협약 체결
- 12. 15 일본 철강 3사와 예비 기술용역계약 체결(일본 기술용역팀을 JG(Japan Group)로 명명)

1970

- 04. 01 포항 1기 종합 착공
- 07. 15 JG와 1단계 기술용역계약 체결
- 12. 24 건설회의 최초 개최

1971

- 01. 27 재단법인 제철장학회 설립
- 02. 22 정부, 포항제철을 '제1종 철강공업자'로 지정
- 04. 01 전 직원 사원제 채택
- 04. 08 사보 <쇳물> 창간
- 08. 20 열연공장 기초공사 공기지연 면회를 위한 열연비상 선포(10. 31 임무 완수)
- 11. 25 호주 해머슬리와 철광석 구매계약 체결



1985

- 03. 05 광양 1기 종합 착공
- 12. 02 광통신 LAN 시스템 개통

1986

- 03. 21 스테인리스사업 실수요자로 선정
- 04. 01 USS와 합작 UPI 출범
- 04. 10 광양 CTS 준공
- 09. 30 광양 2기 종합 착공
- 12. 03 포항공과대학(POSTECH) 개교

1987

- 03. 03 산업과학기술연구소(RIST) 창립
- 04. 01 포항 본사 신사옥 준공
- 05. 07 광양 1기 종합 준공(조강 1180만 톤)
- 05. 13 박태준 회장, 베서머 금상 수상
- 10. 01 전 직원 단일 직급제 시행
- 12. 28 철강 밴(VAN) 시스템 가동

1992

- 04. 01 올해의 포철인 첫 탄생(정내신 주임, 권성만 계장)
- 09. 07 광양 전천후부두 준공
- 09. 24 기업이념 선포
- 10. 02 4반세기 건설 대역사 종합 준공(조강 2100만 톤)
- 10. 03 박태준 회장,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서 4반세기 건설 대역사 완성 보고(10. 5 회장 사임)
- 10. 09 환경노 2대 회장 취임
- 11. 16 4조 3교대 근무제도 시행



1993

- 03. 12 정명식 3대 회장 취임
- 04. 01 신포스코 창조 선포
- 07. 21 윤리강령 선포
- 10. 01 출퇴근복 자율화, 청색 근무복으로 통일
- 10. 30 분사·포항제철소 ISO 9002 인증 획득

1994

- 02. 28 제2 이동통신 주도사업자 선정 (5. 2 신세기통신 공식 출범)
- 03. 08 김만제 4대 회장 취임
- 06. 01 포스코경영연구소(POSRI) 설립
- 06. 13 직장협의회 공식 출범
- 06. 15 <포스코신문> 창간
- 07. 01 기술연구소 개소
- 10. 14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 12. 01 포스코개발 출범(현 포스코건설)
- 12. 07 포항방사광가속기 준공

1995

- 08. 31 포스코센터 준공
- 11. 28 코렉스공장 준공
- 12. 19 마지막 건설회의 개최

1996

- 01. 22 중소기업 납품대금 전액 현금 지급 개시
- 07. 10 세계 양대 환경경영 시스템(ISO 14001 ·BS 7750) 인증 동시 획득

1997

- 02. 15 중국 장가항포항불수강유한공사 설립
- 03. 14 사외이사제 및 사외감사제 도입
- 05. 25 국제스테인리스틸포럼(ISSF) 창립총회 개최(포스코센터)
- 11. 20 노경협의회 공식 출범

1998

- 03. 17 유상부 5대 회장 취임
- 07. 28 창립 이후 최초 감산체제 운영 결정

1999

- 01. 12 PI(Process Innovation) 발대식
- 03. 16 글로벌 전문경영체제(GPM) 도입
- 06. 22 신일본제철 주식 매입(~6. 23)
- 08. 27 파이넥스 파일럿 플랜트 준공
- 12. 31 포스코센터 음악회 첫 개최



2009

- 02. 27 정준양 7대 회장 취임
- 05. 07 중소기업 상생협력협의회 출범
- 08. 06 해외 최초 자동차강판공장 준공 (멕시코 CGL)
- 10. 19 동남아 최대 베트남 냉연공장 준공

2010

- 01. 22 포스코ICT 출범
- 03. 31 포스코그룹 통합 CI 도입
- 11. 01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 그룹사로 출범 (현 포스코대우)
- 11. 04 포스코 글로벌 R&D센터 준공(인천 송도)



2018

2014

- 01. 01 포스피아(POSPIA) 3.0 가동
- 01. 29 혁신포스코 1.0 추진반 가동
- 03. 14 권오준 8대 회장 취임
- 06. 02 윤리규범에 국내 최초 '인권존중' 명문화
- 06. 16 차세대 고내식 강재 포스맥(PosMAC) 개발
- 08. 18 포스코 고유 혁신모델 'POSTIM' 정립
- 10. 31 광양 4열연공장 준공
- 12. 19 아르헨티나 리튬추출 실증 플랜트 준공

2017

- 02. 07 광양 PosLX공장 준공
- 04. 26 기가스틸 전용 자동차강판공장 7CGL 준공
- 09. 07 샘 다우존스 선정, 세계 철강사 최초 13년 연속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
- 10. 30 글로벌 전기차소재 포럼 2017 개최
- 11. 03 스틸빌리지사업,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우수등급 등재
- 12. 05 100억 달러 수출의 탑 수상

2000

- 01. 03 신세기통신 자본, SK텔레콤에 양도 완료
- 02. 11 CEO 기업설명회 첫 개최
- 02. 17 해외 CEO 기업설명회 첫 개최
- 04. 01 사내 그룹웨어 포스웨어 가동
- 04. 18 광양 5고로 본격 가동
- 06. 01 TV 광고 1편 '철이 없다면' 첫 방송
- 08. 02 신일본제철과 전략적 제휴 체결
- 10. 04 민영화 완료

2001

- 06. 11 판매·구매 모든 거래를 Steel N.com으로 일원화
- 07. 02 포스피아(POSPIA) 시스템 가동
- 10. 20 토요격주휴무제 시행

2002

- 03. 15 주식회사 '포스코'로 사명 변경
- 07. 01 신우리사주제도(ESOP) 도입

2003

- 01. 01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도입
- 01. 17 EP(Enterprise Portal) 가동
- 01. 21 자동차강재 가공연구센터 준공
- 03. 14 이구택 6대 회장 취임
- 05. 29 파이넥스 데모 플랜트 준공, 포스코봉사단 창단
- 06. 02 윤리규범 선포
- 06. 16 주5일 근무제 시행
- 07. 03 포스코역사관 개관
- 11. 07 POSCO-China 출범

2004

- 03. 12 포스코 지배구조헌장 제정
- 06. 12 제1회 포항불빛축제 개최
- 10. 19 국내 최초 외부기관 검증 <지속가능성 보고서> 첫 발간
- 10. 21 중국 소주 자동차강판복합가공센터 POS-SPC 준공

2005

- 04. 27 공급사 대상 베네핏세어링 첫 성과보상
- 09. 08 포스코청암재단 출범
- 09. 09 포스코파워 출범(현 포스코에너지)

2006

- 08. 11 3기 경영혁신 킷오프
- 11. 22 장가항포항불수강, 스테인리스 일관생산 설비 종합 준공

2007

- 03. 27 제1회 포스코청암상 시상
- 03. 30 글로벌포스코웨이 비전 선포
- 05. 30 파이넥스 상용화설비 준공
- 06. 27 제1기 POSCO 대학생 봉사단 출범
- 07. 27 순천 마그네슘 판매공장 준공
- 12. 14 파이넥스공법, 2007년 10대 과학기술 선정

2008

- 01. 29 제1회 글로벌 EVI 포럼 개최
- 04. 01 포스코 비전 2018 선포
- 04. 26 GM 우수공급자상 수상
- 11. 03 SNNC, 페로니켈공장 준공

2011

- 01. 01 포항 1고로, 대한민국 경제국보 1호로 선정(중앙일보)
- 03. 28 광양 후판공장 준공
- 06. 13 장가항포항불수강, 4기 종합 준공
- 10. 04 포스코 글로벌안전센터 준공
- 10. 17 4조 2교대 시행
- 12. 13 박태준 명예회장 별세

2012

- 02. 23 리튬 직접 추출기술 세계 최초 개발
- 03. 09 전기자동차용 철강차체(PBC-EV) 개발
- 09. 03 사외 블로그 'Hello POSCO' 오픈
- 10. 09 세계 철강사 최초 에너지경영 시스템 (ISO 50001) 인증 획득

2013

- 01. 04 사회책임기업 포스코휴먼스 출범
- 06. 07 광양 1고로(내용적 6000m³) 세계 최대 고로로 재탄생
- 06. 22 대우인터내셔널, 미얀마 가스전 생산 개시
- 06. 24 신윤리경영 선포
- 11. 18 포스코1%나눔재단 출범
- 12. 23 크라카타우포스코 준공(조강 300만 톤)

2015

- 02. 02 교육법인 포스코인재창조원 출범
- 05. 14 비상경영채신위원회 출범
- 06. 18 포스코명장 첫 선별(권영국 파트장, 손병락 부관리직, 조영기 파트장, 조길동 파트장)
- 07. 15 혁신포스코 2.0 선포
- 08. 29 철강제품 누계 판매량 8억 톤 달성
- 09. 04 그룹통합 소통채널 <포스코투데이> 오픈

2016

- 01. 01 클린포스코 시스템 가동
- 01. 11 세계 철강사 최초 북미국제토쇼 기술전시회 개최(~1. 24)
- 05. 27 포스코 상생교육센터 준공
- 08. 31 태국 자동차강판공장(CGL) 준공, '기가스틸' 시대 공식 선포
- 09. 29 포스텍, 4세대 방사광가속기 준공 (세계 3번째)
- 12. 20 대한민국 동반성장대상 4년 연속 수상

2018

- 01. 16 AI 기반 초정밀 도금기술, 국가핵심기술 지정
- 01. 23 세계경제포럼 선정, 4년 연속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
- 04. 01 창립 50주년, POSCO 100 미래비전 선포
- 05. 17 Global Metal Awards 철강산업 리더십 부문 및 올해의 기업상 수상
- 06. 26 WSD 평가, 9년 연속 철강사 경쟁력 세계 1위
- 07. 27 최정우 9대 회장 취임
- 07. 30 경영개혁 Master Plan 수립TF팀 가동
- 11. 05 With POSCO 경영개혁 실천대회 개최 및 100대 개혁과제 발표
- 11. 08 포스코퀵텍, 음극재 생산설비 8·9호기 준공 및 2공장 착공



포스코 50년사

연혁화보

- 1편 포항제철 탄생
- 2편 포항제철소 건설
- 3편 광양제철소 건설
- 4편 2100만 톤 체제 정착
- 5편 신포스코경영 추진
- 6편 국제화와 경영다각화
- 7편 경영혁신과 민영화
- 8편 투명경영과 고부가가치경영 추진
- 9편 글로벌 통합경영 전개
- 10편 경쟁력 회복과 재도약 기반 마련
- 11편 With POSCO,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출발

- 01 포항제철 이전의 국내 철강업
- 02 KISA를 통한 종합제철 건설 추진
- 03 종합제철 입지로 포항 선정
- 04 종합제철 공업단지 기공식
- 05 실수요자 선정과 '종합제철공장건설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06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창립
- 07 기반시설공사-철도·도로·공업용수
- 08 기반시설공사-항만
- 09 건설의 전초기지-룸멜하우스
- 10 주민 이주와 부지조성공사
- 11 직원 주택단지 조성
- 12 종합제철에 대한 국민적 관심
- 13 대일청구권자금 전용(轉用) 구상과 자주적 103만 톤 사업계획 수립
- 14 한일협력으로 종합제철 건설자금 확보
- 15 실질적인 건설 파트너 JG(Japan Group)

우리나라의 근대 철강산업은 일제 강점기인 1917년 검이포(현 황해북도 송림시)에 처음 제철소가 세워지면서 태동했다. 이후 1945년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일본은 여러 곳에 제철소를 세웠지만, 산업발전 과정 속에 철강산업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군수산업의 일환으로 육성됐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기형적일 수밖에 없었다. 산업재의 기초가 되는 강재보다는 군수 물자를 생산하기 위한 선철 생산이 중심이었고, 지역적으로 한반도 북부 지역에 편중됐으며, 제철소 현장에서는 고급 기술의 유출을 막아 조선인 숙련 기능인력이 제대로 양성되지 못했다.

1948년 8월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가재건을 위해 철강산업 육성 움직임이 일어났다. 하지만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해 국토는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 와중에서도 1952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철강업 재건계획'이 입안될 정도로 정부의 의지는 강했다. 1953년 휴전 이후 정부는 본격적으로 철강산업 육성을 추진했다. 특히 철광석을 사용해 쇳물을 뽑고, 최종 철강제품까지 생산하는 종합제철 건설을 목표로 했다. 1958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제철 건설계획'이 수립됐지만 외자조달 실패와 4·19혁명 등 정국 혼란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뒤이어 등장한 제2공화국 정부도 종합제철 건설을 계획했으나, 비슷한 이유로 무위로 돌아갔다. 한편 정부의 철강산업 육성 정책과 궤를 같이해 민간부문에서도 1954년 동국제강, 1955년 대한중기공업(현 세아베스틸)이 설립되는 등 철강산업을 일으키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졌다.

제3공화국 정부는 경제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발표하며 종합제철 건설 추진을 재개했다. 정부는 제2공화국 정부의 구상을 구체화해 선철 25만 톤, 강괴 22만 톤 규모의 종합제철을 1962년 착공해 1966년 준공한다는 구상을 경제개발계획에 포함시켰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민간에서도 철강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일어 민간투자공동체가 결성되고, 1962년 5월에는 한국종합제철이 설립됐다. 한국종합제철은 미국과 서독의 철강업계와 기술도입 및 차관교섭을 벌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차관조달이 어려워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종합제철 건설 의지는 컸지만, 그것만으로 종합제철을 건설할 수는 없었다. 기술과 차관을 제공할 선진국이나 세계은행이 볼 때 우리나라는 이제 막 전쟁을 끝내고 아직 빈곤과 기아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일 뿐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대규모 자본과 기술이 투입돼야 하는 우리나라의 종합제철 건설이 허황돼 보이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정부는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위해서는 종합제철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종합제철 건설을 국민적 숙원사업으로 추진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는 강력했다. 1964년 12월 서독 방문 기간에 제철공장을 둘러보며 종합제철 건설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진 박 대통령은 급기야 1965년 5월 미국 방문길에 세계 굴지의 철강엔지니어링 회사인 코퍼스(Koppers)의 포이(Fred C. Foy) 회장을 만났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철강외교가 계기가 되어 1966년 12월 ‘대한국제제철차관단(KISA : Korea International Steel Associates)’이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KISA는 미국 등 5개 나라 8개 회사가 협의회를 구성해 한국이 종합제철을 세울 수 있도록 설비와 기술을 제공하면서, 필요한 자금은 각 회사가 자국 정부를 설득해 차관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KISA를 통한 종합제철 건설은 실패로 끝났지만 의미가 없지는 않았다. 종합제철을 짓기 위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설비계획, 설비구매 문제 등에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포항제철 창업요원들이 구체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다.

차관 조달을 위한 진통 속에서 정부는 1967년 6월 포항을 종합제철 건설 입지로 결정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한편 항만·철도·댐 공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대한중석을 종합제철 건설사업 실수요자로 선정하고, 11월에는 ‘종합제철공장건설사업추진위원회’를 발족해 박태준 대한중석 사장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1968년 3월 20일에는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의 창립 총회가 열렸다. 박태준 초대 사장이 취임했으며, 설립 등기를 마친 뒤 4월 1일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박정희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박태준 사장이 이끄는 포항제철의 출범은 종합제철 건설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다.

잇따른 실패를 경험한 정부는 그 이유로 외자조달과 세계은행의 타당성 검토 두 가지를 지목했다. 특히 자금문제는 KISA를 통한 차관 조달이 물거품이 됐으므로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었다. 딱 한 군데 희망이 있었다. 바로 농업지원 분야에 사용하기로 한 대일청구권자금의 일부를 철강 분야로 돌리고, 일본 철강업계의 기술지원을 받는다면 종합제철 건설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다. 방향과 목표는 정해졌지만 대일청구권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이미 외교적으로 합의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분야 간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었다. 또 세계은행 등이 한국에 종합제철을 짓는 것이 무리라는 주장을 거두지 않는다면, 일본에서도 대일청구권자금의 용도변경에 합의해주는 것이 불가능할 것임에 틀림없었다.

1969년 2월 박태준 사장이 미국 피츠버그에서 포이 회장을 만나 KISA를 통한 차관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후 대일청구권자금 전용(일명 하와이 구상)과 일본 철강업계의 기술협력이 종합제철 건설의 최후 희망이라는 인식이 청와대와 경제부처에 확산됐다.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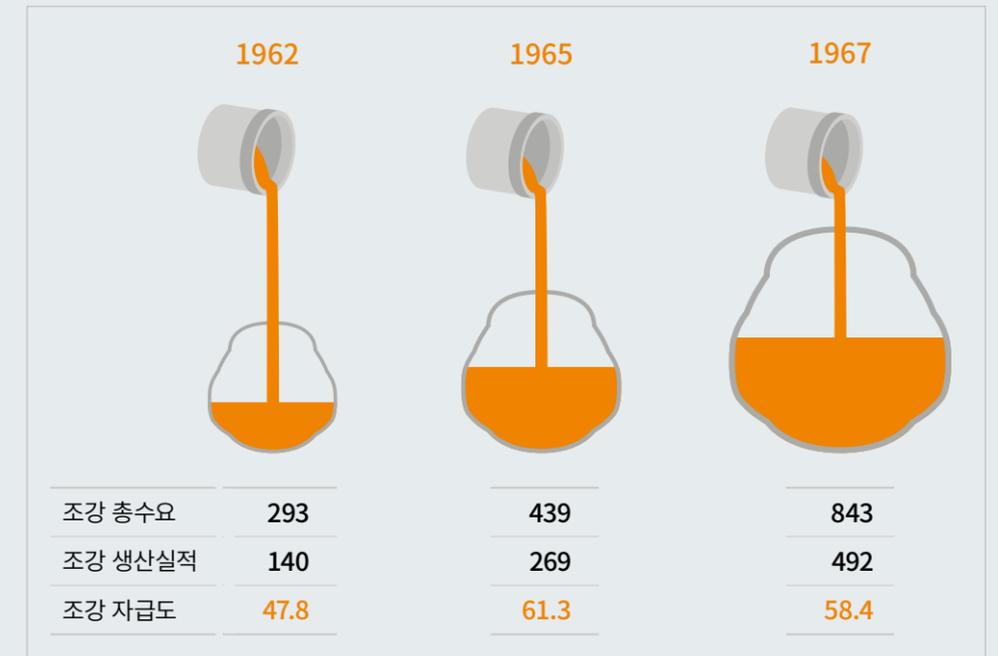
는 1969년 6월 ‘종합제철사업계획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간의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종합제철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대일청구권자금 활용에 따른 자금계획 수립과 종합제철을 짓고 운영하기 위한 계획, 특히 ‘103만 톤 설비계획’을 스스로의 역량으로 수립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정부는 일본 정부와 재계, 그리고 세계은행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설득작업에 착수했다. 김학렬 부총리를 필두로 한 정부 관계자는 물론, 일본에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던 박태준 사장이 나서서 물밑 교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마침내 1969년 12월 김학렬 부총리와 가네야마 마사히데 주한 일본대사가 ‘포항종합제철 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한일 간 기본협약’에 서명했다. 이어 아와타제철, 후지제철, 니혼강관 등 3사로 구성된 JG(Japan Group)와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제철 건설과 조업에 필요한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종합제철 건설은 이렇게 11년 만에 현실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모래바람 매서운 바닷가 허허벌판,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종합제철을 성공적으로 건설해 자립경제를 선도해야 한다는 제철보국의 의지, 선조의 희생을 헛되이 해서는 안된다는 각오뿐이었다. 바로 이것이 “실패하면 우항우해서 영일만에 투신해야 한다”라는 그 유명한 ‘우항우 정신’이다. 이 불타는 의지가 어떻게 현실화될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1960년대 국내 조강 수급실적

(단위: 천 톤, %)



| 01 | 포항제철 이전의 국내 철강업

한반도에 근대적인 제철소들이 들어선 것은 일제 강점기였다. 그러나 이들 제철소는 주로 군수산업용으로 북한지역에 편재돼 있었고 그나마 남한에 있던 제철소는 한국전쟁 기간에 대부분 파괴됐다. 이에 정부마다 심각한 철강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종합제철 건설을 추진했지만, 시도는 번번이 자금조달 문제로 무산됐다. 이후 제3공화국이 주요 기간산업 육성 방침을 세우면서 종합제철 건설을 본격화했고, 1964년 말에는 ‘철강공업 육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종합제철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 01 고레카와제철의 삼척공장을 모태로 한 삼화제철공사가 1954년 6월 가동에 들어갔다. 이 공장은 20톤 규모의 소형 용광로 8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 02 ‘전쟁고철을 재생해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1953년 6월 10일 조선이연금속 인천공장을 모태로 대한중공업공사가 발족했다. 사진은 1956년 대한중공업공사 평로 출강 장면.

- 03 한반도에 진출한 일본의 미쓰비시는 1917년 황해북도 송림시에 경이포제철소를 건설하기 시작해 1918년 6월 하루 생산량 150톤 규모의 미국식 제1고로를 화입했다. 이로써 한반도 최초의 근대적 제철소인 경이포제철소가 탄생했으나 이곳의 생산 제품은 오로지 군수용이었다.
- 04 1960년대 부산 용호동 앞바다를 매립해 건설한 동국제강 부산제강소 초창기 모습. 굴뚝에 연기가 나는 곳은 규포라공장, 오른쪽에 보이는 큰 공장은 1압연공장이다(사진제공 : 동국제강).



| 02 | KISA를 통한 종합제철 건설 추진

1965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방문 중 피츠버그의 코퍼스를 방문해 한국이 종합제철을 건설하는 데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금과 기술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에 따라 코퍼스 등 4개국 7개사는 1966년 12월 6일 KISA를 구성했고, 미국을 비롯한 8개국과 IMF(국제통화기금) 등은 12월 12일 대한국제경제협의회(ECOK)를 결성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한동안 KISA를 통해 종합제철 건설을 추진했으나 KISA가 외자를 조달하지 못해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과정에서 관련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이를 종합제철 건설 성공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었다.



01



02

- 01 1965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존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5월 22일 피츠버그 철강공업지대를 방문했는데, 이때부터 종합제철에 대한 구상을 더욱 구체화했다.
- 02 1967년 9월 25일 KISA 측이 제출한 초안을 바탕으로 경제기획원과 상공부는 KISA와 개괄적인 내용에 합의한 후 1967년 10월 12일 KISA와의 2차 회담에서 기본협정 체결에 대해 합의했다. 사진은 1967년 10월 12일 열린 KISA 대표단과 한국 측 대표단 간의 2차 연석회의.
- 03 1967년 10월 20일 '종합제철 기본협약 체결, 3년 6개월 내 가동'이라는 제목 아래 정부와 KISA 간 기본협정 체결을 알리는 신문기사(서울신문).



03

| 03 | 종합제철 입지로 포항 선정

정부는 1967년 6월 30일 종합제철 건설 입지로 포항을 선정했다. 종합제철이 들어설 자리는 면적이 충분해야 하고, 지반이 단단해야 하며, 원료를 조달하는 데 편리해야 했다. 판매시장과의 거리와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면도 고려해야 했다. 정부는 월포, 포항, 삼천포, 울산, 보성 등 5개 지역을 후보로 삼고 현지조사를 하는 등 면밀히 검토한 끝에 포항을 최적지로 결정했다. 포항은 991만 7355m²(300만 평)에 달하는 부지와 하루 25만 톤에 달하는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항만을 건설하는 데 매우 유리한 곳이었다.



01



02



03

- 01 정부는 종합제철 부지로 형산강과 냉천 유역의 2.5km에 달하는 해안 일대를 선정했다. 이 지역은 육지가 서·남·북 3면에서 영일만을 감싸 동해의 강한 풍랑을 막아주는 천혜의 항구를 이루고 있었다.
- 02 포항제철소가 들어서기 전의 영일군 대송면 동촌동 일대 전경.
- 03 종합제철 입지로 선정될 당시 포항은 인구가 6만 7000여 명에 불과한 작은 도시로, 전체 인구의 72%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지방 중소도시였다.

| 04 | 종합제철 공업단지 기공식

입지선정을 완료한 뒤 정부는 종합제철 공업단지 기공식을 열었다. 1967년 10월 3일 영일군 대송면에서 거행한 기공식에는 장기영 부총리를 비롯해 김윤기 건설부 장관, 김인 경상북도 지사, 샌드배크 코퍼스 부사장 등 주요 인사들은 물론, 포항·영일 등 인근지역 주민들이 다수 참석해 종합제철 건설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기원했다. 이날 기공식에 앞서 7월 22일에는 포항·영일 주민들이 범시민 입지결정 환영대회를 열고 종합제철 건설과 함께 포항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업도시로 발전하기를 기원하기도 했다.



01



02



03



04

- 01 1967년 10월 3일 종합제철 공업단지 기공식에는 장기영 부총리를 비롯해 김윤기 건설부 장관, 김인 경상북도 지사, 샌드배크 코퍼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KISA와 맺은 기본협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박태준 사장은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책임자가 기공식에 참석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날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국가기록원).
- 02 종합제철 공업단지 기공식에 참석한 장기영 부총리가 치사를 하고 있다(국가기록원).
- 03 기공식에 앞서 7월 22일 열린 범시민환영대회에서 미스포항이 카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 04 종합제철 공업단지 기공식은 시민들의 경축행사가 함께 진행돼 시민축제의 장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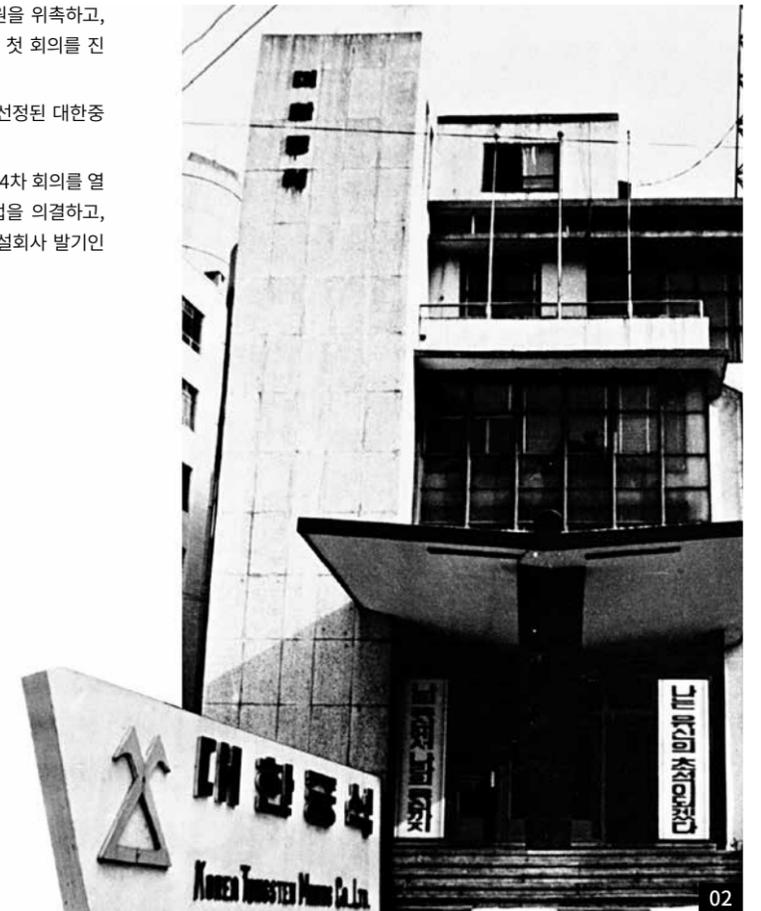
05 | 실수요자 선정과 '종합제철공장건설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종합제철 입지로 포항을 선정한 뒤인 1967년 9월 11일, 정부는 종합제철의 실수요자로 대한중석을 선정했다. 대한중석을 실수요자로 선정한 것은 내자를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실무 차원의 고려도 있었지만, 적자였던 대한중석을 흑자로 전환시키고 가와사키제철로부터 종합제철 건설에 대한 조연을 받는 등 종합제철에 관해 상당한 준비가 돼 있었던 박태준 대한중석 사장을 종합제철 건설의 지휘자로 삼고자 하는 고려도 있었다. 실수요자를 선정한 두 달 뒤인 11월 10일, 정부는 박태준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종합제철사업의 주체가 될 회사 설립 추진 별도의 기구인 '종합제철공장건설사업추진위원회'를 꾸렸다.



01

- 01 정부는 1967년 11월 8일 민관을 망라한 12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11월 10일 종합제철공장건설사업추진위원회를 발족, 첫 회의를 진행했다.
- 02 1967년 9월 11일 종합제철 건설사업의 실수요자로 선정된 대한중석 사옥.
- 03 종합제철공장건설사업추진위원회는 1968년 3월 4일 4차 회의를 열어 '(가칭)한국종합제철주식회사'의 설립 일정과 방법을 의결하고, 박태준 사장, 진봉현 경제기획원 차관보 등 7명을 신설회사 발기인으로 선임했다.



02



03

| 06 |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창립

종합제철공장건설사업추진위원회는 1968년 3월 4일 신설회사의 발기인 7명을 선임했고, 이들 발기인들은 3월 6일 정관안을 확정해 종합제철 사업을 주도할 회사 설립에 박차를 가했다. 신설회사는 1968년 3월 20일 서울 명동의 유네스코회관에서 회사 창립총회를 열고, 상호를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로 결정하는 한편, 박태준 대한중석 사장을 신설회사의 사장으로 선임했다. 이후 회사 창립일을 창립총회 12일 후인 4월 1일로 정하고 이날 창립식을 거행했다. 포항제철은 완전 민영화를 이룬 이후인 2002년 3월 15일 사명을 '주식회사 포스코(POSCO)'로 변경했다.



02



01



03

- 01 신설회사는 1968년 4월 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유네스코회관 3층에 자리 잡은 본사 사무실에서 창립식을 거행했다. 이날 창립식에서 박태준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인화단결과 상호협조, 기술자 훈련의 적극 추진, 건설관리의 합리화, 경제적 투자 체제의 확립을 창립연도 운영목표로 내세웠다.
- 02 창립요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태준 사장이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현판을 걸고 있다.
- 03 포항제철이 첫 사무실로 임차해 사용한 유네스코회관. 서울시 중구 명동에 위치한 유네스코회관은 1968년 6월 30일 YWCA 회관으로 이전할 때까지 사용했다.

| 07 | 기반시설공사 철도·도로·공업용수

정부는 종합제철 입지를 선정 후 곧바로 기반시설공사를 서둘렀다. 기반시설공사 중 제일 먼저 착공한 것은 철도 인입선 공사였다. 이 공사는 동해남부선의 효자역과 제철소 구내를 연결하는 공사였는데 1968년 4월 25일 착공해 1970년 11월 25일 완료했다. 도로, 교량 등을 놓는 도시토목공사도 병행해 1968년부터 1974년까지 수행했다.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정부는 안계리에 댐을 건설했다. 1968년 6월 15일 착공해 1971년 3월 말 준공한 안계댐은 총저수량이 1765만³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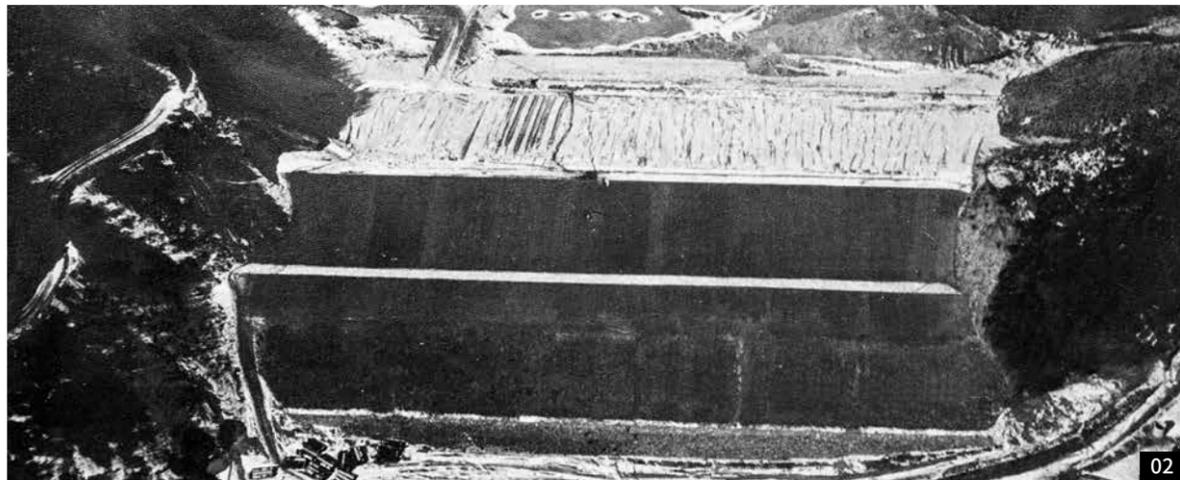
03



01



04



02

- 01 철도청 태백공사사무소는 1967년 6월 1일 동해남부선의 효자역과 제철소 구내를 연결하는 철도 인입선 공사계획을 수립하고, 1968년 4월 25일 공사에 들어갔다. 사진은 1970년 8월 철도인입조차장 공사 현장.
- 02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건설한 안계댐은 1968년 6월 15일 착공해 1971년 3월 말 완공됐다. 안계댐 건설로 가옥 160여 동을 포함해 145만²(약 44만 평)가 수몰됐다. 사진은 1971년 10월 공사 현장.
- 03 철도청은 1970년 10월 7일 본선을 개통하고, 11월 25일 모든 공사를 완료, 철도 인입공사를 준공했다. 철도는 1971년 4월 11일 운영을 개시했는데, 포항제철은 이 철도를 통해 1기 설비 건설자재를 원활하게 실어날라 수 있었다.

- 04 정부는 도시토목공사도 서둘러 1968년 6km, 1969년 7.46km, 1970년 5.1km, 1971년 10.25km에 달하는 도로 포장공사를 진행했다. 1973년에는 형산교를 지나 제철소에 이르는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 포장했다.

| 08 | 기반시설공사-항만

철도·도로·공업용수와 더불어 정부는 항만공사도 진행했다. 종합제철은 들어오고 나가는 원료와 제품의 양이 막대하기 때문에 저렴한 운송비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였다. 정부는 1968년 5월 25일 포항신항을 착공해 1973년 7월 10일 수로고시를 완료함으로써 항만 건설을 마쳤다. 포항신항 건설은 준설선 동원능력과 공기 등을 고려해 바다가 육지를 파고 들어온 모양인 굴입항만을 채택한 점, 방파제 공사를 할 때 육지에서 콘크리트 상자인 케이슨을 미리 만들어 설치 장소로 예인해 가는 케이슨공법을 채택한 점 등이 특징이었다.



02

- 01 박종태 소장과 유석기 부장 등 초기 건설요원들이 방파제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02 원료부두가 들어설 자리에 파일항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길게 늘어난 파일에서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 03 종합제철 건설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반영한 영화 '해벽'이 영화는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도한 굴입항만공사를 소재로 다뤘다. 이 성구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신영균, 오현경, 이낙훈 등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한 해벽은 1973년 2월 3일 개봉, 많은 관심을 모았다.
- 04 890m의 동방파제와 480m의 파제제 공사는 거친 파도, 준설선으로 제거할 수 없는 수중 암석 폭파 등 자연과의 싸움이었다.



03



01



04

| 09 | 건설의 전초기지-롬멜하우스

포항제철은 회사 설립 직후인 1968년 5월 27일 포항 건설현장에 2층짜리 목조 가건물을 신축해 '포항제철건설본부'를 개소했다. 이때는 아직 본격적인 포항 1기 공사에 들어가기 전이었다. 건설사무소를 세우고 나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함에 따라 가건물 주변은 모래벌판으로 변해갔다. 그러자 직원들은 황량한 모래벌판 속에 서 있는 이 건물을 2차 대전 당시 사막전의 명수였던 독일 롬멜 장군의 이름을 따 '롬멜하우스'라고 불렀다. 롬멜하우스는 건설 초기 직원들의 의지와 애환을 오롯이 담은 포스코 역사의 상징으로서, 현재 포스코역사관에 그 원형을 복원해 보존하고 있다.



03



01



02

01 1968년 5월 준공한 건설사무소는 낮에는 건설을 지휘하는 사령탑이었고, 밤에는 10명이 채 되지 않는 직원들이 책상을 침대 삼아 새우잠을 자는 숙소이기도 했다. 현재 건설사무소는 포스코역사관에 복원해 전시하고 있다.
02 사진은 롬멜이 맹위를 떨치던 사막의 모습을 방불케 하는 초기 건설현장과 롬멜하우스.

03 롬멜하우스에서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숙의를 하는 박태준 사장, 안병화 부장, 박종태 소장.
04 포항제철은 롬멜하우스 인근의 소나무들을 포항사무소(현 홍보센터) 산자락에 옮겨 심었다. 다 자란 소나무를 옮겨 심는 것은 당시만 해도 불가능으로 여겨졌다. 사진은 롬멜하우스 인근 소나무를 배경으로 선 건설요원들.



04

10 | 주민 이주와 부지 조성 공사

종합제철 입지를 결정한 뒤 정부는 제철소 부지를 매수하고, 그곳에 살던 주민 이주를 시작했다. 부지매수는 경상북도가 맡아 1968년 5월 30일 완료했고, 이후 영일군이 주민 이주에 나섰다. 부지 매수와 주민 이주 모두 일부 주민이 반발해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상북도와 영일군이 갖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무난히 제철소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정부는 준설, 성토, 정지, 비토 포설 순으로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공사들은 포항 1기를 착공한 1970년 4월 1일 이후에도 제철소 공사와 병행했으며, 포항 1기 건설 막바지인 1973년 3월 20일 완료됐다.



02



01

- 01 당시 부지 내의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은 동양 최대의 규모였다. 수녀원은 처음에는 철거에 반대했다. 그러나 박태준 사장이 직접 설득하는 등 정부와 포항제철 모두가 나서 설득한 끝에 철거에 동의하게 됐다. 이후 수녀원의 길수다니 신부는 손수 다이너마이트로 건물을 폭파하고 재활용 가능한 벽돌을 챙겨서 대잠동에 마련한 새 터전으로 옮겨갔다.
- 02 정부는 1968년 6월 15일 부지정리 작업을 시작했다. 이때 철거 대상 건축물은 민가 533동, 공유시설 31동 등 총 564동이었다.
- 03 닭장 속의 닭까지 챙기며 정들었던 마을을 떠나는 이주민들. 아쉬운 마음 한편으로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설렘도 있었다.



03

11 | 직원 주택단지 조성

정부가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하자 직원들의 거주처가 문제로 떠올랐다. 대역사의 성공을 고려할 때 직원들의 거주문제도 장기적 관점에서 풀어야 했다. 이에 따라 직원 주택단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1968년 9월 10일 사원용 주택단지 공사를 시작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아직 공장도 하나 짓지 않은 상태에서 사원들 집부터 짓는다며 비난하기도 했지만, 박태준 사장은 고급 인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종합제철 건설의 필수조건이라는 소신에 주택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했다. 1971년 1월에는 직원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단법인 제철장학회를 설립, 효자제철유치원을 개원했다. 이후 설비 증설로 직원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1976년 11월 중등교육까지 담당할 수 있는 학교법인 제철학원을 설립했다. 이후 광양지역에도 학교단지를 조성해 운영했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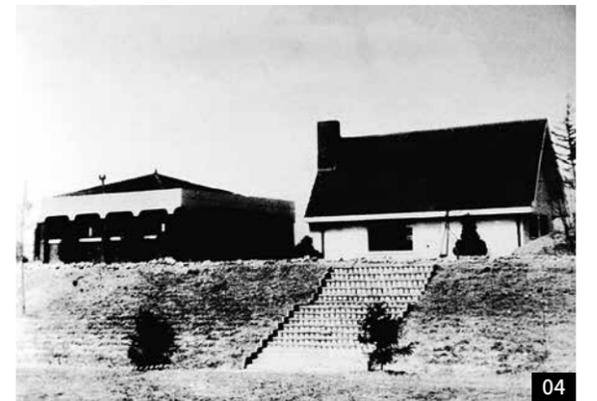


02

- 01 포항제철은 주택단지 후보 지역으로 환호, 인덕, 해도, 오천, 효자 등지와 월성군을 두고 고심을 했다. 박태준 사장은 직접 현장답사를 한 뒤, 효자지구를 주택단지로 결정했다. 사진은 1971년 4월 19일 공사 중인 효자지구 전경.
- 02 주택단지 건설공사는 직원용 주택공사와 건설용역에 투입할 외국인 기술자를 위한 주택공사로 나눠 진행했다. 사진은 1971년경 직원 주택단지.
- 03 인재를 중시한 박태준 사장은 공장 건설 못지않게 직원 주택단지 건설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사진은 1969년 7월 3일 독신사원 숙소 건설현장을 방문한 박태준 사장.
- 04 개원 당시 효자제철유치원은 최고의 교육시설과 환경을 갖춰 많은 기대와 관심을 모았다. 사진은 개원 직전인 1971년 8월 29일의 효자제철유치원 건물.



03



04

| 12 | 종합제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정부 수립 후 여러 차례에 걸친 도전 끝에 정부가 포항을 입지로 선정하고 기반시설공사를 시작하는 등 종합제철 건설을 본격화하자 종합제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는 한껏 높아졌다. 이렇게 종합제철 건설은 외형상 본궤도에 오른 듯 보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떠오르고 있었다. 믿었던 KISA를 통한 외자조달이 불투명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험해 보지 못한 거대한 국가적 프로젝트인 종합제철 건설은 정부나 포항제철로서도 적잖은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부지조성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던 1968년 11월 12일, 처음으로 건설현장을 전격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이거 남의 집 다 헐어놓고 제철소가 되기는 되는 건가?”라고 혼잣말처럼 걱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열세 차례나 포항제철을 방문하며 종합제철에 남다른 관심을 표했다.



01



02



03

01 박정희 대통령은 포항제철을 열세 차례나 방문했다. 그만큼 걱정도 많았고, 기대도 컸다. 사진은 1971년 3월 19일 헬기를 타고 불시에 현지를 방문, 상황실에서 박태준 사장의 현황설명을 들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공사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02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제철 건설현장을 처음으로 찾은 1968년 11월 12일 롬멜하우스에서 브리핑을 받고 박태준 사장 등 관계자와 함께 건설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롬멜하우스를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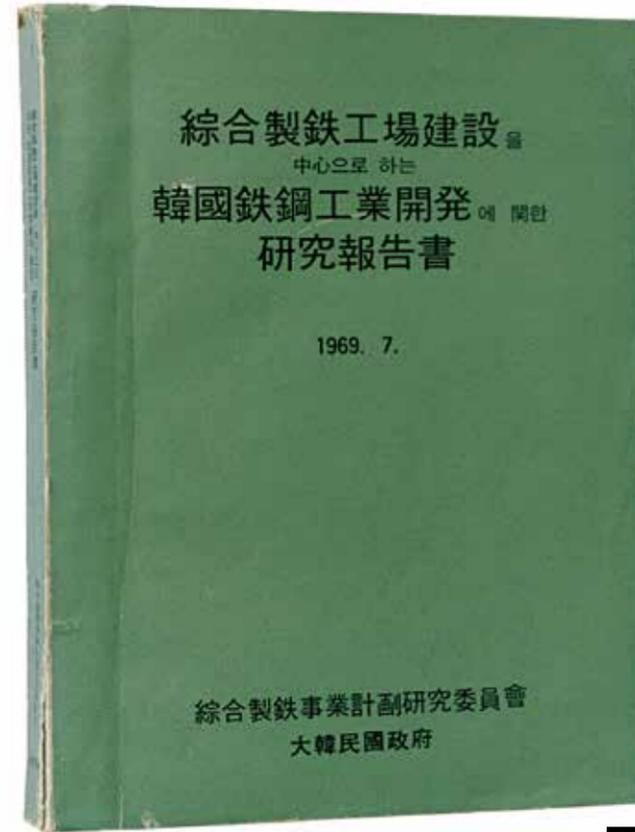
03 1971년 3월 19일 건설현장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을 박종태 소장이 맞이하고 있다.

13 | 대일청구권자금 전용(轉用) 구상과 자주적 103만 톤 사업계획 수립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종합제철 건설은 자금확보가 관건이었다. 그러나 1969년으로 접어들자 KISA를 통한 외자조달은 사실상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태준 사장은 대일청구권자금을 일부 전용해 종합제철을 건설하자는 구상을 했으며(이는 ‘하와이 구상’으로 불렸다), 정부와 포항제철은 대일청구권자금 전용을 위한 정지작업을 위해 민관 양면에서 일본과 접촉을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정문도 경제기획원 운영차관보를 위원장으로 삼아 총 15명으로 종합제철사업계획연구위원회(종합제철 건설전담반)를 설치했다. 이 연구위원회는 눈앞에 닥친 위기 앞에서 종합제철 건설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했으며, 1969년 7월 22일 시설규모를 늘린 103만 톤 규모의 사업계획을 내놓았다.



01



02 연구위원회가 1969년 7월 22일 '종합제철공장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철강공업 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완성해 정부에 제출했다. 연구위원회는 50일 만에 신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03 1969년 9월 13일 포항제철은 신사업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신사업계획 구체화작업보고서'를 내놓았다.

14 | 한일협력으로 종합제철 건설자금 확보

1969년 7월 '103만 톤 계획'이 수립되자, 이를 현실화할 자금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대일청구권자금 전용을 위해 일본 정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고, 선결조건으로 일본 철강업계와 IBRD 등 국제금융기구의 타당성 인정이 필요했다. 정부와 포항제철은 1969년 8월 26일부터 사흘간 열린 제3차 한일각료회담에서 종합제철 건설에 대한 일본의 협조 약속을 받아냈다. 이후 한일 양국은 자금 조달과 기술응역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고, 일본 조사단과 IBRD도 내한해 종합제철 건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협상도 급물살을 타, 1969년 12월 3일 대일청구권자금의 일부를 종합제철 건설에 전용하기로 최종합의하는 한일 간의 기본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태준 사장은 일본의 철강업계와 접촉해 기술지원 협조 의사를 이끌어냄으로써 성공적인 회담을 뒷받침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수차례에 걸친 시도와 좌절 끝에 마침내 종합제철 건설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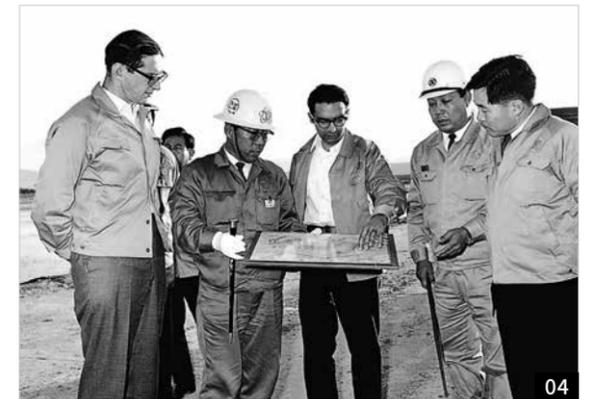


02

- 01 1969년 12월 3일 오전 정부를 대표한 김학렬 부총리와 일본 정부를 대표한 가네야마 마사히데 주한 일본대사가 경제기획원에서 포항종합제철 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한일 간의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 02 1969년 8월 26~28일 일본에서 종합제철 건설협력 방침을 결정한 제3차 한일각료회담이 개최됐다.
- 03 1969년 9월 23일 일본 조사단과의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 04 1969년 11월 IBRD 조사단이 포항 현지를 방문하고, 공사현장을 확인했다.



03



04

15 | 실질적인 건설 파트너 JG(Japan Group)

포항제철은 건설자금 확보 노력과는 별도로 제철소 건설과 조업을 위한 실질적인 기술을 지원받기 위해 노력했다. 제3차 한일각료회담을 준비하며 아와타제철, 후지제철, 니혼강관 등 3사로부터 기술지원을 약속받았고, 1969년 8월 29일에는 3사가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한일각료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1969년 10월에는 정식으로 기술용역 제공을 요청했고, 같은 해 12월 15일에는 예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기술용역을 제공할 일본 기술용역팀을 JG(Japan Group)라 부르게 됐다. 포항제철은 이후 JG와 긴밀한 의견 교환을 진행해 1970년 7월 15일 본기술용역계약을 체결했다. JG는 포항 1기 건설기간 동안 건설 본기술용역계약 1단계에 연인원 710명/일, 본기술용역계약 2단계에 1만 8000명/월, 조업과 수탁시험 단계에 1만 8666명/월의 방대한 인력을 포항제철에 파견했다. JG는 설비계획, 설비구매, 건설, 조업 대비, 시운전 등 모든 과정에 걸쳐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포항제철은 이를 자력기술로 축적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JG는 포항 1기 건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후에도 설비확장에 따라 포항 2·3기가 건설될 때까지 유지되며, 포항제철소 건설에 크게 기여했다.



01



02



03



04

- 01 포항제철은 자본과 기술을 일본으로부터 도입하기 위해 아와타제철, 후지제철, 니혼강관 등 3사에 기술용역 제공을 요청했다. 이들 3사는 1969년 8월 29일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5일 예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JG일행과 환담하는 박태준 사장.
- 02 신일본제철 나가노 시게오 회장을 맞아 환담을 나누는 박태준 사장.

- 03 신일본제철의 이나야마 요시히로 사장과 환담하는 박태준 사장.
- 04 포항제철소 건설에 협력한 JG요원들이 발간한 회고록 (포항제철의 건설회고록, 1997. 5).

- 01 영일만 대역사의 서막
- 02 설비 및 원료 구매
- 03 위기를 기회로-공기단축 전통의 시발점
- 04 종합제철 건설 현장
- 05 피와 땀의 결정-첫 제품 출하
- 06 만세! 첫 출선의 감격
- 07 우리나라 최초 종합제철 탄생(포항 1기 준공)
- 08 일면건설, 일면조업의 결실(포항 2기 준공)
- 09 제강사고와 안전의 생활화
- 10 또 하나의 전통, 완벽한 공사 추구
- 11 건국 이후 최대의 공사(포항 3기 준공)
- 12 안정적 원료 확보 노력
- 13 기업체질 강화와 자주관리활동
- 14 영일만 대역사의 완성(포항 4기 준공)
- 15 910만 톤 체제 완성과 스테인리스 일관생산체제 구축

포항제철은 1970년 4월 1일 영일만 건설현장에서 포항 1기 종합 착공식을 거행하고 제철소 건설 4반세기 대역사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산업의 쌀’을 생산하여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종합제철 건설, 이것은 한 기업의 성패를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좌우하는 건국 이래 최대의 국가적 프로젝트였다. 정부가 먼저 나섰다. 1967년 입지 결정에 이어 1968년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부지조성·철도·항만·댐 등 각종 인프라 공사를 추진했다. 이때 포항제철은 건설현장에 ‘룸멜하우스’라 불리는 목조 가건물의 건설사무소를 개설해 종합제철 건설 대비에 만전을 기울이는 한편, 1만 페이지 분량의 GEP(일반기술계획)를 철저히 검토해 나갔다.

설비구매에도 만전을 기했다. 엄청난 규모의 값비싼 설비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관료와의 갈등 등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박태준 사장은 1970년 2월 박정희 대통령과 독대를 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소신껏 처리하라며 박태준 사장이 육필로 쓴 건의사항 메모지에 사인을 해주었다. 훗날 ‘종이마패’라고 불리는 이 메모지는 포항제철에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설비구매의 버팀목이 됐다.

포항제철은 건설 시작 단계부터 수익과 원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 백워드 방식의 건설과 공기단축 노력도 그 일환이었다. 종합제철 건설은 통상 제품이 생산되는 순서에 따라 제선·제강·압연공장 등의 순으로 추진되지만, 포항 1기는 거꾸로 열연공장부터 건설했다. 열연공장을 먼저 준공한 다음 해외에서 반제품을 수입해 완제품을 생산하고, 여기서 생기는 이윤을 회사 경영에 활용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종합제철소 건설에는 기계·전기·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이 집약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10~20% 여유 공기를 두는 것이 관례였지만 포항제철은 급증하는 국내 철강재 수요를 하루빨리 충족시키고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공기단축에 총력을 기울였다.

1971년 8월 열연공장 기초공사가 지연되자 ‘열연비상’을 선포하고 2개월 동안 철야작업을 강행한 끝에 5개월 작업 분량의 콘크리트를 타설해 전체 공기를 오히려 1개월이나 단축했고, 이 돌관공사의 정신을 위기극복의 회사 전통으로 확립했다. 이후 모든 공사에서 공기단축은 당연한 일이 됐다. 단위공장으로는 처음으로 1972년 7월 중후판공장, 10월 열연공장이 준공됐고, 1973년 6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고로인 포항 1고로에서 첫 출선이 이뤄졌다. 1973년 7월 3일에는

포항 1기 설비 종합 준공식을 개최해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제철 탄생을 대내외에 알렸다. 조강 연산 103만 톤 규모의 포항 1기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경제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포항 1기에서 4기까지 공기단축의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공사품질만은 철저히 관리했다. 공정 80%의 발전송풍설비 불량 콘크리트 구조물을 폭파해 버리고 대형 볼트 체결상태를 전수 조사해 불량 개소를 다시 체결시키는 등 부실공사는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다.

포항제철은 철강 선진국에서도 설비 준공 후 1년여가 걸리는 정상조업을 불과 4개월 만에 달성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수립했으며, 준공 이듬해인 1974년에 제품 출하 100만 톤, 매출 1000억 원, 수출 1억 달러, 경영흑자 355억 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 더구나 그것은 ‘제철보국’의 창업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 판매 가격을 외국 오퍼 가격보다 21%에서 42%까지 낮춘 가운데 이뤄낸 결실이었다. 특히 포항 2기 건설과 병행하면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값진 것이었다. 포항제철은 조업 첫해에 이룬 흑자를 발판으로 이후에도 매년 흑자를 기록해 나갔다.

설비 증설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1973년 12월 포항 2기 공사를 착공해 1976년 5월 준공했다. 포항 2기는 시설용량이 포항 1기의 1.5배였고, 기술적인 난점이 많아 선진 철강사도 도입을 꺼리는 연속주조설비를 성공적으로 건설해 세계 철강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1977년 2월 1병연공장을 준공해 가전과 자동차산업 등 국내 냉연제품 수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연관산업 발전을 이끌었다.

1976년 8월 착공한 포항 3기 공사는 선재공장과 전기강판공장 등 2개의 신규 설비를 비롯해 18개 설비가 포함됐으며, 포항 1·2기 공사 물량을 합한 것보다 많은 물량으로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공사였다. 조업과 건설을 병행해야 하는 대규모 공사 와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해 큰 난관을 겪기도 했다.

1977년 4월 24일 제강공장 용선 유출사고가 발생해 정상조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외국 전문가들조차 이를 극복하는 데 최소한 4개월은 걸릴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지만 포항제철 임직원들은 불굴의 투지를 발휘해 34일 만에 완전 복구를 이뤄냈다. 물론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포항제철은 사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특유의 정신력을 보여줬고, 이를 계기로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였다. 포항 3기는 추석 연휴까지 반납하며 예정공기보다 5개월 단축한 1978년 12월 종합 준공돼 조강 연산 550만 톤 체제를 구축했다. 이로써 포항제철은 명실상부한 국제경쟁 우위의 양산체제를 확립했으며, 우리나라는 550만 톤급 제철소를 보유한 11번째 국가가 됐다.

1979년 2월 설비공사에 들어간 포항 4기 공사는 환경·안전관리 분야에서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됐다. 1981년 2월 포항 4기 종합 준공으로 포항제철은 조강 연산 850만 톤 체제를 구축했다. 국내 조강 생산능력은 1210만 톤으로 증가했고, 철강 자급도는 조강 기준 89% 수준으로

올라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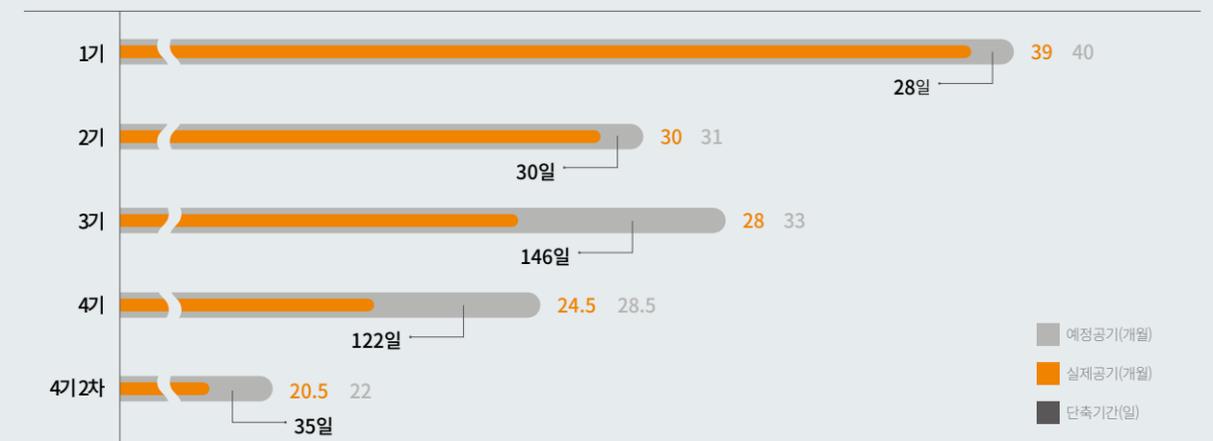
포항 1기 착공부터 1981년 2월 포항 4기 종합 준공에 이르기까지 십여 년 동안 포항제철은 ‘영일만의 기적’이라 불린 대성취를 이뤄냈다.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었다. 박태준 사장은 야전사령관이었고, 포항제철 임직원과 해외 기술진, 그리고 국내외 설비공급업체와 건설업체 임직원들은 마치 전투를 치르듯 영일만 허허벌판을 거대한 종합제철로 변모시켜 나갔다.

기술도 경험도 자금도 없이 오직 의지로만 시작했던 종합제철소 건설이었다. 하지만 설비 확장을 이어가면서 JG로부터 배운 기술을 하나하나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고, 결국에는 자체 엔지니어링으로 설계와 설비를 확정하고, 조업기술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다. 제철기술의 식민화를 조기에 극복하고 최고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경영철학에 따라 임직원이 땀뿜 땀뿜 결과였다.

이후 1983년 5월 포항 4기 2차 사업을 종합 준공하며 포항제철은 910만 톤 체제를 구축했다. 1970년 포항 1기 사업을 시작한 이래 무려 13년에 걸친 영일만 대역사가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포항제철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포항제철소를 완공하는 과정에는 철강을 통해 나라에 보답한다는 ‘제철보국 정신’, 실패하면 영일만 바다에 투신하자는 ‘우항우 정신’ 같은 결연한 정신적 가치가 든든한 뿌리로 박혀 있었다. 이러한 정신적 가치는 포항제철의 건설은 물론 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나아가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포항제철소 건설공기 단축실적



| 01 | 영일만 대역사의 서막

포항제철은 1970년 4월 1일 경상북도 영일군 대송면 건설현장에서 포항 1기를 착공했다. 이날 행사에서 박정희 대통령, 김학렬 부총리, 박태준 사장이 착공 버튼을 누르면서 영일만 건설 대역사의 막이 올랐다. 착공 이후 건설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박태준 사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건설현장을 시찰하며 건설을 독려했다. 이때마다 박 사장은 “지금 우리는 선조의 피값으로 종합제철을 건설하고 있다. 따라서 실패하면 모두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므로 ‘우향우’해 영일만에 뛰어든 각오로 건설에 임해야 한다”며 숭고한 사명 의식과 막중한 책임감을 고취했다. 이후 우향우 정신은 포항제철의 사풍을 형성했고, 수없이 닦친 위기를 극복하는 지주 역할을 해냈다.



0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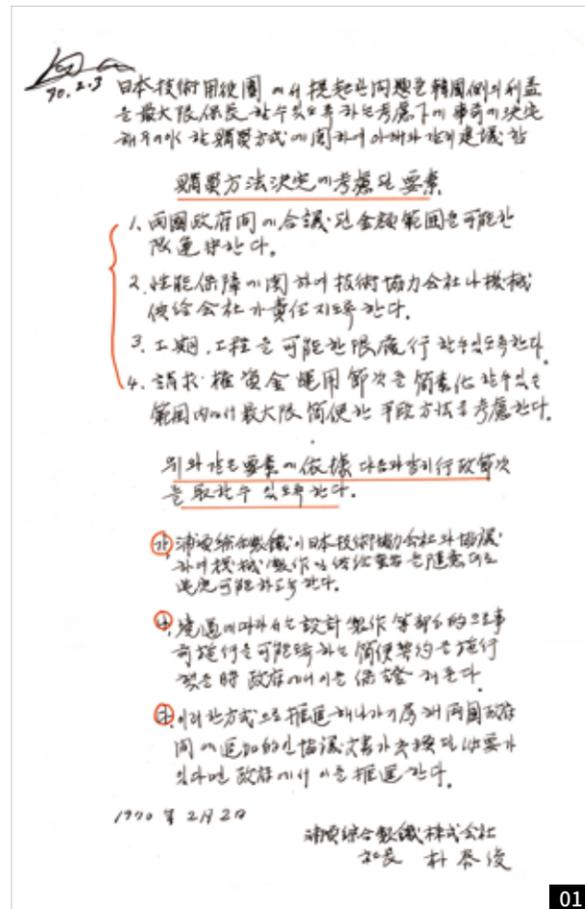


03

- 01 1970년 4월 1일 만성적인 빈곤 추방과 자립경제 달성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안고 치른 포항 1기 설비 종합 착공식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김학렬 부총리가 박태준 사장과 함께 착공 버튼을 눌렀다.
- 02 모래바람이 이는 악조건 속에서도 공장건설을 위한 파일함타 굉음이 끊이지 않았다.
- 03 포항 1기 설비 종합 착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 김학렬 부총리, 박태준 사장이 단상에서 내려와 착공 버튼을 누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02 | 설비 및 원료 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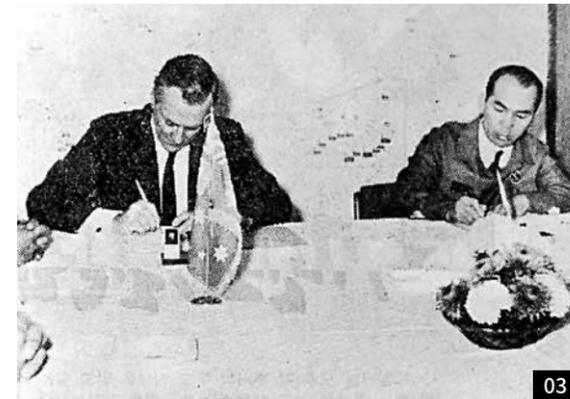
포항제철은 1969년 12월 15일 JG와 체결한 예비기술용역 계약에 근거해 103만 톤 규모의 1기 설비계획을 확정 후 본격적인 설비구매에 나섰다. 국내외의 압력이라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다. 박태준 사장은 1970년 2월 박정희 대통령에게 설비구매권 재량권 부여를 건의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훗날 '종이마패'로 일컬어진 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각종 압력을 배제한 합리적인 설비구매에 힘을 실어줬다. 한편 포항 1기 설비공사가 한창이던 1971년 7월, 박태준 사장은 허허벌판의 부지 위에 공장 위치만 표시한 입간판 사진 몇 장만을 들고 호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업에 필요한 철광석과 원료탄의 안정적 수급이 절실했다. 그러나 일본이 이미 지리적으로 유리한 호주를 제철원료 확보의 거점으로 삼으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호주의 원료공급사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았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집요한 설득으로 마침내 철광석 및 원료탄 장기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일본에 비해 소량 구매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공급받기로 했다.



01



02



03



04

01 설비구매 재량권을 재가한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사인과 박태준 사장의 자필 건의문. 1970년 2월 박태준 사장은 설비구매 재량권을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을 찾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박 사장의 건의문에 서명했다.

02 1970년 5월 29일 미쓰비시상사를 열연공장 설비공급자로 지정하는 각서를 교환하고, 1970년 9월 19일 계약을 체결했다.

03 1971년 들어서면서 포항 1기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장차 제철소가 완성된 후 조업에 필요한 철광석과 원료탄 확보 문제가 대두됐다. 원료구매와 관련해 일본에 협조를 구했으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박태준 사장은 호주를 방문, 냉담한 반응의 광산회사를 집요하게 설득해 1971년 11월 25일 호주 해머슬리와 철광석 장기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04 1973년 3월 2일 최초의 원료 수송선인 아잔타호가 포항항에 입항했다.

| 03 | 위기를 기회로-공기단축 전통의 시발점

제철소 건설이 시작되자 박태준 사장은 “선조들의 피값으로 짓는 제철소 건설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우향우하여 영일만에 투신해야 한다”라며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건설요원들까지 민족의 숙원사업에 동참한다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본격적으로 제철소 건설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건설관리체제 확립과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그러나 막상 건설공사를 시작하자 공기지연은 피할 수 없었다. 1970년 10월 가장 먼저 열연공장을 착공했으나 콘크리트 타설에 난항을 겪었다. 박태준 사장은 1971년 8월 20일 ‘열연비상’을 선포한 데 이어, 9월 5일 ‘무조건 하루에 700m³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라’는 돌관공사를 지시했다. 이러한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포항제철은 10월 31일 열연비상을 성공리에 마무리하면서 오히려 예정공기를 1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이후 우향우 정신과 돌관경영체제는 포항제철의 전통으로 굳어졌다.



01



02



03



04

9월 5일 무조건
하루 700m³의 콘크리트
타설을 약속하는 것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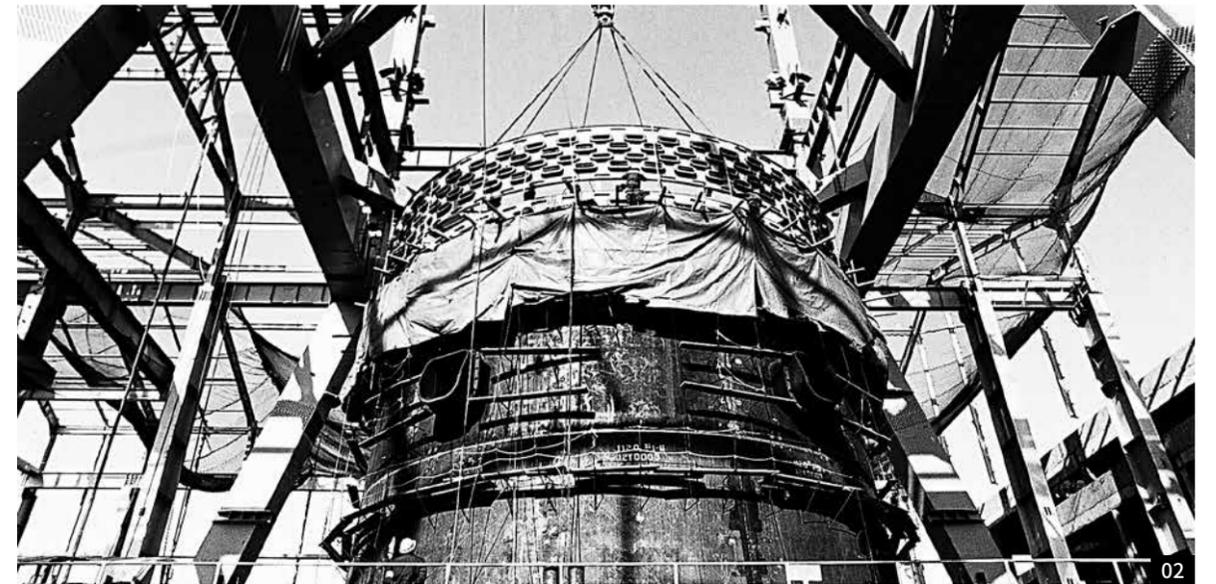
- 01 1971년 열연비상 선포로 총력 비상이 걸린 열연공장 건설현장에서 건설요원들은 분주하게 콘크리트를 타설했다.
- 02 열연비상을 선포한 박태준 사장은 직접 현장을 다니며 레미콘을 점검하는 등 특유의 돌관공사를 독려했다.
- 03 포항제철은 열연비상 선포 후 야간공사를 위해 조명탑을 설치했다. 이 당시 공사현장은 밤과 낮이 따로 없었다.
- 04 1971년 5월 12일 한창 기초공사를 진행 중인 열연공장. 열연공장 공기 지연 문제가 표면으로 떠오르기 두 달 전의 모습이다.
- 05 무조건 하루에 700m³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라는 박태준 사장의 친필 지시문. 700m³는 소형 레미콘 차량 200대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량이다.

| 04 | 종합제철 건설 현장

포항제철은 포항 1기를 건설하며 선공정인 제선·제강공장부터 건설하는 포워드 방식을 따르지 않고 후공정인 열연·후판공장부터 건설하는 백워드 방식을 채택했다. 한정된 예산을 감안해 우선 최종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부터 완공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회사 경영에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1971~1972년에 토목 259건, 건축 149건, 배관 72건, 기계 71건, 전기 156건, 계장 14건, 축로 11건, 기타 195건 등 총 927건에 달하는 공사를 발주했으며,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건설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공정마다 일정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허허벌판의 영일만은 점차 대규모 종합제철단지로 변모해갔다. 한편 포항제철은 1972년 12월 31일 포항 1기 건설 총력지원체계를 갖추고 현장제일주의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 본사를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전했다.



01



02



03



04



05



06

- 01 1973년 6월 완공된 포항 1고로 전경. 포항 1고로는 우리나라 산업사에 한 획을 그은 유산이다.
- 02 포항 1고로 본체 건설공사.
- 03 1제강공장 건설공사.
- 04 열연공장 건설 전경(국가기록원).
- 05 중후판공장 하우징 설치.
- 06 1973년 1월 4일, 포항으로 이전한 본사 현판식이 거행됐다.

| 05 | 피와 땀의 결정-첫 제품 출하

포항제철은 1972년 7월 4일 포항 1기 설비 가운데 생산공장으로는 최초로 중후판공장을 1개월 앞당겨 준공했다. 이어 같은 달 31일에는 박태준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환송 속에 호남정유 여수공장 유류 저장탱크 제작용으로 중후판 제품을 처음 출하했다. 나아가 그해 10월 3일에는 포항 1기 핵심설비의 하나인 열연공장을 예정공기보다 한 달여 단축해 준공하고 조업을 개시했다. 이를 기념해 박태준 사장은 처음 생산된 열연코일에 ‘피와 땀의 結晶(결정)’이라는 휘호를 남겼다. 경제발전과 산업화를 우리 손으로 일구겠다는 제철보국의 사명의식으로 혼신의 힘을 다한 임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치하였다.



01



02



03

- 01 1972년 10월 3일 박태준 사장이 처음 생산된 열연제품에 ‘피와 땀의 결정’이라는 휘호를 남겼다.
- 02 포항제철은 1972년 7월 31일 중후판 제품을 처음 출하했다. 첫 출하 물량은 호남정유(현 GS칼텍스) 여수공장 유류저장탱크 제작용으로 62톤이었다.
- 03 1972년 10월 3일 포항제철은 열연공장을 준공하고 시험조업에 들어갔다. 열연공장은 공작정비공장과 중후판공장에 이어 세 번째로 준공됐다.

| 06 | 만세! 첫 출선의 감격

1973년 6월 9일 오전 7시 30분, 포항 1고로 출선구에서 황금빛 첫 쇳물이 쏟아졌다. 처음 건설해본 대형 고로에서 쇳물이 나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임직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감격에 겨워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다. 화입한 것이 6월 8일 오전 10시 30분이었으니 그때부터 21시간 동안 기원하며 기다린 끝에 거둔 쾌거였다. 고로는 종합제철을 상징하는 설비이며, 고로가 생산하는 쇳물은 조업에서 큰 의미를 지니기에 포항 1고로의 화입과 첫 출선은 포스코 50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남았다.

- 01 1973년 6월 8일 오전 10시 30분 박태준 사장이 포항 1고로에 화입하고 21시간이 지난 6월 9일 오전 7시 30분 감격의 첫 출선이 이뤄졌다.
- 02 1973년 6월 7일 본관 앞 광장에서 태양열로 원화를 재화하고 있다. 원화는 6월 8일 7명의 주자가 포항 1고로까지 봉송했다.
- 03 첫 쇳물이 쏟아져 나오자 초조하게 기다리던 박태준 사장과 임직원들은 감격에 겨워 만세를 외쳤다.



07 | 우리나라 최초 종합제철 탄생(포항 1기 준공)

첫 출선 이후 포항제철은 1973년 6월 15일 제강공장에서 전로 취련을 한 데 이어, 같은 달 19일 분괴공장과 강편공장을 준공함으로써 10개 공장 12개 설비 모두에서 시험조업을 시작했다. 이로써 착공 39개월 만에 포항 1기 103만 톤 설비 건설을 모두 완료한 포항제철은 1973년 7월 3일 박정희 대통령, 박태준 사장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1기 종합 준공식을 개최했다. 포항 1기 건설은 제선, 제강, 압연, 지원설비 등 총 22개의 공장과 설비를 일관화한 사업으로서 건설인원은 연인원 315만 4884명이었고, 건설비는 경부고속도로 건설비의 세 배에 해당하는 1204억 원이었다. 국내 최초 종합제철인 포항 1기 준공에 국민의 성원이 이어졌다. 신문과 방송 등 매스컴은 일제히 준공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며, 서울시는 광화문 네거리에 '경축 포항종합제철 준공'이라고 쓴 기념아치를 세워 축하하기도 했다. 이러한 국가적 환영은 포항 1기 준공과 함께 우리나라가 바야흐로 중화학공업시대로 진입했음을 선언한 것이었다.



01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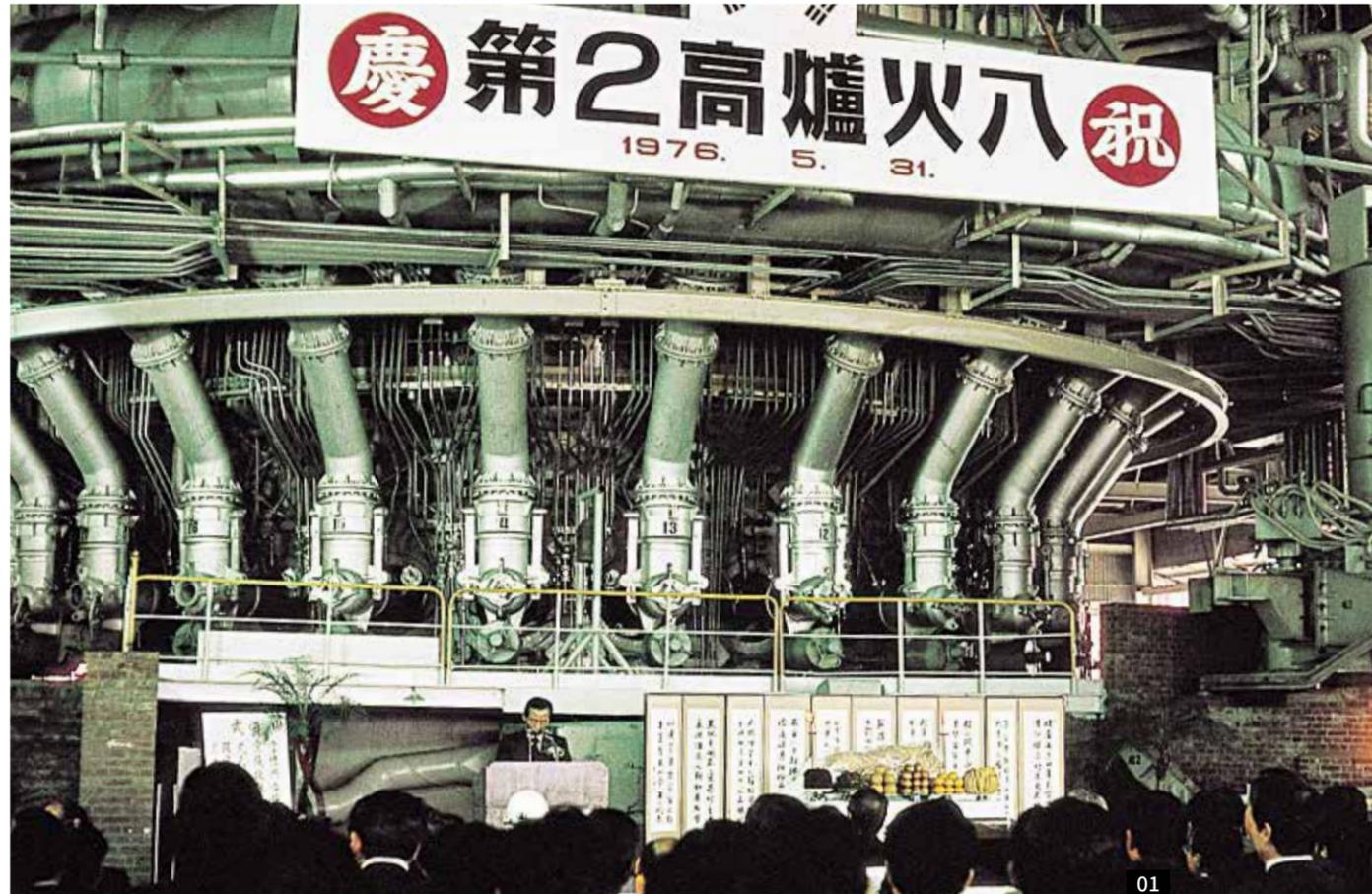
04

- 01 포항제철은 1973년 7월 3일 오후 2시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1기 종합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3년 전 기공식 버튼을 눌렀는데 이렇게 초현대적인 제철소를 마주보고 있으니 감개무량하다'며 포항 1기의 성공적 건설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 02 서울 광화문에 세운 포항종합제철 준공 기념 아치. 포항 1기 종합 준공은 신문과 방송 등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할 만큼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인 국가적 중대사였다.
- 03 포항 1기 종합 준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과 박태준 사장이 제강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포항제철은 종합 준공을 앞둔 6월 20일 1기 설비 마지막 회의가 끝난 후 전 직원 1호봉 특별승급을 실시했다.

04 포항 1기 종합 준공 기념패.

| 08 | 일면건설, 일면조업의 결실(포항 2기 준공)

대다수의 기업이 내수성장을 기반으로 수출을 시작하는 것과는 달리 포항제철은 내수판매와 수출을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했다. 1972년 7월 31일 중후판을 국내시장에 처음 출하한 3개월 만에 중후판 7066톤을 미국과 타이완에 수출했다. 이듬해에는 탄탄한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 대상국을 21개국으로 늘렸으며, 수출을 개시한 지 2년 만에 1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국내에는 외국 오퍼가격보다 21~42%까지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후 포스코는 1976년 5월 31일 포항 2기를 종합 준공하고 조강 연산 260만 톤 체제를 구축했다. 이로써 포항제철은 국내 철강수요의 55%를 담당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고, 수출에 더해 2억 2600만 달러에 이르는 수입 대체 효과도 함께 달성했다.



01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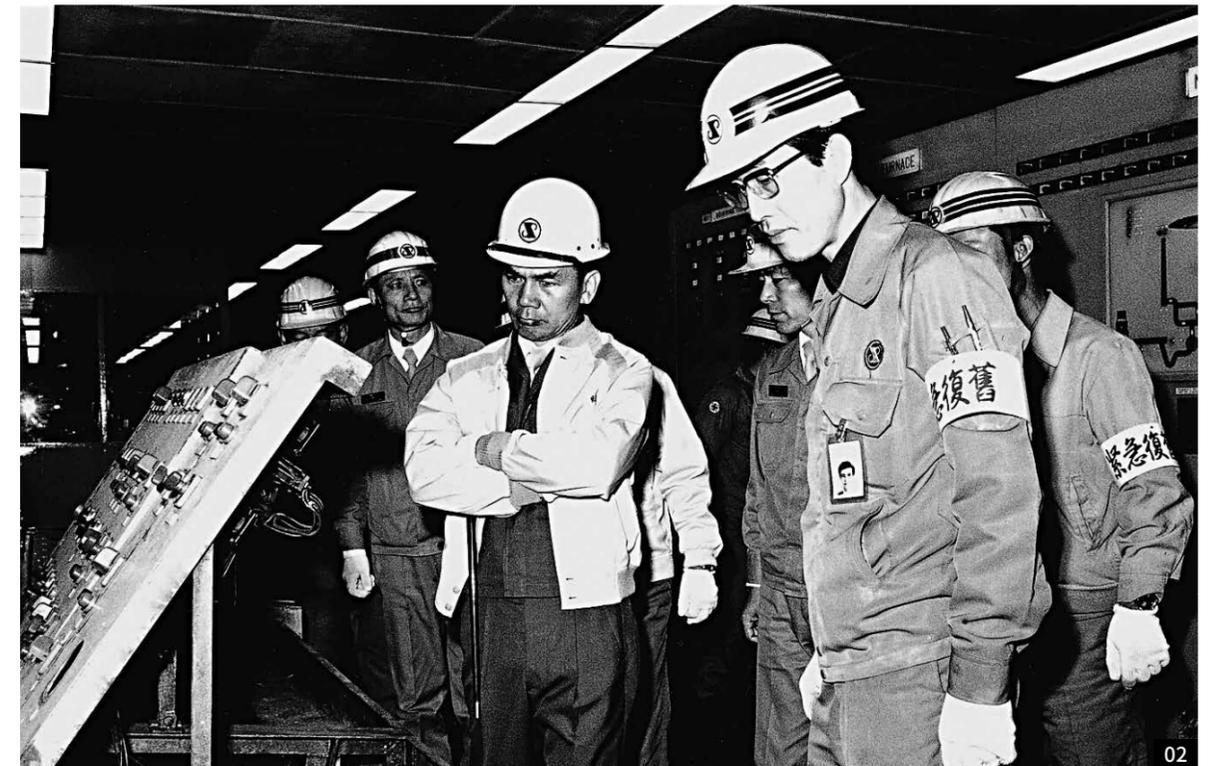
04

- 01 포항제철은 1976년 5월 31일 연산 157만 톤의 포항 2고로에 화입하고 포항 2기 건설공사를 마무리했다. 포항 2기 설비는 포항 1기보다 고로가 1.5배 커지고, 연속 주조설비와 냉간압연 설비로 구성됐다. 그리고 일부 기자재는 성공적으로 국산화됐다.
- 02 포항 2기 설비를 착공한 것은 포항 1기 설비를 준공한 지 5개월 만인 1973년 12월 1일이었다. 당초 1974년 말 착공해 1978년 초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조기 건설의 필요성 때문에 기본공정계획을 수정해 앞당겨 착공했다. 사진은 2고로 노심에서 첫 삼을 뜨는 임직원 및 내빈들.
- 03 매일경제신문은 1974년 7월 2일자 신문을 통해 포항제철 종합 준공 1주년의 성과와 전망을 정리하면서 흑자 242억 원을 달성했음을 강조했다.
- 04 포항제철은 1974년 12월 31일 수출 1억 달러, 제품출하 100만 톤을 달성했다. 1억 달러 수출은 1972년 수출을 시작한 지 불과 2년 만에 달성한 쾌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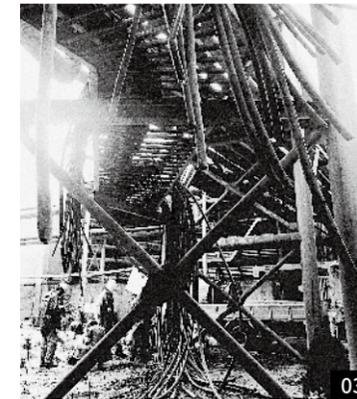
1977년 4월 24일 1제강공장에서 44톤에 달하는 쇳물이 전로 밖으로 쏟아져 화재가 발생했다. 포항제철 최초이자 최대의 사고였으며, 즉각 사고경위를 정부에 보고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사고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일본 전문가들은 완전 복구에 3~4개월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그럴 경우 생산차질은 물론 산업 전반에 미칠 피해 또한 자명했다. 이때 포항제철 특유의 돌관정신이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했다. 공장의 완전 가동일을 7월 1일로 내정한 후 복구작업에 돌입했는데, 5월 21일 3호 전로를 복구한 데 이어 5월 28일 밤 10시에 2호 전로까지 복구를 완료하면서 불과 34일 만에 정상조업 단계에 들어섰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직원은 물론 가족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복구에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 이 사고를 계기로 매일 1일 운영되던 안전의 날을 매년 4월 24일로 변경하고 제강사고의 교훈을 되새기며 안전의 생활화를 정착시켜 나갔다.



01



02



0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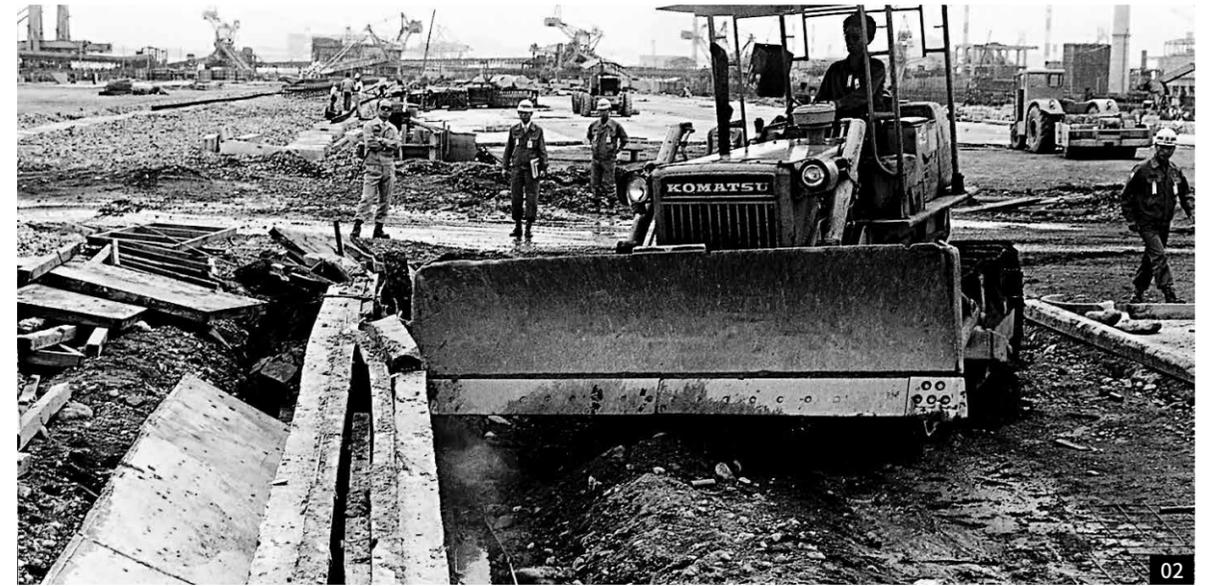
- 01 1977년 4월 24일 포항제철 설립 이후 최대의 대형사고인 제강사고가 발생했다. 우선 설비공급사인 일본 이토추상사 등에 복구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지원을 요청했다. 사고 다음날에는 제강공장복구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 02 박태준 사장이 사고현장을 둘러보며 고심하고 있다. 일본에서 온 기술진들은 피해규모 등을 정밀 조사한 후 완전 복구하는 데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 03 엇가락처럼 휘어진 케이블이 당시의 참상을 말해주는 사고현장. 밤낮 없이 복구공사를 이어갔고, 일본 기술진의 예상과 달리 복구를 시작한 지 34일 만에 정상조업에 돌입했다.
- 04 제강사고로 포항 1:2고로에서 생산한 쇳물의 처리가 문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고랑을 주선기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고안해냈다.

| 10 | 또 하나의 전통, 완벽한 공사 추구

2제강공장 착공을 필두로 1976년 8월 2일 종합 착공한 포항 3기 설비공사는 3고로와 선재공장, 전기강판공장 등 2개의 신규 설비를 포함한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공사였다. 국내 건설업체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공사물량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불어닥친 중동 건설 붐과 아파트 건설 붐에 따른 건설 경기의 호황으로 기능인력마저 확보하기 어려워 공기지연이 속출했다. 그러나 부실시공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단호했다. 1977년 8월 1일 발전송풍설비 공사 현장에서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불량을 발견한 박태준 사장이 공사가 이미 80% 진행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조물을 폭파하도록 지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8월 2일 폭파현장을 지켜본 모든 건설 관계자들은 최고경영자의 단호한 의지에 경각심을 일깨웠으며, 완벽 시공정신은 이후 광양제철소 건설로 이어졌다.



01



02



03

- 01 포항제철은 1977년 8월 2일 발전송풍설비 콘크리트 구조물을 폭파했다. 폭발음과 동시에 80% 완료된 발전송풍설비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이 산산이 부서졌다. 모든 건설업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다.
- 02 불도저로 발전송풍설비 부실현장을 밀어 버리는 모습. 부실이나 불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 03 발전송풍설비 콘크리트 구조물 폭파에 이어 8월 23일에는 불량 철물제품 절단작업도 진행했다.

11 | 건국 이후 최대의 공사(포항 3기 준공)

포항 3기 설비 공사는 건국 이후 최대 공사였던 만큼 공기준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1978년 6월 12일 '건설비상'을 선포하고 전사 총력건설체제에 돌입했으며, 9월에는 추석휴가 반납 캠페인까지 펼쳤다. 급기야 1978년 9월 24일을 기점으로 박태준 사장 주재 하에 건설비상회의를 매일 아침저녁으로 개최하기 시작해 준공 직전인 11월 28일까지 66일 동안 강행했다. 포항제철은 건설비상과 전사 총력건설 체제에 힘입어 포항 3기 설비공사를 1978년 12월 8일 종합 준공했다. 착공 28개월 만으로 예정보다 무려 5개월이나 앞당겨 조강 연산 550만 톤 체제를 구축했다. 포항제철은 포항 3기 설비 준공과 함께 당시 전 세계 308개 제철소 가운데 단위 제철소로는 29위로 도약했으며, 우리나라는 550만 톤급 제철소를 보유한 11번째 국가로 부상했다.



01



02



03



04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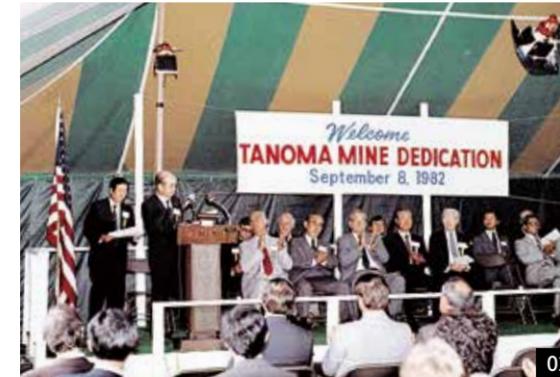
06

- 01 박태준 사장은 공기준수를 위한 비상선포 후 2개월이 지난 1978년 8월 13일 '돌격' 휘호로 직원들의 의식을 재무장시켰다.
- 02 1978년 4월 1일 박정희 대통령은 포항제철의 창립 10주년을 맞아 '철강은 국력'이라는 친필 휘호로 격려했다.
- 03 3고로에 사용된 연와. 박태준 사장이 쓴 '집념'이란 휘호가 포항제철인의 의지를 대변했다.
- 04 1978년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항 3기 설비공사 막바지에는 건설현장의 폐자재와 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하는 동시에 각종 자재를 정리·정돈하는 별동대를 운영하기도 했다.

- 05 1978년 추석은 9월 17일이었다. 이때는 3기 공사의 준공 예정일을 불과 2개월 남겨둔 공사 절정기였다. 당시 건설현장에는 하루 2만여 명의 인원이 투입되고 있었는데 추석 휴가를 실시할 경우 예정대로 3기 공사를 준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포항제철은 추석휴가 반납 캠페인을 전개하고, 추석 당일에는 건설 현장에서 합동성묘제를 지냈다.
- 06 1978년 12월 9일 오후 포항 3고로가 첫 쇳물을 쏟아냈다. 포항제철은 포항 3기 준공으로 당시 전 세계 308개 단위 제철소 가운데 29위로 올라섰다.

12 | 안정적 원료 확보 노력

1973년, 1978년 두 차례에 걸쳐 석유파동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석탄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부족 현상이 이어져 자원 민족주의가 대두됐다. 조업에 필요한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포항제철 역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존의 단순 수입위주 원료확보 정책을 해외자원 개발 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료확보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원료구매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에 1978년 미국 타노마 광산을 시작으로 1981년 호주 마운트솔리 광산, 1982년 캐나다 그린힐스 광산 개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원료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다.



- 01 포항제철은 호주 마운트솔리 광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81년 1월 13일 현지에 POSA(Pohang Steel Australia Pty.)를 설립하고, 1982년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 02 포항제철은 미국 B&T가 조광권을 보유한 펜실베이니아주 인디애나 카운티에 있는 타노마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 1978년 11월 17일 현지에 TCC(Tanoma Coal Co.)를 설립하고, 1982년 9월 생산에 들어갔다. 타노마 광산은 원거리 지역을 배제하고 고가의 미국탄 사용을 줄여나가는 방침에 따라 1988년 6월 7일 미국의 AMCI에 매각했다.

- 03 1982년 7월 9일 호주 마운트솔리 광산 원료탄이 최초로 입하됐다.
- 04 채탄 작업이 한창인 그린힐스 광산. 포항제철은 그린힐스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 1982년 3월 현지에 POSCAN(Pohang Steel Canada)을 설립하고, 1983년 7월부터 채탄작업과 개발공사를 병행했다.

13 | 기업체질 강화와 자주관리활동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세계 철강경기 또한 불황국면에 접어들었다. 포항제철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1979년 5월 전사 차원의 기업체질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1980년부터 본격적인 기업체질 강화 활동을 통해 전 부문에 걸쳐 질적 향상을 기했다. 1979년부터 강조된 자주관리활동이 본격적으로 정착된 것은 1980년대였다. 자주관리활동 체제를 정비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어 진행했던 1970년대의 'ZD(Zero Defect)운동'을 모태로 삼았다. 자주관리활동은 이 시기 <자주관리> 창간, 자주관리의 날 제정, 심벌마크 제정 등으로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정착단계에 이르렀다. 자주관리활동을 통해 개인 또는 소집단은 계획적인 개선 목표를 세워 자주적으로 달성함으로써 기업체질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01



02



03



04

- 01 포항제철은 1980년 8월 28일 제1회 기업체질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1단계 기업체질 강화사업은 1979년부터 1984년까지 추진됐다.
- 02 포항제철은 1980년 4월 1일 <자주관리>를 창간했다. 창간호는 타블로이드판 4면에, 세로쓰기로 제작됐다.
- 03 1981년 11월 4일 고준식 사장이 자주관리촉진대회장을 둘러보고 있다.
- 04 자주관리 분임조활동은 자주관리활동 초기인 1974년 시작됐다. 사진은 1981년 11월 6일 개최한 1981년도 추계 전사 자주관리분임조 경진대회.

| 14 | 영일만 대역사의 완성(포항 4기 준공)

포항제철은 포항 3기 설비공사가 한창이던 1977년 4월 자력으로 조강 연산 300만 톤 규모의 포항 4기 설비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1978년 3월에는 국내 최초로 정부 무보증 차관 조달에 성공했다. 그리고 1978년 4월 28일 단일공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며 4기 설비 총건설물량의 30%를 차지하는 2열연 공장 착공을 시작으로 1979년 2월 1일 포항 4기 종합 착공식을 가졌다. 포항 3기 공사 등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살려 공정, 품질, 안전 면에서 모든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책을 치밀하게 마련한 결과 포항 4기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 결과 예정보다 4개월이나 앞당겨 1981년 2월 18일 화입과 함께 종합 준공해 조강 연산 850만 톤 체제를 완성했다. 당시 외신의 평가대로 포항제철은 한국의 점증하는 '경제적 자신감의 상징'이자 '한국 철강산업의 미래'로서 명실상부한 한국 경제 고도성장의 증표가 됐다.



01



02



03



04

- 01 1981년 2월 18일 포항 4고로에 화입함으로써 포항제철은 1기를 착공한 지 10년 10개월 만에 4단계에 걸친 건설공사를 마무리짓고, 850만 톤 체제의 대단위 일관제철소를 완성했다. 당시 규모로는 세계 11위였다.
- 02 1981년 2월 18일 전두환 대통령이 포항 4기 종합 준공식에 참석해 4고로에 화입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처럼 짧은 공사기간과 저렴한 건설단가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신기록이라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 03 포항 분사 앞에 세워진 조강 연산 850만 톤 준공 기념탑. 한국 철강산업의 미래를 대변하는 웅장한 모습이다.
- 04 조강 연산 850만 톤 체제를 구축한 포항제철소 전경. 4개의 고로가 당당한 위용을 뽐내고 있다.

| 15 | 910만 톤 체제 완성과 스테인리스 일관생산체제 구축

포항제철은 포항 4기 준공 이후 광양제철소 건설까지의 공백기 동안 예상되는 철강재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1978년부터 포항 4기 2차 사업을 추진했다. 4기 2차 사업에는 2고로 개수를 통해 조강 연산 910만 톤 체제를 구축하고 2선재공장 등 설비의 추가 신설을 포함했다. 특히 설비국산화에 더욱 매진해 포항 1기 12.5%였던 설비국산화율을 포항 4기 2차에는 41.5%로 높였다. 1981년 9월 1일 5코크스공장 건설을 시작으로 종합 착공한 포항 4기 2차 사업은 1983년 5월 25일 개수를 완료한 2고로에 재화입하며 종합 준공했다. 이로써 조강 연산 910만 톤 체제를 완성한 포항제철은 다시 한번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 국산화를 통해 급증하는 스테인리스강 수요에 대응하기로 하고, 1989년 3월 31일 스테인리스 제강 및 소둔산세설비와 열연공장을 준공하며 스테인리스강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국내 업체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무역수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했다.



- 01 포항 4기 2차 준공으로 조강 연산 910만 톤 체제를 구축한 포항제철소 야경. 13년에 걸친 영일만 대역사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 02 1981년 9월 1일 고준식 사장이 종합 착공 버튼을 누르며 시작한 포항 4기 2차 설비공사는 1983년 5월 25일 마무리됐다.
- 03 포항제철은 1989년 3월 31일 연산 32만 톤 규모의 스테인리스 일관생산설비를 준공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수요가 급증하는 스테인리스 소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 01 논란을 거듭한 제2제철 실수요자 및 입지 선정
- 02 바다를 육지로-호안축조공사
- 03 연약지반 개량공사, 기반시설공사
- 04 광양 1기 건설공사
- 05 최첨단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 06 생산관리 시스템의 최적화
- 07 품질 제일주의를 향한 발걸음
- 08 포항공대 설립 및 포항방사광가속기 건설
- 09 1사 2소 체제 구축(광양 1기 준공)
- 10 국민주 기업 제1호
- 11 세계 3위 철강기업으로 도약(광양 2기 준공)
- 12 철강 자급도 90% 달성(광양 3기 준공)
- 13 4반세기에 걸친 건설 대역사 완성(광양 4기 준공)

포항제철이 숨가쁘게 설비확장을 거듭하는 동안 우리 경제 역시 빠르게 성장하면서 철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포항제철소 외에 또 다른 종합제철이 필요하다는 공론이 무르익을 수밖에 없었다. 제2제철 건설 필요성은 경제발전 추이와 철강수요 예측에 따라 포항 1기가 건설 중이던 1972년 처음 제기됐으며, 1973년 7월 포항 1기 준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제철소 건설과는 별도로 제2제철 건설을 구상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정부는 1975년 제2제철 건설계획을 무기한 연기하는 대신 포항제철소 확장에 집중하기로 했다.

제2제철 건설이 다시 국가정책의 이슈로 떠오른 때는 1977년이였다. 국내외 여건이 호전되면서 잠정적으로 중단됐던 제2제철 건설 논의가 재부상한 것이었다. 건설부가 입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건설계획 수립을 추진했다. 그러자 민간기업들도 실수요자 선정 경쟁에 뛰어들었다. 포항제철은 제2제철 건설사업에 뛰어든 현대그룹과 실수요자 논쟁을 벌였다.

포항제철은 제철사업을 민간에 맡기면 부의 편재가 극심해져 그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경제로 이어지고, 제1공장과 제2공장의 상호보완이라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게 되며, 반드시 ‘사람 빼가기’의 폐단이 일어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다수 언론도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제철사업 중요성과 포항제철의 우수한 경영실적, 축적된 기술과 경험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세계 철강업계의 통합 추세 등을 들어 포항제철을 실수요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을 형성했다. 결국 1978년 10월 포항제철이 제2제철 실수요자로 선정됐다.

포항제철은 제2공장 입지선정을 둘러싼 무성한 논란 속에서 입지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1979년 7월과 198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아산만을 제2공장 입지로 확정했다. 그러나 포항제철은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1980년 11월부터 독자적으로 광양만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미국, 일본 업체와 협조해 지질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포항제철은 경제적인 측면과 지역 간 균형발전 측면도 고려해 제2공장 입지로 광양만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결국 정부는 1981년 11월 제2공장 입지를 광양만으로 최종 확정했다.

포항제철이 제2제철 실수요자로 선정되고, 광양으로 입지가 정해졌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제2공장을 포항제철소와 상호보완적 관계로 건설하고,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

다는 과제가 남았기 때문이었다.

광양만이 제2공장 입지로 확정된 후 포항제철은 1982년 4월 부지조성과 제철소 항만 기본 설계를 확정했다. 이어 1984년 공장 배치 레이아웃을 최종 확정해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특히 바다 위에 건설하는 공장인 만큼 공장 배치와 단계별 확장을 최우선으로 감안했다. 준설패립공사와 연약지반 개량공사는 광양제철소를 ‘바다 위의 제철소’라고 불리게 했다. 포항제철은 광양 12기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시행하며 기술자립도를 향상시켜 광양 3·4기 지반개량공사는 자체 기술로 시행했다.

1985년 3월 착공한 광양 1기 공사는 예정공기를 6개월 앞당겨 1987년 5월 종합 준공했다. 포항제철은 광양제철소를 건설함으로써 1사 2소 체제에 의한 1180만 톤 조강 생산 능력을 보유 해 조강능력에서 세계 5위의 철강기업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철강대 국으로 발돋움했다. 광양 1기 설비는 49.4%의 국산화를 이룸으로써 국내 기계공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자체 엔지니어링을 통해 설비계획을 수립한 광양 2기 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5개월이나 앞 당긴 1986년 9월 착공했다.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로 많은 어려움이 따랐으나 1988년 7 월 광양 2기를 성공적으로 준공했다. 이로써 포항제철은 조강 연산 1450만 톤 체제를 갖추며 세 계 3위의 대형 철강기업으로 도약했다.

1988년 11월 착공한 광양 3기 공사는 국내 제작업체의 심각한 노사분규에도 불구하고 당 초 계획보다 58일 앞당겨 1990년 12월 준공했다. 또 1989년 1월 광양 1냉연공장, 1991년 1월 광 양 2냉연공장을 준공하며 국내 자동차산업과 전자산업의 급성장을 뒷받침했다.

광양 4기 공사는 1991년 1월 착공해 공기를 28일 단축하며 1992년 10월 종합 준공했다. 광양 4기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공기단축과 투자비 절감을 이뤘으며, 특히 1기 에서 4기까지 동일 설비와 기술을 채택함으로써 조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었다. 꾸준히 추 진한 설비국산화 정책에 힘입어 광양 4기 설비국산화 비율은 63.1%에 달했다. 1992년 9월에는 광양 3냉연공장을 준공해 명실공히 박판과 표면처리강판 주력 제철소의 면모를 갖췄다. 1992년 10월 2일 광양 4기 설비 종합 준공으로 포항제철은 1968년 창립 이후 4반세기에 걸친 제철소 건 설 대역사를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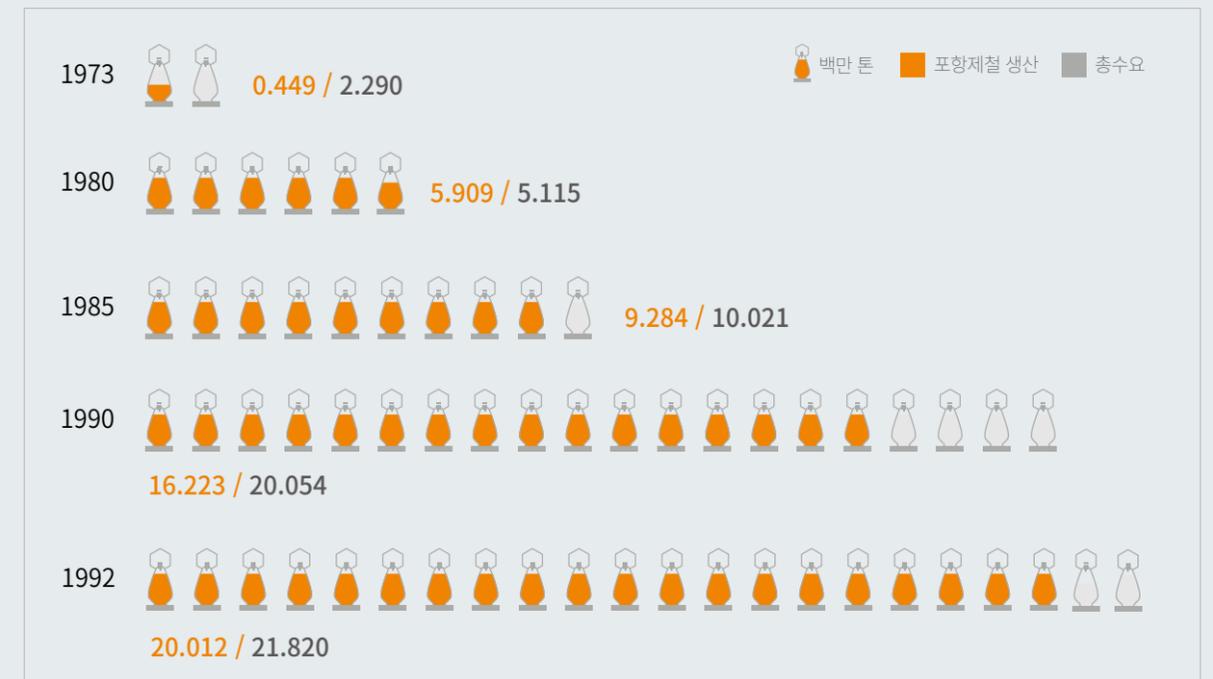
포항제철은 광양제철소를 건설하는 기간 동안 민영화를 모색했다. 포항제철은 공기업이면 서도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출범했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독자적 생존을 위해서는 자율적 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1981년 2월 ‘정부출자기업’으로 전환 돼 박태준 사장이 회장으로 선임됐다. 1988년 6월, 포항제철은 총발행주식 중 35%만 정부와 산

업은행이 보유하고, 나머지 주식을 국민에 매각하면서 국민주 상장 제1호 기업이 됐다. 종합제철 이라는 국민 염원으로 출발한 포항제철이 소유권을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민기 업으로 거듭난 것이었다.

포항제철은 독자적 기술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건설 초기부터 축적해온 각종 자료기 술·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주권을 키워 나가며 신기술 개발에도 한층 노력을 기울였다. 국가 과 학기술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1986년 포항공과대학(POSTECH)을 설립한 데 이어 1987년에는 산업과학기술연구소(RIST)를 설립하고 곧바로 ‘산학연’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했다.

포항제철은 광양제철소 건설을 계기로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 공략을 강화해 나갔다. 1984년 미국에 POSAM을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1985년 홍콩에 PUYA, 1988년 일본에 PIO를 설 립하며 해외 판매거점 확보에 큰 걸음을 내디뎠다. 1991년 8월에는 비전 ‘POSCO 2000’을 통해 2001년까지 정보통신, 건설, 신소재 등 미래성장사업 진출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천명했다.

우리나라 철강 수요와 포항제철의 기여(포항 1기~광양 4기)



01 | 논란을 거듭한 제2제철 실수요자 및 입지 선정

정부는 포항 1기 공사가 한창이던 1973년 초 제2제철 건설 필요성을 천명한 바 있었다. 이후 1977년 제2제철을 다시 추진했지만 이번에는 포항제철과 현대, 두 회사 중 어느 쪽을 실수요자로 선정할 것인지를 놓고 이른바 ‘공·민영화 논쟁’이 불붙었다. 결국 기간산업인 제철업의 중요성과 포스코의 경영실적, 축적된 기술과 경험 그리고 세계 철강업의 대형화 추세 등을 피력한 포항제철의 주장이 여론의 지지를 얻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1978년 10월 27일 포항제철을 제2제철 실수요자로 확정했다. 제2제철 입지 문제 또한 실수요자 선정과 함께 여러 해 동안 논란이 이어졌다. 1973년부터 아산만, 가로림만이 유력한 후보지로 대두된 가운데 1978년 제2제철 실수요자로 선정된 포항제철이 주도적으로 입지선정에 나섰다.

이후 정부는 1979년과 1980년 두 차례에 걸쳐 아산을 제2공장 입지로 확정했지만 대규모 갑문 건설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조달이 문제였다. 이러한 와중에 광양만을 주목하고 지질조사를 실시하던 포항제철은 다시 한번 실수요자 의견을 감안한 입지 재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미 포항제철소를 성공적으로 건설한 포항제철을 존중해 1981년 11월 4일 제2공장 입지를 광양만으로 최종 확정했다.



01



02



03



04

- 01 1981년 11월 광양만 제2공장 부지 전경. 광양만은 육지 지세가 험하고 경사도 급하지만 해면에는 광활한 간석지를 지니고 있고 면적도 충분히 제철소 부지로서 합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 02 정부가 아산만을 제2공장 입지로 확정하자 포항제철은 1979년 8월 평택군 포승면에 제2공장 건설을 위한 건설사무소를 설치하고 1979년 11월 현판식을 치렀다. 하지만 포항제철은 아산만 지역이 제철소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1980년 1월 제2공장 추진팀을 철수시켰다.
- 03 1981년 11월 12일 제철소 부지를 시찰하는 고준식 사장 일행.
- 04 1973년 3월부터 시작된 제2제철 입지가 8년 8개월 만에 광양으로 매듭지어졌다. 입지 확정 발표가 나와 전라남도는 도청 앞에 축하 아치를 세웠고, 광양읍은 1981년 11월 12일 제2공장 입지결정 환영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광양읍내에서 진행된 환영대회.

02 | 바다를 육지로-호안축조공사

1981년 11월 4일 정부가 제2공장 입지를 광양만으로 최종 결정하자, 포항제철은 12월 1일 선발대 48명을 현지에 파견한 데 이어 1982년 1월 4일에는 현지 건설사무소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먼저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와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부지매수, 주민이주, 어업권 보상 등을 추진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 외로 강경해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제철소 건설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감 아래 주민들의 요구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합리적 보상에 합의했고 주민들은 이주를 완료했다.

포항제철은 1982년 9월 28일부터 1984년 9월 30일까지 총연장 13.6km의 거대한 제방을 쌓는 호안축조공사를 진행했다. 필요한 석재 193만m³는 당시 부지 내에 있던 소당도, 금당도, 비운도 등 13개의 섬을 발파해 충당했다. 또 완벽한 시공을 위해 호안의 수중상태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중감사를 실시했고, 호안축조로 생길 수 있는 인근해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중 커튼을 설치했다.



01



02



03



04



05

- 01 호안축조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공사현장. 호안축조공사에 필요한 193만m³의 석재는 부지 내의 소당도, 금당도, 비운도, 내도 등 13개 섬을 발파해 충당했다.
- 02 포항제철은 1982년 9월 28일 총연장 13.6km에 달하는 제방을 축조하는 광양제철소 호안축조공사를 착공했다. 호안축조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9개월을 앞당긴 1984년 9월 30일 완공해 광양 1기 설비의 조기 착공에 크게 기여했다.
- 03 포항제철은 최대 난공사였던 최종 물막이공사를 1983년 11월 12일 완료하고 14일 최종 호안 연결식을 가졌다.
- 04 공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최종 호안 연결을 맞아 꽃을 바다에 던지며 기념했다.
- 05 1983년 7월 수중감사로 호안공사의 부실지점을 일일이 찾아내 돌 위에 표시해두고 재시공으로 바로잡게 했다.

03 | 연약지반 개량공사, 기반시설공사

포항제철은 호안축조공사 착공 5개월 후인 1983년 2월 28일 준설매립공사를 시작해 차례로 광양 1·2기 설비 및 지원시설 부지, 주택단지 부지 매립, 광양 3·4기 설비 건설 예정지역 매립, 업무단지 조성지역 매립을 완료했다. 그러나 바다 위에 제철소를 건립하는 만큼 연약지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했다. 국내 최초로 연약지반 개량공법을 도입해 광양 1기 부지는 1984년 1월부터 1986년 10월까지, 광양 2기 부지는 1985년 5월부터 1988년 3월까지 공사를 시행했다. 높이가 약 40m에 이르는 육중한 모래기둥 타설기를 이용해 98만 본에 달하는 파일을 박는 과정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성공적인 광양제철소 건설의 초석을 마련했다.

정부에서도 항만시설, 공업용수, 철도, 도로 등 광양제철소 건설과 조업에 필요한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했다. 1983년 6월 제1산업도로를 개통했으며, 1984년 12월 공업용수를 통수했다. 이어 1985년 8월 제철소 건설 자재 반입을 위한 부두를 준공하고, 인입철도는 1987년 9월 개통했다.



01



02



03



04

- 01 광양만의 연약지반은 부지 전체에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었다. 모래말뚝이나 모래다짐말뚝을 지반에 박고 토사로 하중을 가해 흙 속에 포함된 물을 강제로 뽑아내는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연약지반 개량을 위한 파일 향타 장면.
- 02 광양제철소 준설매립공사는 호안공사 착공 5개월 후인 1983년 2월 28일 시작해 호안축조공사와 병행 추진했다. 공사 절정기인 1983년 9월 무렵에는 우리나라 보유 준설선단의 70%가 광양 현장에 투입되기도 했다.
- 03 1983년 2월 상판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금호대교.
- 04 정부는 1983년 항만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면서 항만공사에 들어가 1987년 3월 항로준설공사를 완료했다. 사진은 1987년 4월 철광석 운반선인 현대 자이언트호가 광양항에 처음 입항한 모습.

| 04 | 광양 1기 건설공사

포항제철은 1981년 11월 제2공장 입지가 광양으로 확정된 후 12월 1일 현지에 건설사무소를 개소하고, 국내 열연코일 수요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1984년 10월 15일 열연공장을 먼저 착공한 데 이어 1985년 3월 5일 광양 1기 설비공사를 종합 착공했다. 광양제철소 건설에는 과학적인 공정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 MMSI의 MAPPS(Management And Project Planning System)를 도입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전체 공사에 적용했다. 그러나 연약지반 위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만큼 난항은 피할 수 없었다. 열연공장 건설현장에서는 시트파일(Sheet Pile) 공법 채택으로 발생한 문제를 케이슨 공법으로 변경해 해결했고, 각 현장에서는 24시간 돌관작업으로 공사에 임했다. 그 결과 1987년 1월 6일 광양 1고로 화입 109일을 앞두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갈 수 있었다.



- 01 포항제철은 1985년 3월 5일 270만 톤 체제의 광양 1기 설비공사를 종합 착공했다.
- 02 1985년 11월 21일 광양제철소 열연공장 밀 설비 입하 장면.
- 03 1986년 8월 8일 광양제철소 제강공장에서 열린 250톤 전로 설치 기념식.
- 04 1983년 12월 19일 광양제철소 열연공장 설비공급사로 선정된 미쓰비시상사는 1985년 환경정화에 유용한 녹나무 20주를 기증했다. 녹나무는 1986년 광양제철소 2문 옆 그린 존(Green Zone)으로 이식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 05 | 최첨단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철강업은 대규모 설비와 일관 공정을 갖추고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산화가 필수적이다. 포항제철은 1970년 10월 전산요원을 채용해 전산화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다. 이후 1974년 5월 본관 1층에 FACOM 230-25 컴퓨터를 설치하면서 업무전산화에 시동을 걸었다. 1983년부터는 전사 통합 OA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무자동화도 추진했다. 퍼스널 컴퓨터를 도입해 업무효율을 높이는 한편 1985년 12월 2일에는 제철소에 산재한 전산기기를 광케이블로 연결한 광통신 랜(LAN) 시스템을 개통했다. 이어 1987년 12월 28일 국내 최초로 철강 밴(VAN)을 가동해 고객사와 관련 업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했으며, 1988년 1월 11일 원격 영상의회의 시스템을 가동해 경영층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지원했다.



01



02



03



04

- 01 포항제철은 1985년 12월 2일 광통신 랜(LAN) 시스템을 개통했다.
- 02 1988년 1월 11일 포항·광양·서울을 광케이블 디지털망으로 연결한 원격 영상의회의 모습.
- 03 1987년 12월 28일 운송회사와 고객사의 전산정보를 연결하는 철강 밴(VAN) 시스템을 가동했다.

- 04 1994년 1월 10일 인사·재무·구매·경영계획 등 사무부문 혁신을 추구하는 전략정보 시스템을 가동했다.

| 06 | 생산관리 시스템의 최적화

1974년 범용 컴퓨터 도입 이후 1976년부터 포항제철소 조업 초기 수작업에 의존하던 제품 생산관리의 업무전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후 점차 공장이 많아지고 제품도 다양해짐에 따라 생산관리 전 분야의 전산화를 추진했다. 광양제철소는 1985년 3월 광양 1기 착공과 동시에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1986년 3월 31일 생산관제센터를 준공했다. 포항제철소는 1987년 3월 31일 생산종합관제센터 준공에 이어 1988년 2월 생산종합관제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모든 생산관제 기능을 통합했다. 한편 소규모 석탄 수요가들에게 유연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84년 9월 6일 포항 대량화물유통기지(CTS : Central Terminal System)를 준공한 데 이어 1986년 4월 10일 광양 CTS를 준공했다.



01



02



03



04

- 01 포항제철은 1985년 3월 5일 광양1기 설비 종합 착공과 동시에 전산화 마스터플랜을 수립, 1년 후인 1986년 3월 31일 생산종합관제센터를 준공했다.
- 02 포항제철소는 기상 악화에도 출하와 선적작업을 할 수 있는 전천후 부두를 국내 최초로 건설, 1992년 10월 31일 준공했다.
- 03 1986년 4월 10일 광양 CTS를 준공했다. 준공 당시 광양 CTS는 15만 톤급 이상 대형선박의 입항이 가능했다.
- 04 포항제철소는 1987년 3월 31일 분산 운영하던 생산관제실, 품질정보센터, 철도사령실 등 모든 관제기능을 통합하고, 에너지 정보와도 연결해 조업상황을 종합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생산종합관제센터를 준공했다.

| 07 | 품질 제일주의를 향한 발걸음

포항제철은 조업 초기부터 설비 확장에 맞춰 생산안정과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이후 생산능력 증대뿐 아니라 점차 생산제품이 고급화되면서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자 1980년 12월 6일 포항제철소에 품질정보센터를 신설했다. 또한 광양 1기 가동을 앞두고는 1사 2소 체제를 포괄할 수 있는 전사품질관리활동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1986년 9월 본사에 품질관리 총괄부서를 신설하고 품질향상 기획과 표준화 업무 등을 전사적으로 수행했다. 이후 ISO 9000 품질경영체제를 도입해 1993년 10월 30일에는 본사와 포항제철소가, 1993년 12월 17일에는 광양제철소가 ISO 9002 인증을 획득했다. 이 과정에서 포항제철은 품질관리 및 표준화 체계를 대폭 보완해 국제적 수준의 품질보증 체계를 확립했다.



01



02



03

- 01 1980년대 들어서면서 생산제품이 고급화되고, 생산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더 세밀한 공정관리가 필요했다. 이에 포항제철소는 1980년 12월 6일 품질정보센터를 신설해 생산현장의 표준작업을 유도하고 공정 간의 품질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해 불량제품 발생을 예방했다.
- 02 포항제철소는 1993년 10월 30일 ISO 9000 시리즈 인증에 대응해 품질관리 및 표준화 체계를 보완하고 ISO 9002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 03 광양제철소는 1993년 12월 17일 ISO 9002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08 | 포항공대 설립 및 포항방사광가속기 건설

포항제철은 우수 과학인재 육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1980년부터 포항지역에 4년제 대학 설립을 구상했다. 이후 수년간의 노력 끝에 1985년 7월 문교부로부터 대학 설립을 승인받았다. 1985년 8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한 데 이어 소수정예의 최고 이공계 명문대학에 걸맞은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마스터플랜 최종안을 확정했다. 12월 건축공사에 착수, 1986년 11월 1단계 공사를 완료했으며, 1986년 12월 3일 국내 최초의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며 포항공과대학을 개교했다. 이후 포항공과대학은 1994년 3월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로 교명을 변경했다.

아울러 1988년 5월 포스텍 부설 연구소로 포항가속기연구소를 설립하고 1994년 12월 3세대 포항방사광가속기를 준공했다. 이후 2016년 9월 세계 세 번째로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준공해 우리나라 산업기술과 응용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01



02



03

- 01 1985년 8월 17일 포항공과대학 부지조성공사 착공식에서 박태준 회장과 김호길 학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호길 학장은 박태준 대학설립위원장의 적극적인 초빙에 응해 초대 학장으로 부임했다.
- 02 1985년 7월 19일 포항시민들은 포항공과대학 설립인가를 환영하는 경축행사를 개최했다. 포항공과대학은 포항지역 첫 4년제 대학이었다.
- 03 1994년 12월 7일 준공된 포항방사광가속기는 1995년 9월까지 시험운전을 거친 후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빛을 이용한 현미경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사광가속기는 당시까지 보유한 국가가 EU·미국·대만·이탈리아뿐일 정도로 첨단 과학설비였다.

| 09 | 1사 2소 체제 구축(광양 1기 준공)

포항제철은 1987년 5월 7일 조강 연산 270만 톤 규모의 광양 1기 설비를 종합 준공했다.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2년 2개월 만에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바다 위에 꿈의 제철소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로써 포항제철은 조강 연산 1180만 톤 체제 구축과 함께 1사 2소 체제를 확립하며, 포항제철소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광양제철소는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를 갖췄다. 특히 광양 1기 종합 준공으로 포항제철은 세계 5위의 철강기업으로 거듭나며 우리나라를 세계 9위의 철강대국에 올려놓았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철강산업은 물론 자동차·조선·전자·기계 등 철강 수요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박태준 회장은 세계 철강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987년 5월 13일 철강업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영국 금속학회의 ‘베서머 금상’을 수상했다.



01



02



03

- 01 광양만의 드넓은 벌판에 우뚝 선 광양 1기 설비. 광양 1기 설비 준공으로 우리나라의 철강 자급도는 75%에서 85%로 뛰어올랐다.
- 02 포항제철은 1987년 5월 7일 전두환 대통령과 박태준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 1기 설비 종합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서 박태준 회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포항제철이 광양 1기 설비 준공에 따라 1사 2소 체제를 갖추고 1180만 톤 조강생산 능력을 보유한 세계 5위의 제철소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03 박태준 회장은 1987년 5월 13일 런던에서 열린 영국 금속학회 연차 총회에서 애터튼(D. V. Atterton) 영국 금속학회 회장으로부터 베서머 금상을 수상했다. 베서머 금상은 전로제강법을 발명해 철강의 대량생산시대를 개척한 헨리 베서머(Henry Bessemer)를 기리기 위해 영국 금속학회가 1874년에 제정한 상으로, 철강업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

| 10 | 국민주 기업 제1호

1988년 6월 10일, 포항제철은 전 국민의 관심 속에 국민주 1호로 주식을 공개했다. 공기업에서 명실상 부한 국민의 기업으로 재탄생한 순간이었다. 국민들에게 돌아간 주식은 발행주식의 27.3%였다. 특히 1987년 3월 정부가 발표한 ‘포항제철 주식의 장외거래’ 방침을 ‘국내 소수기업 소유로 포항제철을 넘길 위험이 크다’는 논리로 철회시키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업공개에 성공한 것이어서 의미가 더욱 컸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해 종업원지주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은 우리나라 최초로 국민주 시대를 열었고, 본격적인 글로벌 경쟁 속에서 세계적인 철강기업으로서 성장해 나갈 발판을 마련했다.



02



01



03



04

- 01 1987년 12월 정부는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중하위 소득계층에 분배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재산형성을 도모한다는 국민주 보급방안을 발표하고, 포항제철을 공개대상 기업 제1호로 지정했다. 제1호 국민주 상장을 보도한 신문. 포항제철의 기업공개는 언론에서도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 02 1988년 6월 10일 포항제철의 주식 시가는 주당 4만 3000원을 기록했다.
- 03 포항제철의 주식 견양.
- 04 포항제철은 1988년 1월 27일 우리사주조합 결성 총회를 열었다. 우리사주조합에는 조합원 1만 9419명이 참여했다. 직원들에게 배정한 주식은 총발행주식의 10%에 해당하는 917만 8914주였다.

| 11 | 세계 3위 철강기업으로 도약(광양 2기 준공)

1980년대 들어 우리나라는 건설, 조선,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산업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들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에 포항제철은 1986년 8월 29일 열연공장을 미리 착공한 뒤, 같은 해 9월 30일 광양 2기 설비공사를 종합 착공했다. 이후 건설과정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A급 태풍 셀마 등 자연재해가 닥쳤고,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진행된 전국적인 노사분규 등도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포항제철은 이를 모두 슬기롭게 극복하고 당초 계획보다 3개월 18일 앞당겨 1988년 7월 12일 조강 연산 270만 톤 규모의 광양 2기 설비를 종합 준공했다. 이로써 포항제철은 조강 연산 1450만 톤 체제를 구축해 세계 3위의 대형 철강기업으로 도약했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 8위의 철강대국으로 부상했다.



01



02

- 01 광양 1기와 마찬가지로 광양 2기 설비 중에서도 열연공장이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갔다. 광양 2기 설비는 1986년 9월 30일 종합 착공했다.
- 02 1988년 7월 12일 광양 2기 설비 종합 준공식에 참석한 노태우 대통령이 광양 2고로에 화입했다.
- 03 광양 2고로가 화입 22시간 후인 7월 13일 오전 11시 성공적으로 쇳물을 쏟아냈다. 광양 2기 설비 준공과 함께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철강대국으로 급부상했다.



03

12 | 철강 자급도 90% 달성(광양 3기 준공)

광양 3기 설비는 1988년 11월 1일 종합 착공됐다.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철강재 공급부족 현상이 예상됐고, 이에 따라 포항제철은 조기에 광양 3기 설비를 건설해 대규모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제품의 다양화,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기로 했다. 가장 큰 난관은 국내 기자재 공급에 확산된 노사분규였다. 한국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4개 중공업사가 국내 기자재 공급의 80%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짧게는 42일, 길게는 석 달 가까이 진행된 노사분규는 공기 준수에 치명적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건설현장에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레미콘업체에서도 노사분규가 발생했다. 포항제철은 총력비상체제를 갖추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건설을 강행하며 공기 준수에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오히려 당초 계획보다 1개월 27일 앞당긴 1990년 12월 4일 광양 3기 설비를 종합 준공해 조강 연산 1750만 톤 체제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철강 자급도는 82.1%에서 90.2%로 향상됐다. 1989년 1월 19일 광양 1냉연공장, 1991년 1월 30일 광양 2냉연공장을 준공해 고급강 생산기반도 확보했다.



01



02



03



04

- 01 포항제철은 1990년 12월 4일 광양 3고로에 화입하며 광양 3기 설비를 종합 준공했다.
- 02 1988년 11월 1일 종합 착공한 광양 3기 설비 건설은 국내 정치, 경제, 사회상의 급격한 변화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포항제철은 특유의 정신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당초 공기보다 약 2개월 앞당겨 준공했다. 사진은 광양 3기 설비 종합 착공.
- 03 연와 축조작업이 한창인 광양 3기 코크스 설비.
- 04 1989년 1월 19일 광양 1냉연공장이 준공됐다. 광양 1냉연공장은 국내 자동차산업과 전자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급증하는 고급강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987년 4월 1일 착공됐다.

13 | 4반세기에 걸친 건설 대역사 완성(광양 4기 준공)

1992년 10월 2일 종합 준공한 광양 4기는 포항제철이 그동안 축적해온 건설 경험과 기술을 통해 최단기간 완공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한 공사였다. 이로써 포항제철은 1968년 창립 이래 4반세기에 걸친 제철소 건설 대역사를 마무리하며 조강 연산 2100만 톤 체제를 구축, 세계 3위 철강기업의 면모를 확립했다. 우리나라는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철강산업은 자동차, 기계, 조선, 건설, 전자 등 전체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산업보다 큰 기간산업이고, 한 나라의 국력을 가늠할 수 있는 산업이다. 포항제철은 4반세기 건설 대역사를 완성하며 이처럼 중요한 철강 산업에서 국제적 우위를 점하게 됐다.



02

- 01 1992년 10월 2일 4반세기 건설 대역사 종합 준공식에서 박태준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박태준 회장은 포항제철의 4반세기는 인간 스스로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강조하며, 조강 연산 2100만 톤 체제를 갖춘 포항제철의 의미를 되새겼다.
- 02 조강 연산 1140만 톤 체제를 구축한 광양제철소.
- 03 4반세기 건설 대역사의 완성을 알리는 준공식에는 노태우 대통령, 로튼 국제철강협회 회장, 박태준 회장 등 수많은 국내외 귀빈과 임직원이 참석했다.



01



03

- 01 4반세기 건설 대역사 완성 보고
- 02 기업이념 선포
- 03 2100만 톤 체제 조기 정착 추진

박태준 회장의 갑작스런 퇴진으로 1992년 10월 취임한 황경노 회장을 비롯한 새로운 경영진에 부여된 사명은 분명했다. 제철보국의 일념으로 달려온 4반세기 건설 대역사, 그 결실인 조강 연산 2100만 톤 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그동안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온 포항제철에게 2100만 톤 체제 정착이라는 과제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우선 필요한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전 임직원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정신적 가치, 즉 새로운 기업이념 정립이었고, 또 하나는 내부 구성원의 소통과 단합이었다.

포항제철은 1992년 9월 ‘민족기업’, ‘인간존중’, ‘세계지향’을 새로운 기업이념으로 설정하고, 기업규범기업상인재상 등을 확립해 선포했다. 포항제철은 ‘제철보국’을 창업정신으로 삼아 온갖 역경을 극복해왔지만, 2100만 톤 체제를 구축한 후에는 새 체제에 걸맞은 새 이념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1987년부터 서울대학교와 함께해온 기업문화 연구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기업이념체계를 설정해 선포한 것이었다.

박태준 회장의 부재와 심각한 불황 속에서 2100만 톤 체제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임직원 상호 간의 원활한 소통과 긴밀한 단합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1992년 11월 포항제철은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각각 ‘직장협의회’를 발족하고 ‘1992 단합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4조 3교대를 골자로 하는 ‘신근무제도’를 도입했다. 1992년 1월부터 광양 123고로에 시범 적용해온 4조 3교대를 11월부터 전사에 확대 적용한 것이었다. 그리고 직원 동기부여를 위해 인사노무 혁신을 단행했다.

포항제철이 2100만 톤 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업이념을 설정하고 선진 제도를 도입했지만 포항제철을 둘러싼 외부 경영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었다. 국내 뿐 아니라 세계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발맞춰 함께 변화해 나가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투명한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이에 포항제철은 1991년에 수립한 POSCO 2000 계획을 수정 보완해, 1996년까지의 전략사업과 2000년의 회사 비전을 1992년 10월 발표하고 실행에 착수했다.

| 01 | 4반세기 건설 대역사 완성 보고

박태준 회장은 4반세기 건설 대역사를 완성한 다음날인 1992년 10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다. 이 자리에서 박태준 회장은 “각하의 명을 받은 지 25년 만에 포항제철 건설의 대역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삼가 각하의 영전에 보고를 드립니다”라며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줬던 고인을 회고했다. 묘소 참배 후인 10월 5일 박태준 회장은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의사를 접한 임직원은 사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박태준 회장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다. 포항제철은 박태준 회장의 사직의사가 확고함을 고려해 10월 9일 박태준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선임하고, 황경노 부회장을 제2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01

01 4반세기 건설 대역사 종합 준공 다음날인 1992년 10월 3일 박태준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25년에 걸친 건설 대역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음을 보고하면서 절대적인 신뢰에 감사를 표했다.

02 4반세기 건설 대역사 준공 보고문.



02

| 02 | 기업이념 선포

1992년 9월 24일 포항제철은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민족기업, 인간존중, 세계지향’이라는 기업이념을 선포했다. 제철보국의 창업정신이 창업 이후 세대들에게 체계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1987년부터 기업문화 체계화 작업을 추진해 창업정신을 재조명, 기업이념을 정립한 것이었다. ‘민족기업’은 제철보국 정신으로부터 이어진 포항제철의 뿌리로서 국민기업으로 미래의 한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소명을 제시한 것이며, ‘인간존중’은 그동안 유지해온 인본주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주민과 국민 나아가 인류의 행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결의를, ‘세계지향’은 세계 초일류기업을 지향하는 21세기 기업전략을 의미했다. 이 같은 최고 가치인 ‘기업이념’을 중심으로 한 기업이념 체계는 기업이념의 실천원리인 ‘기업규범’, 회사와 직원의 이상적인 모습을 나타낸 ‘기업상’과 ‘사원상’으로 구성됐다.



01

01 1992년 9월 24일 포항제철은 기업이념, 기업규범, 기업상, 사원상으로 정리된 기업이념 체계를 선포했다. 이는 4반세기 건설 대역사를 완성하는 시점에서 불문율로 존재해 온 이념체계를 성문화하고 이와 함께 가치관을 재정립함으로써 직원들의 일체감을 높이고 21세기 초일류기업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02 포항제철의 기업이념 선포를 알리는 입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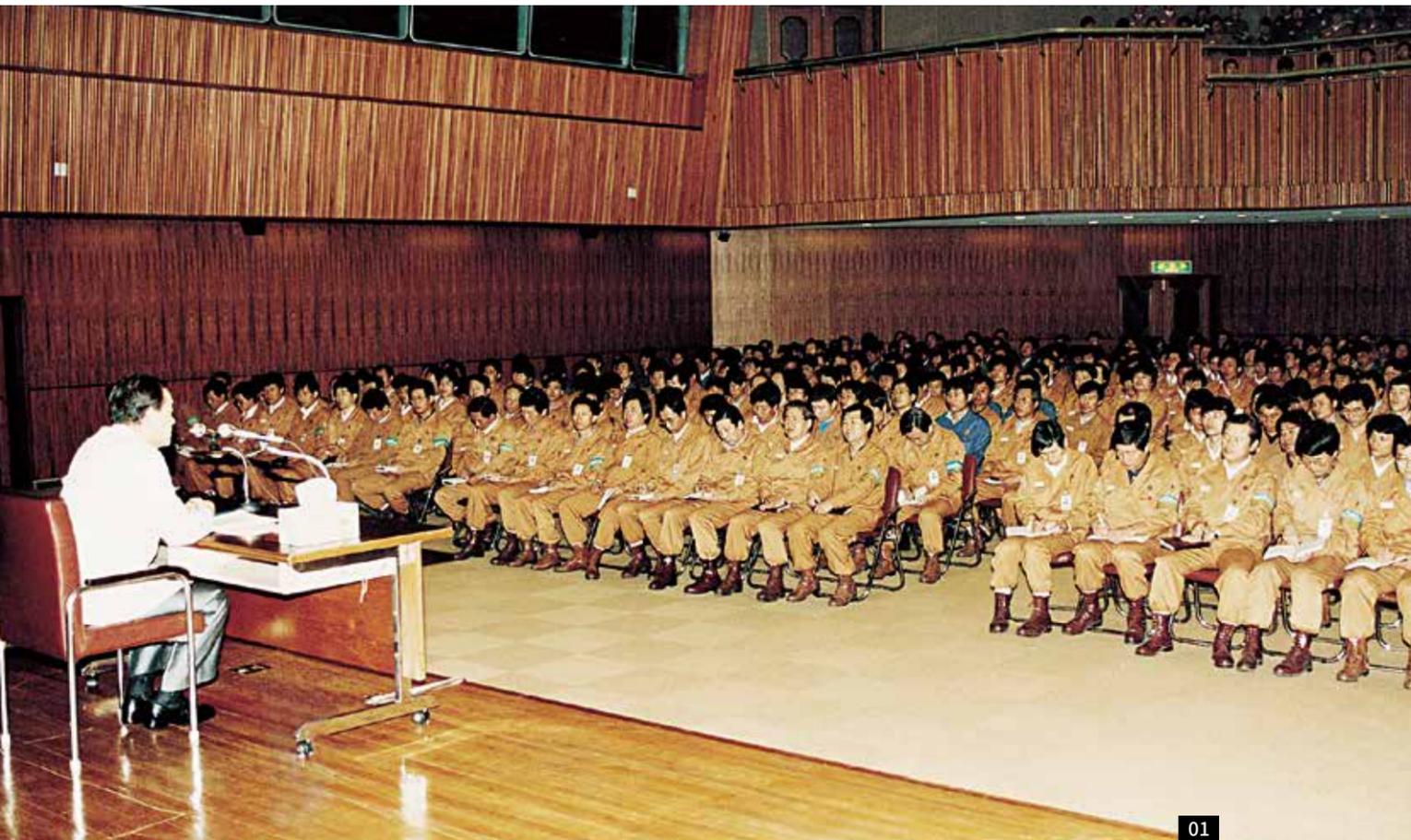


02

| 03 | 2100만 톤 체제 조기 정착 추진

4반세기 건설 대역사를 완성한 포항제철은 2100만 톤 체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설비투자를 추진했다. 1992년 9월 광양에, 10월 포항에 전천후 부두를 각각 준공했으며, 1993년 2월 26일 자체기술로 포항 1고로 2차 개수를 완료했다. 3월 3일에는 포항 2고로 PCI 설비를 준공해 전 고로에 걸쳐 PCI 조업체제를 구축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사노무 혁신과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1992년 11월 16일부터 4조 3교대 신근무제도를 전사에 확대 적용하고, 1993년 1월 8일 단행한 조직개편에서는 2100만 톤 경영체제 정착을 위해 전략부문 조직을 보강했다. 이와 함께 제철소 책임생산 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구매권한 일부를 제철소로 이관하는 등 책임권한제도도 수정했다. 1993년 2월에는 보완된 전문직 제도를, 6월에는 사내공모제를 각각 도입했다.



01



02



03



04

01 1992년 5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황경노 부회장은 1992년 단합계획 추진에 대해 특강을 하며 2100만 톤 체제를 구축한 기반 위에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02 황경노 회장은 1993년 2월 26일 포항 1고로 3대기 화입을 했다. 준공한 지 20년 만에 2차 개수를 완료하고 화입을 한 것이었다. 포항 1고로 2차 개수는 설비계획 수립부터 설계, 시공까지 자체기술로 완료해 고로 개수 기술의 자립기반을 구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

03 1992년 11월 16일 근무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 4조 3교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이었다. 사진은 1992년 3월 13일 냉연부 3냉연공장의 4조 3교대 완벽시행 결의대회.

04 포항제철소 직장협의회 현판식(1992. 12. 23).

- 01 신포스코 창조 및 윤리강령 선포
- 02 복합수출전략, 신기술 투자 지속
- 03 신사업 투자

4반세기 건설 대역사의 완성에 따른 2100만 톤 생산체제가 안정되어 가던 1993년 3월 정명식 회장이 취임했다. 포항제철은 새로운 경영진의 등장과 함께 4월에는 ‘신포스코 창조’를 선포하고, ‘부조리 추방’, ‘권위주의 타파’, ‘경영구조 혁신’을 3대 과업으로 내걸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행동지침은 실질 추구와 실천 중시, 솔선과 자율관리, 신뢰와 참여, 창의와 순리 존중, 조화와 균형 중시 등이었다. 신포스코 창조는 외형적인 성장에 걸맞은 경영시스템 구축과 기업문화 창달에 강조점을 뒀다. 특히 1993년 임금을 전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장기 국면에 돌입한 국내외 철강경기의 침체 등 어려운 경영여건을 극복해 나갔다. 1993년 7월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기업윤리강령을 선포함으로써 신포스코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신포스코가 지향하는 기업문화는 효율성과 자율이었다. 이에 따라 1993년 9월 조직개편에서는 책임과 권한을 하향조정하고, 10월부터는 출퇴근복을 자율화했다. 효율을 중시하는 경영방침의 적용 범위는 단지 사내에 국한하지 않고, 고객과의 접점으로까지 확대했다. 특히 판매부문에 서는 공급자 중심의 판매정책에서 벗어나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일즈엔지니어(Sales Engineer)’를 전 판매 부서에 배치했고, 1990년 7월 냉연제품 고객 10개사를 대상으로 시작한 ‘기술서비스제도(MR: Mill Representative)’를 1993년부터는 전 고객사로 확대 적용했다. 수출은 ‘다양한 상품을 다양한 국가에’라는 모토 아래 제품별·시장별로 수출계획을 다변화하고, 일본, 동남아시아, 중국을 근거리 3대 주력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복합 수출전략’을 적용해 정부의 경기활성화와 수출진흥책에 부응했다.

설비투자과 관련해서는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채용했다. 1993년 11월 포항제철은 철광석과 유연탄을 별도의 예비공정 없이 투입해 쇳물을 생산하는 신기술인 코렉스공장을 착공했다. 1994년 1월에는 쇳물로 슬래브를 만들지 않고 두께 2~6mm 정도의 열연코일을 바로 생산할 수 있는 신기술인 스트립캐스팅(Strip Casting) 기술을 적용한 파일럿 플랜트를 착공했다. 이와 함께 1994년 5월에는 1991년 8월 확정된 ‘POSCO 2000’ 비전의 하나로서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신세기통신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포항제철은 이 시기에 수평적 사업다각화의 첫 성과를 내기도 했고, 고객 위주로 경영체제를 일신했으며, 기업문화 등 내부 시스템의 정비를 위한 다양한 시도도 멈추지 않았다.

| 01 | **신포스코 창조 및 윤리강령 선포**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1993년은 포항제철이 2100만 톤 체제 구축 이후 맞이하는 첫해이자 창업세대의 용퇴로 세대교체를 이룬 첫해였다. 포항제철은 4월 1일 '신포스코 창조'를 선포하고 3대 과업으로 부조리 추방, 권위주의 타파, 경영구조 혁신을 표방했다. 실질 추구와 실천 중시, 솔선과 자율관리, 신뢰와 참여, 창의와 순리 존중, 조화와 균형 중시라는 5대 행동지침도 정했다. 아울러 3대 과업과 5대 행동지침을 실천하기 위한 10대 실천방안도 설정했다. 같은 해 7월 21일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기업윤리강령을 선포했다. 이를 통해 포항제철은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시대에 영속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윤리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01



02



03



04

01 포항제철은 창립 25주년을 맞아 신포스코 창조를 선포했다. 창립 25주년 기념식에서 신포스코 창조를 위한 3대 과업, 5대 행동지침, 10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02 1993년 7월 8일 신포스코 화합 다짐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신포스코 실천을 다짐했다.

03 1993년 7월 21일 국내 기업 최초로 기업윤리강령을 선포했다. 기업윤리강령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영진과 직원 개개인이 행동과 의식 면에서 갖춰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었다.

04 1993년 10월 1일 창립 이래 25년간 입었던 황색 근무복을 폐지하고 청색 작업복으로 통일하는 한편, 제철소 출퇴근복을 자율화했다.

| 02 | 복합수출전략, 신기술 투자 지속

포항제철은 2100만 톤 체제에 걸맞게 1993년 국내 공급 우선 판매정책을 복합수출전략으로 전환했다. '다양한 상품을 다양한 국가에'라는 모토 아래 제품별·시장별 수출을 다변화하고 일본과 동남아, 중국을 근거리 3대 주력시장으로 육성했다. 1992년 4월 포스비나(POSVINA) 설립으로 가시화된 베트남 사업도 확대했다. 1993년 5월 비나파이프(VINAPIPE), 1994년 1월 VPS(VSC-POSCO Steel Corp.)를 각각 합작설립했다. 국내에서는 1993년 5월 연산 100만 톤 규모의 미니밀(Mini-Mill)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9월에는 조강 연산 42만 톤 규모인 스테인리스 2기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등 설비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1993년 11월 1일에는 포항제철소에 용융환원제철법으로 용선을 생산하는 코렉스공장을 착공했다.



01

01 1980년대 후반 환경규제가 엄격해지고 고품질 철광석과 석탄이 줄어들자 선진 철강사들은 고로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제철공정 개발을 추진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용융환원제철법이었다. 용융환원제철법은 철광석과 유연탄을 그대로 용광로에 장입해 쇳물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포항제철은 1993년 11월 1일 용융환원제철법을 적용한 연산 60만 톤 규모의 코렉스설비를 착공했다.

02 1993년 5월 11일 설립된 베트남 합작법인 비나파이프.



02

| 03 | 신사업 투자

포항제철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평적 사업다각화에도 시동을 걸었다. 1994년 2월 28일 정부가 포항제철을 제2 이동통신사업 주도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5월 2일 컨소시엄 형태로 신세기통신을 설립해 공기업이라는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제철본업을 넘어 이동통신으로 사업영역을 넓혔다.



포항제철은 1990년대 수평적 사업다각화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제2 이동통신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 공기업이라는 제약조건에도 포항제철은 1994년 2월 28일 제2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사진은 이동통신 주도 사업자로 선정되자 환호하는 신세기통신 직원들.

- 01 경영위원회 신설 및 사외이사제도 도입
- 02 기축사업중심 사업구조 조정
- 03 글로벌 R&D 네트워크 구축
- 04 뉴욕증시 상장
- 05 화합의 기업문화
- 06 해외투자 가속화, 세계로 뻗어가는 포항제철
- 07 신기술 도입과 지속적인 설비확장
- 08 포스코센터 준공
- 09 IISI 회장사로 활동

1990년대 중반 세계경제는 신자유주의 물결과 함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은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2차 대전 이후 세계무역의 질서였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의미했다. 국내에서도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사회 각 부문은 오랜 권위주의 체제의 틀을 벗고 규제개혁과 자율화가 진전됐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1994년 3월 포항제철에는 창립 이래 처음으로 외부인사인 김만제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회장으로 취임했다. 포항제철은 세계화 시대에 대응한 선진 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각 본부장이 책임경영하는 사업본부제와 팀제를 전면 도입해 의사결정과 인력운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또 경영위원회와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주주권의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영 투명성을 높여 나갔다.

1994년 4월에는 새로운 경영방침으로 녹색경영철학을 발표했다. 녹색은 포항제철의 전통적인 컬러인 황색과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상징하는 청색의 조화를 의미했다.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이뤄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이익과 사회공헌의 조화를 추구하며 토론과 합의에 의한 민주적 경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나가자는 의미였다. 같은 해 7월에는 녹색경영철학의 실천목표로 ‘포스코 비전 2005’를 수립했다.

비전 2005는 향후 10년간 포항제철과 그룹사가 지향해야 할 경영의 기본방향과 목표,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했을 때의 위상을 명확히 제시했다. 경영혁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됐다. 하나는 철강, 엔지니어링 및 건설, 정보통신을 3대 기축사업으로 삼아 사업구조를 전면 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사업구조에 걸맞은 경영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3대 기축사업은 철강부문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과 E&C 등 미래 기간산업을 키우고, 각 부문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해 철강부문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했다.

포항제철의 3대 기축사업 육성은 그동안 축적한 철강사업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기존 철강사업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철강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지원하는 성격이 강했다. 이에 따라 투자 효율성이 없거나 3대 기축사업과 관련이 적은 회사는 합병 또는 매각하는 그룹사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1994년 5월 정보통신부문을 담당할 신세기

통신을 정식 출범시켰으며, 1994년 12월 E&C부문을 대표할 신설회사로 포스코개발(현 포스코건설)을 출범시켰다.

판매부문은 2차에 걸쳐 직거래 축소, 판매점 육성, 종합상사 기능 활성화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1994년 1차 판매부문 구조조정에서 경안실업을 내수판매 전문기업인 포스틸로, 거양상사를 수출 전문기업인 포스트레이드로 재출범시키며 560여 곳에 달하던 직거래 업체를 44개사로 축소했다. 1996년 2차 판매부문 구조조정에서 포스틸은 포스트레이드와 기업결합을 통해 내수 판매와 수출을 총괄하는 판매서비스 전문회사로 새롭게 출범했다. 특히 1995년 4월 추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결과를 토대로 직거래 업체를 21개사로 다시 축소했다. 이로써 포항제철은 생산자 관점 판매전략을 벗어나 고객 서비스·납기·물류 등 다각적 관점으로 판매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설비부문은 고객 수요에 발맞춰 국제적 수준의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1994년 7월 중장기 설비투자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국내에 필요한 철강제품을 우선 생산하고, 용융환원설비, 박슬래브, 스트립캐스팅 등 철강 신기술을 도입하는 데 역점을 뒀다. 이에 따라 1996년 5월 광양 3CGL(용융아연도금라인)을 준공하고, 8월에는 연산 42만 톤 규모의 스테인리스 2제강공장을 완공해 단일제철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스테인리스 조강 연산 84만 톤 체제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연산 300만 톤 규모의 고로 1기와 200만 톤 규모의 미니밀 1기를 신설하기로 결정, 1996년 10월 광양 1미니밀 준공식과 함께 광양 5고로 착공식을 거행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연산 60만 톤 규모의 코렉스공장 정상조업도를 달성했다. 이어 1997년 8월에는 광양 4냉연공장을 준공해 자동차용과 가전제품용 고부가가치강을 특화했고, 9월 포항 3후판공장을 준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설비를 확장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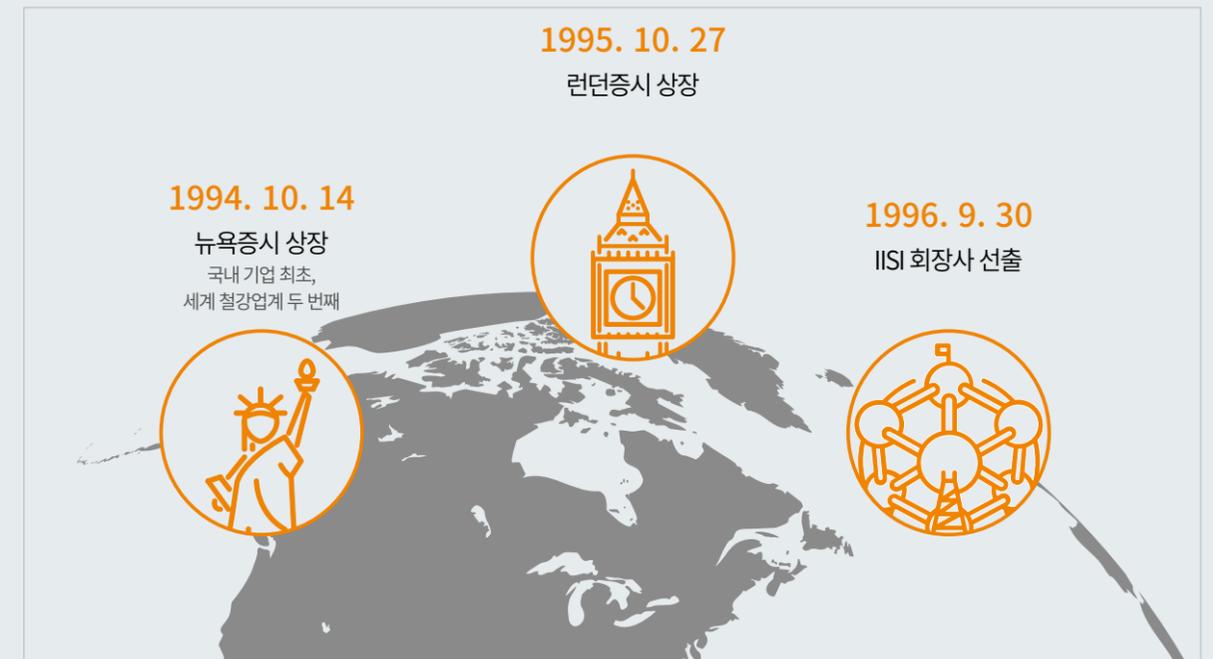
세계화 시대에 대응한 글로벌 경영도 본격화했다. 지속성장을 위한 자금을 글로벌 파이낸싱을 통해 해외에서 조달하기로 하고, 1994년 10월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3억 달러 규모의 ADR를 뉴욕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했다. 포항제철이 ADR를 상장할 당시 뉴욕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160개사였고 이들 가운데 철강업체는 영국 브리티시스틸이 유일했다. 포항제철이 까다로운 뉴욕증시 상장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것은 기업구조와 경영상태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국제적 신인도와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공인받았음을 의미했다. 포항제철의 뉴욕증시 상장은 이후 한국전력, 삼성전자, LG, SK 등 국내 기업들이 해외증시의 문을 두드리는 물꼬를 터 국내 자본시장의 세계 편입을 가속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1995년 10월에는 3억 달러 규모의 DR를 뉴욕과 런던 증권시장에 동시에 상장함으로써 해외증시 상장 규모는 1차 뉴욕증시 상장분 3억 달러와 함께 모두 6억 달러로 증가했다. 해외진출과 투자도 가속화했다. 1994년부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현지시장을 개척하고 합작법인과 생산시설 등을 설립해 나갔다. 특히 1995년에는 금융전문회사인 홍콩 포스인베스트를 설립해 해외투자사업 지원 거점을 마련했다.

산학연 연구개발체제도 개편해, 1994년 7월 RIST의 철강부문 중 현장성이 강한 연구기능을 분리해 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포스코경영연구소(POSRI), 포스코개발 기술연구소를 설립해 연구개발을 다변화하고, 1994년 도쿄연구소, 1995년 유럽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해외 연구기반도 확대했다. 1996년 8월 단행된 2차 연구개발체제 개편은 기술연구소와 RIST 간 역할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강화했다.

포스코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도래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글로벌 기업, 지속가능 기업 경영기반 구축에 주력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목표와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갔다. 그러나 경영환경은 만만치 않았다. 급기야 1997년에는 외환위기가 동아시아를 강타하면서 기업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고, 연말에는 우리나라 역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하게 이르렀다. 포항제철에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위기이면서, 동시에 그 과정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도전이었다.

포항제철의 국제적 위상



01 | 경영위원회 신설 및 사외이사제도 도입

포항제철은 1994년 4월 1일 창립기념식에서 기업 최고의 목표이자 방침으로 녹색경영철학을 발표했다. 과거 성장시대의 체질을 변화시켜 새로운 경영이념과 원칙을 설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포석이었다. 그 실천목표로 '비전 2005'를 수립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영관리체제 쇄신도 추진했다. 1994년 12월 13일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위해 회장·사장·부사장·제철소장 등 모두 9명을 위원으로 하는 경영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회장과 사장이 결정하던 경영의 기본방침과 주요 정책들을 합의에 의해 결정하게 됐다. 특히 1997년 3월 14일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했다. 9명인 사내이사보다 1명 더 많은 10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 01 포항제철은 1994년 12월 13일 최고이사결정기구로 경영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신설해 의사결정 체제를 개선했다. 그러나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자 1999년부터는 그 역할을 심의기구로 조정했다. 사진은 1995년 1월 5일 개최한 첫 경영위원회.
- 02 1997년 3월 14일에는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했다. 사외이사의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었다. 사진은 1997년 3월 14일 사외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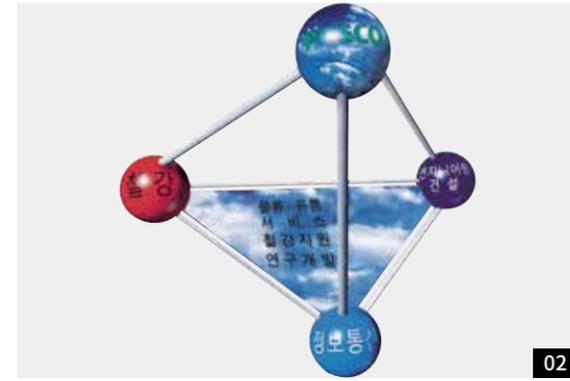
01



02

02 | 기축사업중심 사업구조 조정

1994년 7월 18일 '비전 2005'를 수립한 포항제철은 철강사업, 엔지니어링 및 건설(Engineering& Construction)사업, 정보통신사업을 3대 기축사업으로 삼아 사업구조 재구축에 나섰다. 철강부문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과 E&C 등 미래 기간산업을 육성하고, 3대 기축사업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철강부문의 성장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이룬다는 전략이었다. 이에 따라 3대 기축사업에 대한 투자를 전개해 1994년 12월 1일 포스코개발(현 포스코건설)을 공식 출범시켰다. 그동안 종합제철을 건설하며 축적한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과 노하우, 경험인력을 토대로 엔지니어링본부와 건설본부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그룹사였던 거양개발, 포스코엔지니어링(PEC)을 통합했다. 3대 기축사업의 또 다른 축인 정보통신부문에서는 신세기통신이 1994년 5월 2일 정식 출범했으며, 포스데이타(1989년 11월 설립, 현 포스코ICT)는 IT서비스 업계를 선도했다. 이후 신세기통신은 2000년 1월 3일 SK텔레콤과 주식 맞교환을 통해 지분을 정리했다.



- 01 포항제철은 엔지니어링과 건설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1994년 12월 1일 철강 E&C분야 전문회사인 포스코개발을 공식 출범시켰다. 사진은 1994년 11월 16일 진행된 현판식.
- 02 1994년 철강,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및 건설을 축으로 물류·유통, 서비스, 철강지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경영다각화 체계(사진)를 수립했다.
- 03 1995년 2월 11일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거양해운을 한진중공업에 매각했다.
- 04 1996년 11월 29일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정비를 맡고 있던 포철산기와 포철기연을 포철산기로 합병했다가 1999년 3월 24일 제철소별로 밀착된 책임정비를 강화하기 위해 다시 포철산기와 포철기연으로 분리 독립시켰다.

| 03 | 글로벌 R&D 네트워크 구축

포항제철은 1977년 설립한 부설 기술연구소를 확대, 발전시켜 1987년 RIST로 독립법인화하면서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이후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1994년 1차 연구개발체제 개편을 단행했다. 6월 1일 포스코경영연구소(POSRI)에 이어 7월 1일 RIST의 철강부문 중 현장직결형 연구기능을 분리해 기술연구소를 신설했으며, 12월 1일에는 포스코개발 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연구개발 무대는 해외로까지 확장했다. 1994년 10월 28일 일본 도쿄에 도쿄연구소를, 1995년 10월 30일에는 독일 뒤셀도르프에 유럽연구소를 설립했다. 이로써 포항-광양-서울-도쿄-뒤셀도르프를 연결하는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01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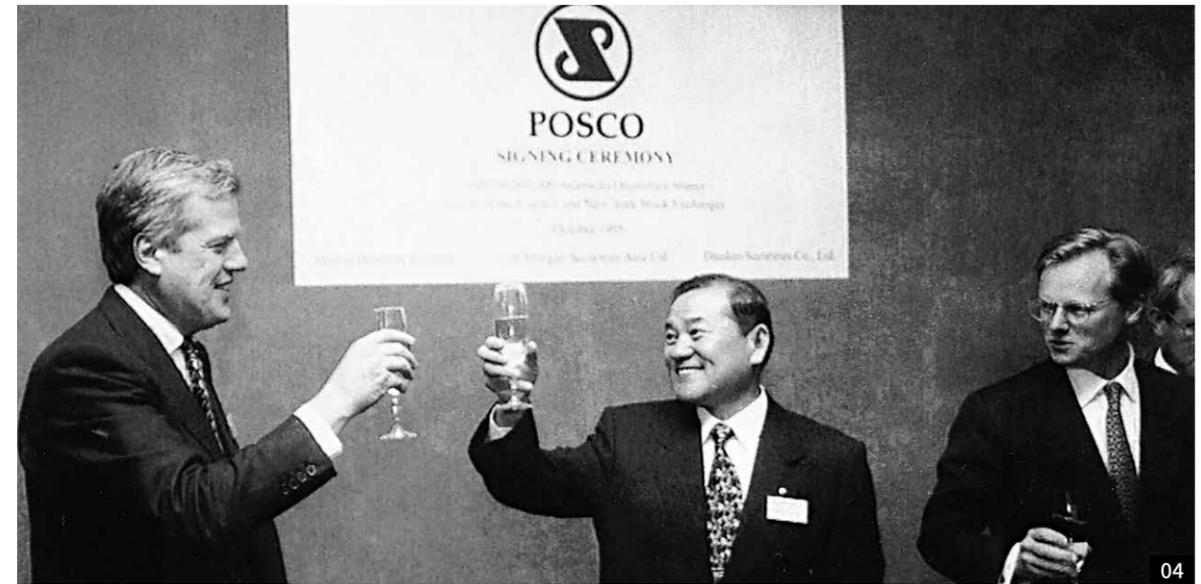


04

- 01 1994년 7월 1일 포항제철은 기술연구소를 개소했다. 기술연구소는 RIST의 철강부문 중에서 현장성이 강한 연구기능을 분리했다.
- 02 RIST 산하의 경영·경제연구소를 분리 독립시켜 1994년 6월 1일 포스코경영연구소를 설립했다. 포스코경영연구소는 경영분야의 연구조사 및 컨설팅을 담당했다.
- 03 연구개발 무대를 해외로 넓혀 1994년 10월 28일 도쿄연구소를 개소했다. 해외연구소는 선진 철강사의 기술개발 동향을 조사하고 국내외 기술자원과 인력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설립했다.
- 04 포항제철소 내 소분부 건물을 철거한 부지에 기술연구소 본동을 착공해 1997년 9월 30일 준공했다. 이날 준공한 기술연구소 본동은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였다.

| 04 | 뉴욕증시 상장

포항제철은 2000년까지 조강 연산 2800만 톤 체제를 구축, 세계 최대 철강사로 부상한다는 목표 아래 지속적으로 설비 확장을 추진했다. 설비를 계속해서 신증설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우선이었다. 이에 따라 1994년 해외증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1차로 뉴욕증시 상장을 추진했다. 이미 양키본드, 사무라이본드 발행 과정에서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포항제철 ADR에 대한 수요 열기는 뜨거웠다. 1994년 10월 14일 오전 8시(한국시각 오후 9시), 포항제철은 국내 기업 최초로 뉴욕증시에 상장했다. 이어 1995년 10월 27일 3억 달러 규모의 DR를 세계 양대 금융시장인 뉴욕과 런던 증권시장에 동시에 상장했다. 해외증시 상장 규모는 1차 뉴욕증시 상장분 3억 달러와 함께 총 6억 달러로 늘어났다. 성공적인 해외증시 상장을 통해 포항제철은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신인도와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공인받았다.



- 01 1994년 10월 14일 뉴욕증시 상장을 위한 조인식에서 김만제 회장이 서명하고 있다. 이로써 포항제철은 국내 최초로 뉴욕증시에 상장한 기업이 됐다. 이후 삼성전자, LG, SK 등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증시의 문을 두드렸다.
- 02 뉴욕증권거래소가 포항제철의 뉴욕증시 상장을 기념해 태극기를 내걸었다.
- 03 국내 최초의 뉴욕증시 상장을 기념하고 이를 알리는 신문광고(1994. 10).
- 04 뉴욕증시 상장 1년 뒤인 1995년 10월 27일 런던증시에도 상장했다.

| 05 | 화합의 기업문화

창립 초기부터 노사화합의 정신을 형성하는 데 주력한 포항제철은 1981년 1월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사회 전반적으로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1987년 이후 노사관계에도 변화가 일어 1988년 6월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대립적 노사관계에 대한 회의가 일고, 회사의 수익기반마저 악화되자 노사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다. 1992년 11월 직원들은 양 제철소에 초대 직장협의회를 구성했고, 1993년 4월에는 이 협의회를 전사 직장협의회로 발전시켰다. 1997년 11월에는 노경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노경협의회는 실질적인 직원대의원기구로서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노사화합의 정신이 약화돼 조직분위기까지 침체되자 1991년부터 반(주임) 단위 조직활성화 활동, 한가족미팅, 직장간담회, 직원정책자문회의 등 조직활성화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1994년 6월 포항제철은 최초의 사보인 <쇳물>을 계승한 <포스코신문>을 창간하는 등 경영정보 공유와 직원들 간 일체감 조성에 힘썼다.



01



02



03



04

- 01 포항제철은 창립 이후 노사화합의 문화를 이어왔으며, 노사 간의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왔다. 1995년 6월 1일 개최된 한마을 축제 역시 소통의 장 중 하나였다.
- 02 1988년 6월 결성된 노동조합은 10월 15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 03 1997년 11월 20일 노경협의회는 포항 본사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 04 1994년 6월 15일 국내 최초의 주간 기업신문인 <포스코신문>이 창간됐다. <포스코신문>과 함께 발행되던 <쇳물>은 1997년 12월, 통권 309호를 끝으로 중단했다. <포스코신문> 역시 2015년 7월 30일, 1081호를 마지막으로 중단했다.

06 | 해외투자 가속화, 세계로 뻗어가는 포항제철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과 1980년대 선진국의 무역규제를 경험한 포항제철은 1990년부터 해외 현지생산을 더욱 늘리는 방식으로 해외진출에 나섰다. 우선 베트남에서는 1992년 4월 남부철강연합과 합작해 아연도금강판 제조회사인 포스비나를 설립해 가동하기 시작했고, 1993년 5월에는 베트남의 VSC, 우리나라의 세아제강과 합작해 백관 및 흑관 생산회사인 비나파이프를 설립해 가동하기 시작했다. 1994년 1월에는 VSC와 봉강-선재 제조회사인 VPS를 설립하고 1995년 9월 가동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는 1995년 11월 아연도금강판 제조회사인 대련포금강판유한공사를 설립, 1997년 9월 아연도금강판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1997년 4월에는 순덕포항도신강판유한공사를 설립, 1998년 9월 아연도금강판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1990년대 포항제철은 동남아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했다.



01



02



03

- 01 포항제철은 1990년대 초 경제개혁과 시장개방을 단행한 베트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투자에 적극 나섰다. 1992년 4월 포스비나, 1993년 5월 비나파이프, 1994년 1월 VPS를 합작 설립했다. 사진은 1995년 9월 15일 VPS 준공식.
- 02 포항제철은 동·서남아시아 지역에 보다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6년 3월 20일 해외 판매거점 확충을 위한 동·서남아시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 03 1992년 광양제철소 건설을 마친 후 증강된 생산능력을 소화할 만한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해졌다. 포항제철은 중국 진출에 역점을 두고 포철천진강재가공유한공사, 대련포금강판유한공사, 순덕포항도신강판유한공사를 차례로 설립했다. 사진은 1997년 9월 생산을 개시한 순덕포항도신강판유한공사 전경.

07 | 신기술 도입과 지속적인 설비확장

1990년대 국내 주요 철강 수요산업인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 호황에 대응해 1994년 7월 19일 중장기 설비투자 마스터플랜 최종안을 확정하고 1999년까지 조강 연산 2840만 톤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1995년 11월 28일 세계 최초의 상업적 규모인 연산 60만 톤 규모의 코렉스공장을 포항제철소에 준공했다. 1996년 8월 30일에는 조강 연산 42만 톤 규모의 스테인리스 2제강공장도 준공했다. 이로써 스테인리스강 단위제철소는 세계 최대 규모인 연산 84만 톤 체제를 구축했다. 1997년 9월 11일에는 포항 3후판공장을 준공해 박물광폭재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광양제철소에는 1996년 5월 30일 연산 30만 톤 규모의 광양 3CGL공장을 준공해 박물·협폭 위주의 가전용 제품에서 컬러 코팅용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1996년 10월 15일 300만 톤 규모의 광양 5고로를 착공하는 동시에 연산 180만 톤 규모의 광양 1미니밀을 준공했으며, 1997년 8월 28일에는 연산 180만 톤 규모의 광양 4냉연공장을 준공했다.



01



02



03



04

- 01 광양 5고로는 1996년 10월 착공해 1999년 3월에 완공했으나 5고로에서 생산하는 쇠물을 원재료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던 제2 미니밀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가동을 1년 남짓 보류했다. 사진은 1996년 10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광양 5고로 착공식.
- 02 포항제철은 연산 60만 톤 규모의 코렉스공장을 1993년 11월 1일 착공, 1995년 11월 28일 준공했다. 1996년 11월 초기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조업도를 달성했고, 1997년 5월 11일에는 무코크스 조업으로 일일 2343톤을 생산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 03 1996년 10월 15일 연산 180만 톤 규모의 광양 1미니밀공장을 준공했다. 미니밀은 고철을 주원료로 전극가열 장치에 의한 발생열로 고철을 손쉽게 정련하는 정련장비이며 제조공정의 단축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박슬래브 캐스터를 갖췄다.
- 04 1995년경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후판을 110만 톤 정도 수입제품에 의존하고 있으나, 조선 등 후판 수요산업이 성장하고 있어, 공급부족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 포항제철은 포항 3후판공장을 1995년 12월 착공해 1997년 9월 11일 준공함으로써 수요급증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했다.

| 08 | 포스코센터 준공

포항제철은 1995년 8월 31일 동관 30층, 서관 20층, 지하 6층의 연면적 18만 826㎡ 규모의 포스코센터를 준공하고, 9월 1일 개관했다. 1992년 1월 7일 착공한 지 3년 6개월 만에 준공한 포스코센터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포항제철의 응지를 품고 있었다. 특히 최첨단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국내 최초의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1995년 대한민국 건축문화 대상을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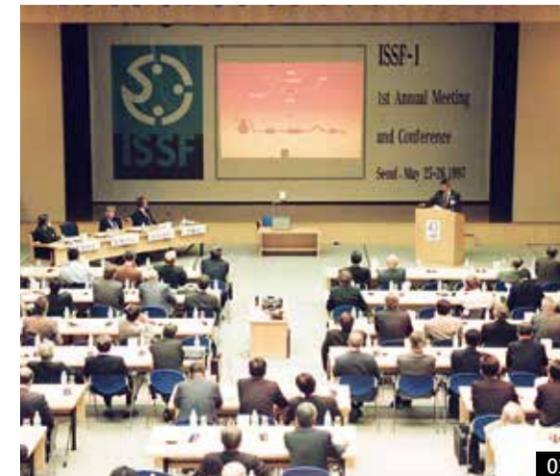
포항제철은 1995년 9월 1일 포스코센터 1층 아트리움에서 정재계 인사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코센터 개관을 기념하는 리셉션을 열었다.

| 09 | IISI 회장사로 활동

포항제철은 1988년 10월 서울에서 제22차 국제철강협회(IISI)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세계 철강업계 선두주자로서의 면모를 세계에 각인시켰다. 이어 IISI는 1996년 9월 30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한 제30차 IISI 정기총회에서 김만제 회장을 제20대 회장에 선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국제 철강업계에서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다.



01



02

01 IISI는 1996년 9월 30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한 제30차 정기총회에서 집행위원 만장일치로 김만제 회장을 제2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사진은 1997년 10월 7일 제31차 IISI 빈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김만제 회장.

02 1997년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포스코센터에서 제1회 국제 스테인리스틸 포럼(ISSF)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김만제 회장은 ISSF 서울 총회에 참석한 세계 17개국 44개사 90여 명의 인사에게 IISI 회장이자 ISSF 회장으로서 세계 스테인리스틸 메이커의 협력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 01 정도경영 · 투명경영 · 책임 경영 추진
- 02 프로세스의 혁신
- 03 포스코센터 음악회 개최
- 04 광양 5고로 가동
- 05 신일본제철과 전략적 제휴
- 06 포스코역사관 건립
- 07 민영 포스코 출범
- 08 글로벌 경쟁력 향상
- 09 자동차강판시장 공략 시동

IMF 외환위기의 파고가 정점에 달했던 1998년, 우리 경제는 고금리와 긴축재정으로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소비심리도 급격하게 위축됐다. 철강산업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철강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었다. 특히 자동차-건설가전 등 국내 철강 수요산업이 완전히 침체돼 국내 조강 생산량이 3989만 톤으로 전년 대비 6.2% 줄어드는 등 미래가 불투명했다.

바로 이즈음인 1998년 3월 유상부 회장이 취임했다. 포항제철로서는 4년 만에 내부승진 전통을 되살린 의미가 있었지만, 새로운 경영진이 헤쳐 나가야 할 난제는 산적해 있었다. 무엇보다 세계경제의 불확실한 전망 속에서 이미 규모가 확장된 포항제철이 장기침체 국면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포항제철은 새로운 경영철학으로 ‘정도경영’, ‘투명경영’, ‘책임경영’을 제시했다.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나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경영을 추구함으로써 21세기에도 초일류기업으로서의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정도경영은 기본과 원칙, 글로벌 스탠더드, 약속과 룰이라는 실천기준을 의미했다. 투명경영은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스피드 경영체제를 포함했다. 책임경영은 주주와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객중심의 기업가치를 높이는 경영방향을 일컬었다. 이를 바탕으로 포항제철은 프로세스 혁신과 시스템 선진화에 박차를 가했다.

이어 1998년 12월 의사결정체계와 조직체계, 그와 관련된 인사제도 등을 포괄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개편은 권한에 따르는 분명한 책임을 강조하며 사업부 성격의 본부제를 폐지하고 담당임원제를 도입해 책임경영체제를 분명히 했다. 1999년 3월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글로벌 전문경영체제(GPM : Global Professional Management)’를 도입해, 최고경영진에 권한을 집중하는 대신 이사회가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내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성을 강조했던 조직을 강력한 리더십이 구현될 수 있게 정비한 포항제철은 곧바로 시스템 개선에 착수했다. 핵심은 생산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고객 관점에서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고, 성과를 중시해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1998년 12월 P1실 출범과 함께 프로

세스 혁신(PI: Process Innovation)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혁신의 주요 수단으로 전사 통합자원 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을 도입했다. 2001년 7월 PI 신시스템인 '포스피아(POSPIA)'를 전면 가동했다. 포스피아는 프로세스, 시스템, 조직문화 등 포스코 전반에서 기대 이상의 개선효과를 거뒀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01년 11월 2기 PI체제를 출범시키고, 6시그마 기법을 바탕으로 경영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포스피아를 비롯한 PI의 성과는 우선 글로벌 스탠더드가 내장된 패키지를 이용해 전략 수립부터 실행에 이르는 모든 업무를 통합하는 전사 최적화를 이룩했다는 데 있었다. 인터넷을 통한 e-비즈니스 체제를 구축해 업무 프로세스와 실무 데이터를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포항제철의 조직은 내부 효율중심 조직에서 고객중심 조직, 프로세스형 조직, 전사 최적화 조직으로 변화했다. 경영, 재무, 마케팅, 자재, 인사노무 등 각 부문에서 프로세스를 변화시켜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뢰도를 높였다.

포항제철은 경영관리체제와 인프라 완비를 기반으로 외형을 중시해온 성장전략에서 기업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전략을 추구해 나갔다. 창립 이후 30년간 고수해온 '최대 생산 최대 판매' 정책에서 '적정 생산 최대 이익'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투자부문은 1998년 4월 투자사업 합리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11월에 투자사업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궁극적으로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모든 투자계획을 재검토하고, 낭비되거나 수익이 낮은 자산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투자전략을 수정하면서 판매부문 구조조정도 진행했다. 1998년 6월 포스틸의 주력제품 판매권을 인수해 178개 거래업체와의 거래창구를 단일화했다. 이는 생산과 판매를 연계하는 판매체제를 구축해 고객사들의 다양한 요구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효율성 및 선택과 집중 등 합리화 방향은 생산설비부문에도 예외 없이 적용됐다. 무조건적으로 설비를 증설하기보다는 노후설비를 개수하는 설비합리화를 추진하고, 증설은 고부가가치 제품 설비에 한정했다. 2000년 4월 광양 5고로를 가동하고 2001년 1월 차세대 혁신 제철공정인 파이넥스 데모 플랜트(FINEX Demo Plant)를 착공했다.

철강본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그룹사 정책도 선택과 집중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확실한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있는 분야만 선택적으로 육성했다. 이에 따라 철강부문은 1998년 7월 포항도금강판의 지분을 합작회사인 동국제강으로부터 모두 인수하고, 1999년 3월 포항강재와 통합, 포항강판을 출범시켜 특수강 부문을 담당하는 그룹사로 특화했다. E&C부문의 포스코개발은 1998년 7월 철강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사업영역을 재편했다. 신사업인 이동통신사업의 신세기 통신은 자본잠식에 따라 2000년 1월 SK텔레콤과 주식을 교환해 지분을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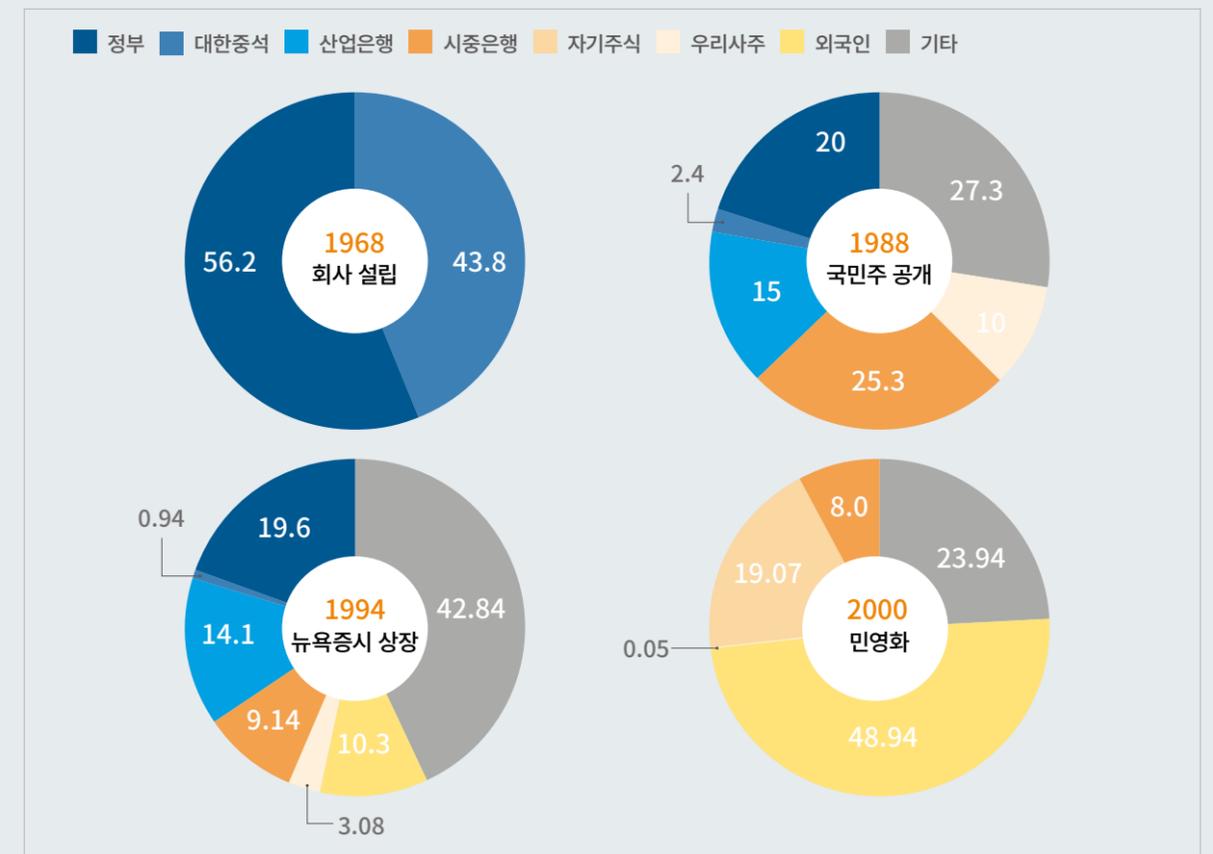
대외적으로는 민영화 추진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향하는 발판을 마련해 나갔다. 포항제철

의 민영화는 1998년 7월 기획예산위원회가 11개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밝히면서 빠르게 진행됐다. 그해 12월 포항제철은 정부 지분 3.14% 전량과 한국산업은행 지분 23.57% 중 일부 매각을 시작으로 3년간에 걸쳐 민영화 작업을 추진했고, 2000년 10월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을 자사주로 매입하면서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민영화 직후 포항제철은 글로벌 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2002년 3월 회사명을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포스코(POSCO)'로 변경했다. 이는 그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철강을 생산했던 포항제철이 국민기업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특히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생산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면서 PI를 통해 새롭게 구축한 선진 경영체제를 다지고, 향후 실질적인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프로세스 기반을 마련했다.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민영 포스코의 행보에 더 큰 기대가 모아지는 까닭이었다.

주주 구성 변화

(단위: %)



01 | 정도경영·투명경영·책임 경영 추진

1997년 이후 외환위기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한 포항제철은 새로운 경영 철학으로 정도경영·투명경영·책임경영을 제시하고 21세기 초일류기업으로의 성장을 도모했다. 1999년 3월 16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글로벌 전문경영체제(GPM : Global Professional Management)를 도입하는 한편 4월에는 이사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사외이사들에게는 단순히 경영을 감시·감독하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역할을 넘어 정책입안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했다. 2000년 2월 11일 최고경영자가 직접 회사 현황과 경영전략을 소개하는 CEO 포럼을 개최하는 등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2000년에는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간 배당제를 도입해 주주들의 지지와 신뢰에 부응했다.



01



02



03

- 01 1999년 3월 16일 제31기 주주총회에서 전문경영진의 책임경영과 이 사회의 경영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글로벌 전문경영체제(GPM)를 도입한 것이었다.
- 02 포항제철은 2002년 1월 30일 미국 뉴욕에서 CEO 인베스터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유상부 회장은 미국 내 주요 기관투자자들에게 경영실적과 계획에 대해 설명했으며, 행사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세계적인 철강경기 불황 속에서도 포항제철이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했다.
- 03 2002년 11월 6일 포항 본사에서 최고경영자와 임원이 경영정책을 직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직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CEO와 함께하는 경영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민영화 2주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수평적인 토론문화를 전사로 확산시키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02 | 프로세스의 혁신

2000년대를 앞둔 1998년 12월 4일, 포항제철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고객지향의 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PI를 추진하기로 하고, 주요 수단인 전사 ERP를 도입하기로 했다. 12월 31일 각 부문에서 선발한 30명으로 PI실을 출범시키고, 9개월에 걸쳐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1999년 10월 19일 확정했다.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작업은 2000년 1월 시작했다. 9월 ERP 및 통합판매생산계획(SCP : Supply Chain Planning) 패키지를 적용한 전사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후 테스트 단계에 돌입해 2001년 7월 2일 시스템 빅뱅을 완료하고 모든 사용자에게 PI 신시스템을 오픈했다. 신시스템의 명칭은 유토피아를 개척해 나간다는 의미의 포스피아(POSPIA)로 정했다. 이로써 전략 수립에서 실행에 이르는 모든 업무를 통합하는 전사 최적화를 이루고, 제품 개발기간과 표준화율을 높여 고객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또 재무·구매·인사노무 등 전 부문에 걸쳐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 포항제철이 세계 최대 규모의 PI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자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벤치마킹하며 모범사례로 삼았다. 이후 2001년 11월 15일 2기 P 체제를 출범시키며 6시그마를 도입, 고객중심의 기업문화 정착과 혁신의 체질화를 이루기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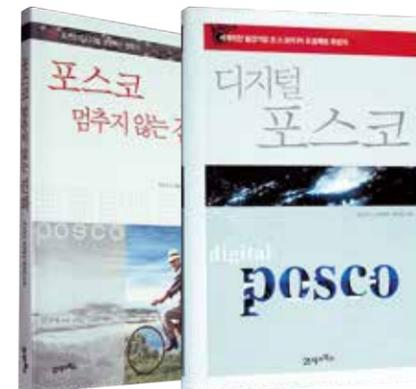
01



02



03



04

- 01 포항제철은 1999년 1월 12일 PI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 유상부 회장은 PI를 통해 프로세스는 물론 조직구조, 의사결정 과정, 직원의식,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태도와 방법까지 기업을 움직이는 모든 경영요소를 바꿀 것을 주문했다.
- 02 2001년 7월 2일 유상부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PI 신시스템 가동식을 가졌다. PI 신시스템의 명칭은 직원 공모를 통해 포스피아(POSPIA)로 정했다.
- 03 PI 성공을 기원하는 광양제철소 윈드서핑 동호회.
- 04 PI 가동을 기념해 발행한 <포스코 멈추지 않는 진화(포스코의 디지털 경영 혁신 정착기)>와 <디지털 포스코(세계적인 철강기업 포스코의 PI 프로젝트 추진기)>.

03 | 포스코센터 음악회 개최

포항제철은 1999년 12월 31일 밀레니엄 제야음악회 개최를 계기로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국내 유일의 정기 사육음악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포항, 광양 지역의 지역민들을 위해서도 1980년 2월 포항 효자아트홀, 1992년 7월 광양 백운아트홀을 개방해 연극, 영화, 음악 등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조수미, 황병기, 빈소년 합창단, 패티김, 인순이, 윤도현 등 클래식부터 국악, 가요, 팝, 재즈에 이르는 다양한 음악회를 개최하고 무료로 시민들에게 개방해 문화예술의 지평을 넓혔다. 포스코센터 정기음악회는 2014년 건축경영으로 3년간 중단했다가 2017년 9월 재개됐다.



01

01 1999년 12월 31일 포스코센터에서 개최된 밀레니엄 제야음악회.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 이 음악회를 계기로 포항제철은 매월 포스코센터 음악회를 개최했다.

02 2002년 4월 27일 포스코센터 아트리움에서 포스코센터 음악회 '차이코프스키 페스티벌'이 열렸다.



02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철강수요가 감소해 감산이 불가피해지자 포항제철은 그동안의 양적 생산체제에서 탈피해 '적정 생산 최대 이익'의 질적 생산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더 이상의 경쟁적 설비증설은 지양하고, 노후설비를 개수하는 설비합리화에 주력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설비만 신증설을 추진했다. 제2 미니밀 사업 중단으로 1999년 3월 완공 이후 가동이 보류돼 온 광양 5고로를 고철 및 냉선 등의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2000년 4월 18일 본격 가동했다. 광양 5고로 가동으로 광양제철소는 고로 5기 조업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기존 고로의 수명연장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다. 2001년 1월 30일에는 포항제철소에 파이넥스 데모 플랜트를 착공해 차세대 혁신 제철공정인 파이넥스 상용화에 한걸음 다가섰다. 파이넥스 데모 플랜트는 연산 60만 톤 규모로 2003년 5월 29일 준공됐다.



01

- 01 포항제철은 2000년 4월 18일 광양 5고로에 화입했다. 광양 5고로는 소결공장과 코크스공장을 추가로 건설하지 않고도 가동할 수 있는 기술적인 성과를 거둔 고로였다.
- 02 포항제철은 1992년부터 10년 동안 파이넥스 기초연구를 수행하면서 하루 15톤 규모의 모델 플랜트공정 개념을 정립, 하루 150톤 규모의 파일럿 플랜트 시험조업 등을 통해 기술적 타당성과 조업·설비 면의 신뢰성을 연구해왔다. 이러한 연구 끝에 파이넥스 기술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2001년 1월 30일 포항제철소에 연산 60만 톤 규모의 데모 플랜트를 착공해 2003년 5월 29일 준공했다. 사진은 준공된 파이넥스 데모 플랜트.



02

| 05 | 신일본제철과 전략적 제휴

포항제철은 민영화를 앞두고 통합과 대형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던 서구 철강업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1998년 11월 신일본제철(NSC)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신일본제철과 상호 주식을 취득, 보유하면서 기술협력부문, 설비공급부문, 조업·건설·엔지니어링부문 등에서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해 서로의 주식 0.1%를 매입했다. 이어 2000년 8월 2일 상호 지분보유 한도를 포항제철의 동일한 지분보유 한도인 3%까지 늘리기로 하는 전략적 제휴를 체결함으로써 상호협력체제를 강화했다. 포항제철은 1999년 12월 SK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신세기통신 지분 51.19%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SK텔레콤 지분 6.5%를 확보하기도 했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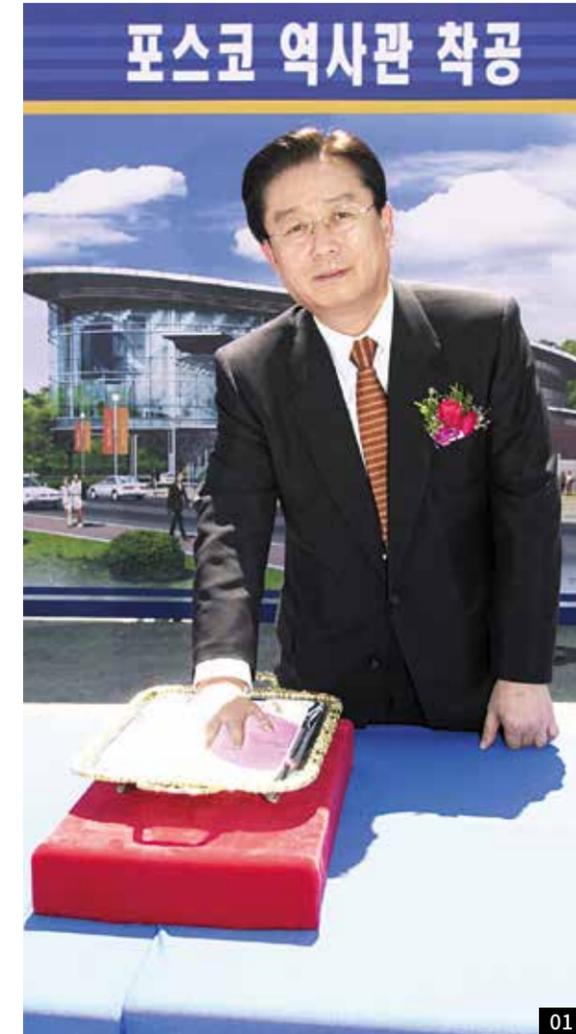
02

01 포항제철은 2000년 8월 2일 신일본제철과 전략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합의를 이끌어내고 약수를 나누는 유상부 회장과 신일본제철의 지하야 아키라 사장.

02 1999년 12월 21일 포항제철과 SK의 전략적 제휴 조인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상부 회장과 손길승 회장이 약수를 하고 있다.

| 06 | 포스코역사관 건립

포항제철은 단기간에 세계적 철강기업으로 성장한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1999년부터 역사관 건립을 추진해 2001년 7월 3일 포항제철소 홍보센터 인근 부지에 포스코역사관을 착공, 2003년 7월 3일 개관했다. 포스코역사관은 철과 유리로 설계됐으며, 창립 전사, 포항제철 발전사, 세계 속의 포항제철, 미디어로 본 포항제철, 포항제철을 만들어온 사람들 등 다양한 전시 콘텐츠로 구성됐다. 특히 포항제철소 건설 초기의 건설사무소(롬멜하우스)를 실물 그대로 복원해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01



02



03

01 2001년 7월 3일 포스코역사관 착공식이 개최됐다. 착공식은 포항제철의 역사가 수많은 포항제철인의 손길로 이뤄졌음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시삽 대신 핸드프린팅으로 진행됐다.

02 포스코역사관은 착공 2년 후인 2003년 7월 3일 개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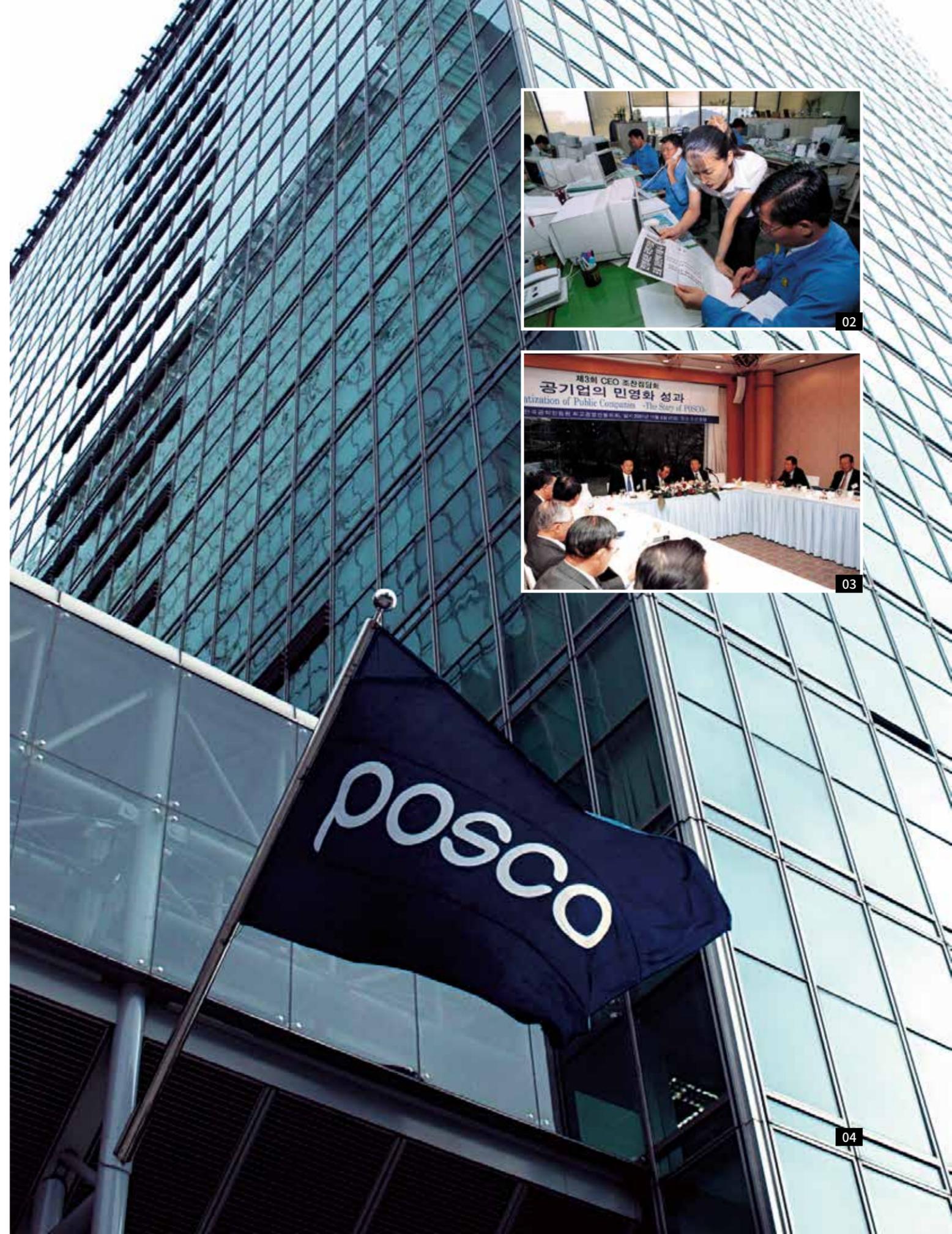
03 포스코역사관은 국내 최초의 용광로에 불을 지핀 화입봉, 롬멜하우스, 부실공사로 폭파 해체한 포항 3고로 기초 콘크리트 파편, 초기 제복, 각종 기념물 등 400여 점의 사료를 전시하고 있다.

| 07 | 민영 포스코 출범

1998년 7월 3일 정부가 포항제철을 포함한 11개 공기업의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포항제철은 완전 민영화를 위한 닳을 올렸다. 본격 추진은 1998년 12월 14일 정부 지분 3.14% 전량과 한국산업은행 지분 23.57% 중 2.73%를 DR로 매각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순차적으로 한국산업은행 지분 매각을 추진해 2000년 9월 29일 한국산업은행 지분 4.6%를 DR로 매각했다. 10월 4일에는 나머지 2.24%를 포항제철이 자사주로 매입했다. 이로써 정부는 3년에 걸친 민영화 작업을 완료했다. 이때부터 포항제철은 '민영 포스코'로 새롭게 출발, 고객과 주주 중심의 경영을 펼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02년 3월 15일에는 사명을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포스코(POSCO)'로 변경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재도약 의지를 대외에 천명했다.



- 01 유상부 회장이 2001년 2월 7일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진행된 민영 기업 후 첫 CEO 정례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 02 민영화는 직원들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사진은 1998년 7월 4일 민영화 관련 포스코신문 호위를 보고 있는 직원들.
- 03 2001년 11월 8일 제3회 CEO 조찬간담회에서 유상부 회장이 포항제철의 민영화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 04 민영화 이후 사명을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포스코(POSCO)'로 변경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재도약한다는 각오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 08 | 글로벌 경쟁력 향상

포스코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국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1996년 11월 장가항포항강판유한공사를 설립한 데 이어 1997년 2월에는 중국 스테인리스시장 확보를 위해 장가항포항불수강유한공사를 설립했다. 동남아 및 남미 시장 공략도 추진했다. 1997년 3월 인도네시아 현지 크라카타우스틸과 합작으로 미니밀공장과 스테인리스 냉연관판 합작사업을 추진했으며, 조업용 원료확보를 위해 1998년 11월 브라질의 CVRD와 합작으로 브라질 빅토리아시에 펠릿공장을 준공했다. 2002년 4월에는 호주 서부 지역의 포스맥 광산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BHP빌리톤과 계약을 체결하고 포스코 최초로 철광산 개발 투자를 단행했다. 또 2003년 1월 10일 일본 미쓰이물산과 CTS 사업에 관한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23일 포스코터미날을 설립해 천혜의 항만조건을 갖춘 광양 CTS를 동아시아의 물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갔다. 한편으로는 동남아시아 금융시장 불안과 세계경기 동반침체 여파로 도래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투자사업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인도네시아 미니밀 사업과 스테인리스 냉연사업을 1999년 6월 중단했으며, 1997년 베네수엘라에 합작 설립한 포스벤은 2002년 11월 최종적으로 청산을 결정했다.



01



02



03



04

- 01 포스코는 2002년 4월 3일 호주 서부지역의 포스맥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 호주 BHP빌리톤(BHP Billiton)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연간 철광석 생산량의 7%에 해당하는 300만 톤을 25년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 02 1990년대 초 진출한 베트남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2년 8월 30일 베트남 국영 철강사와 기술협력에 합의했다.

- 03 2002년 10월 9일 중국 칭다오강철과 스테인리스 냉연사업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산둥 및 화베이 지역의 스테인리스강 사업을 강화했다.
- 04 광양 CTS를 동아시아의 물류 중심지지로 육성하기 위해 포스코는 2003년 1월 10일 미쓰이물산과 CTS합작계약을 체결하고 23일 포스코터미날을 설립했다.

| 09 | 자동차강판시장 공략 시동

포스코는 2002년 자동차강판을 전략제품으로 선정하고, 광양제철소를 세계 최고의 자동차강판 생산 전문 제철소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3년 1월 21일 광양제철소에 자동차용 강재의 가공기술을 전담개발하는 자동차강재 가공연구센터를 준공했다. 자동차강재 가공연구센터는 연구동과 실험동을 갖추고 자동차용 강재를 개발함은 물론, 고객의 라인에 적합한 강재를 선정해주고, 강재 가공기술까지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주요 자동차 제조사에서 채용을 확대하고 있던 맞춤형단용 접강판(TWB)을 생산하기 위해 광양제철소에 연산 170만 장 규모의 TWB공장도 준공했다.



01



02



03

- 01 2002년 6월 14일 광양제철소에서 TWB공장 착공식이 개최됐다.
- 02 2003년 1월 21일 자동차강재 가공연구센터 준공식 후 이구택 사장 등 주요 임원이 연구센터를 둘러보았다.
- 03 포스코가 2002년까지 자동차 고객사에 지원한 기술은 차량설계 단계에서 철강소재 소개, 시험물성 자료 제공, 소재 공급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자동차강재 가공연구센터를 준공하면서 강재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자동차 고객사와 새로운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 01 윤리를 제일의 가치로
- 02 글로벌 생산 및 네트워크 강화
- 03 혁신의 체질화
- 04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 05 자동차강판 전문제철소 지향
- 06 고유기술체제 확립
- 07 함께하는 포스코
- 08 신사업 발굴

포스코는 2000년대를 남다른 기대와 각오로 맞이했다. 4반세기에 걸친 건설 대역사를 끝내고, 민영화와 P1을 통해 선진 경영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바탕 위에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해야 할 시대적 과제와 마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2003년 3월 14일 이구택 회장이 취임했다.

포스코는 '신뢰받는 21세기 글로벌 기업'을 새로운 경영목표로 정하고 정도경영에 의한 투명한 기업관리, 지속적인 성장 추구, 혁신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 인재중시의 경영, 이해관계자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5대 경영정책으로 확립했다. 특히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2004년 5월에는 '지속가능경영'을 글로벌 경영이념으로 채택하고 기업문화의 근간으로 삼았다.

민영화를 계기로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배구조 선진화에도 속도를 붙였다. 2004년 3월 사외이사 비중 확대, 집중투표제 및 서면투표제 도입,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기업지배구조의 이념과 원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포스코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확정, 실천의지를 더욱 높였다. 2006년 2월에는 CEO(대표이사 회장)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CEO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을 도입함으로써 지배구조 선진화를 또 한걸음 진전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포스코는 대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앞서 포스코는 2003년 11월 글로벌 도약을 위한 사업전략으로 성장과 혁신을 키워드로 한 중기경영전략(2004~2008)을 추진했다.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성장동인을 확보해 21세기 철강 대경쟁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로드맵이었다. 이를 위해 철강본업 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개척과 신사업 발굴 등 성장엔진 확보, 리더인력 육성과 경영혁신 지속 등 3대 전략방향을 중심으로 12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갔다. 철강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전략제품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용 강판, API강재, 스테인리스 400계, 고급 전기강판을 4대 전략제품으로 선정하고,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했다. 2004년에는 기존 전략제품에 고급 고탄소 강재, 선급 TMCP 강재, 고급 타이어코드 강재, Cr-Free 표면처리 강재를 포함시켜 8대 전략제품으로 확대했다. 전략제품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대응해 고급 스테인리스, 고급 선재, 고기능 열연제품, 고기능 냉연제품으로 확대 개편했지만, 고부가가치 전략제품 집중육성이라는 기조는 유지했다.

포스코는 철강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 기술개발, 생산부문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성과를 이뤘다. 설비 증설과 합리화 등 국내외 투자는 자동차강판 등 냉연제품과 스테인리스 제품 등에 초점을 맞췄고, 마케팅부문은 국내 수요처 개발은 물론 해외거점인 SCM기지를 지속적으로 신설해 중국, 동남아, 일본, 인도, 멕시코, 동유럽 지역을 연결하는 글로벌 자동차강판 및 전략 제품 판매 인프라를 형성했다. 연구개발부문은 신제품과 이용기술 개발은 물론 EVI(Early Vendor Involvement) 활동을 강화해 고객 밀착형 마케팅을 뒷받침했고, 생산부문은 고급강 생산기술 확립과 신설설비 조기안정화 추진 등 각 부문에 걸친 전사적인 노력을 전개했다.

설비투자도 확대해 2007년 11월 광양 3고로 개수를 기점으로 포항제철소 1370만 톤, 광양 제철소 1740만 톤 등 조강 3100만 톤 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조강규모 확대는 단순히 양적인 증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전략제품 양산체제 확립 전략과 연결시켜 국내외 수요산업의 고도화 등 시장상황의 변화에 대응한 생산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를 통해 포스코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강판 공급사의 위상을 확보했고, 스테인리스 제품도 세계 3위 메이커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고급 API강재는 메인스트림인 북미시장 진출을 가속화했고, 전기강판은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 최대의 초광폭 제품을 양산하기에 이르렀다.

성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조직 운용도 다양하게 시도했다. 2003년 제품별로 판매, 기술개발, 연구, 생산부문을 하나로 연결해 고객지향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설비투자가 이뤄지도록 기능별 조직을 유지하면서 사업부제의 장점을 살린 섹터제를 시범 도입했다. 섹터제가 성과를 나타냄에 따라 2004년 스테인리스사업부문을 독립시켰고, 2005년에는 섹터제를 탄소강 관련 전 부서로 확대했다. 2006년에는 기존 1사 2소의 기능식 조직을 기획재무, 경영지원, 마케팅, 생산기술, 스테인리스부문 등 5개 부문으로 개편하고, 각 부문장이 해당 부문을 책임경영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2008년에는 각 부문 내 단위 조직이던 '팀' 대신 대(大)팀 개념의 '그룹'을 조직운영의 근간으로 도입하고, 부문 간 유사 기능 및 팀 조직 통폐합을 통해 조직과 인력의 슬림화를 추진했다.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고유 혁신기술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했다. 특히 오랜 연구개발을 거쳐, 2007년 5월에는 세계 최초로 파이넥스 상용설비를 준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선진 철강사들이 모두 실패했던 신제철공법 중 파이넥스공법을 포스코가 성공시킴으로써 세계 철강기술사의 새로운 장을 연 것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혁신 철강기술인 스트립캐스팅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해 2006년 6월 데모 플랜트를 준공한 데 이어 2007년 9월에는 정상조업도를 달성함으로써 상용화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이와 함께 전략적 기반기술인 초세립강 제조기술도 상용화 단계까지 진전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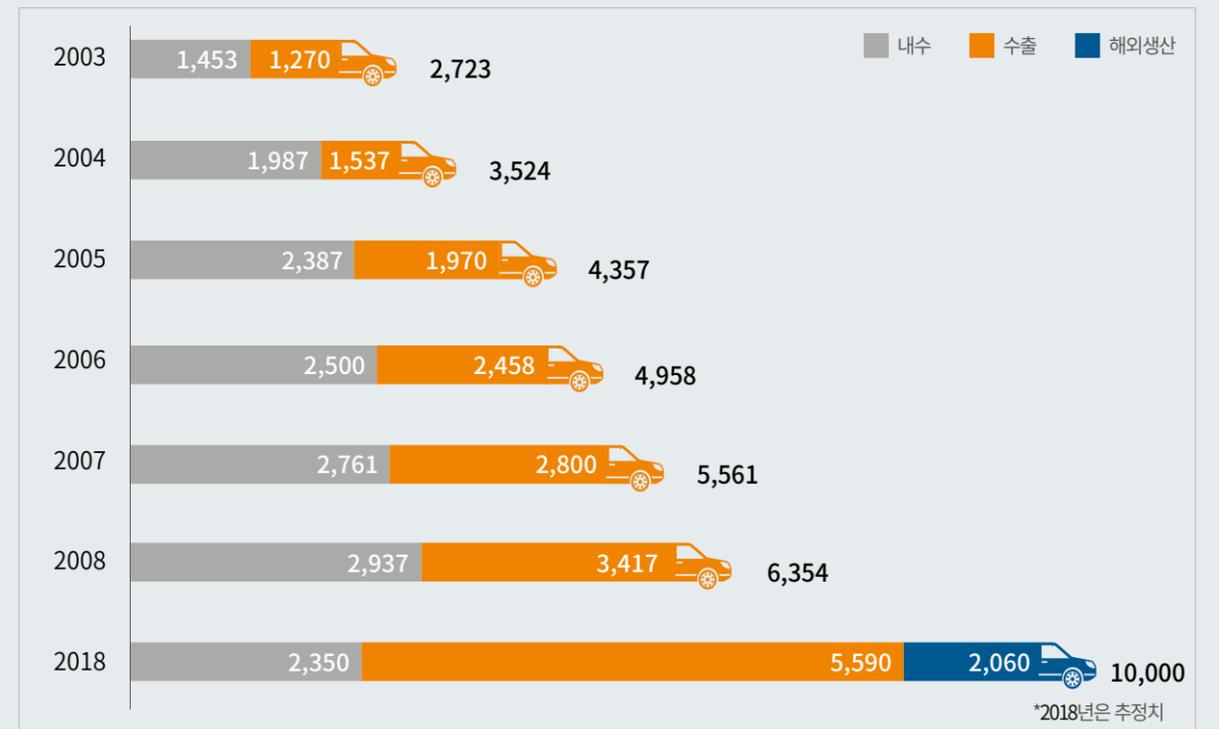
해외투자사업과 고유기술기반 신사업에서도 신성장동력을 모색했다. 당시 세계 철강소비

시장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03년 3월 중국본부를 신설했고, 11월 포스코차이나(POSCO-China)를 출범시켜 현지경영체제를 구축했다. 2005년 인도 오리사주에 일관제 철소 건설을 추진했고, 2009년 베트남 냉연공장 준공을 통해 글로벌 생산판매 기반을 확장해 나갔다. 이 밖에도 안정적인 원료확보를 위해 원료투자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신사업으로 에너지 및 소재, 해외 자원개발, 친환경 연료부문에 집중 투자했다.

2007년 3월에는 'Creating Another Success Story-Beyond Here, Beyond Now'를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하고, 임직원 모두가 공유하고 따라야 할 가치판단과 행동기준으로 '고객지향, 도전 추구, 실행중시, 인간존중, 윤리준수' 등 5대 핵심가치도 제정했다. 이는 '제철보국'의 창업정신을 새로운 성공신화 창조로 이어가기 위해 초일류기업에 걸맞은 포스코 고유의 일하는 방식과 기업 문화를 '글로벌 포스코웨이(Global POSCO Way)'로 정립하기 위함이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2008년 4월에는 중장기 계획으로 '비전 2018'을 선포하고, 성장과 수익, 안정과 지속성을 고루 갖춘 뉴 포스코(New POSCO) 실현을 다짐했다.

자동차강판 생산능력 변화

(단위:천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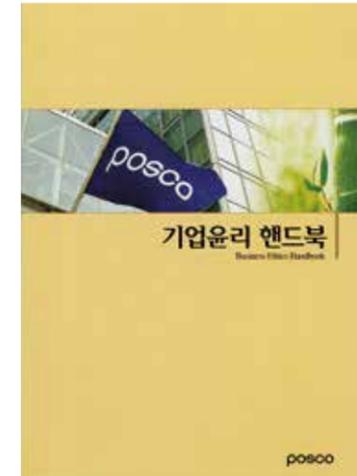


| 01 | 윤리를 제일의 가치로

포스코는 2003년 6월 2일 윤리규범을 선포했다. 이는 1993년 7월 국내 기업 최초로 윤리강령을 제정한 이후 기업활동의 최우선 가치로서 윤리를 다시 한번 천명하며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활동을 펼칠 것을 결의한 것이다. 이를 통해 회사의 기본 책무를 비롯해 고객 및 거래처,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국가와 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윤리적 가치 판단기준과 원칙을 규정,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행동 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다양한 윤리실천 인프라를 마련해 윤리경영이 회사의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2003년 7월 설치한 기업윤리상담센터와 함께 8월 국내 기업 최초로 선물반송센터를 운영해 명절 기간 이해관계자 간 선물 안주고 안받기를 기업문화로 정착시켜 나갔다. 2004년부터는 거래처와의 계약서에 윤리실천 특별약관을 필수적으로 첨부하고, 이해관계자 대상의 윤리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윤리경영 실천범위를 확대했다.



01



02



03



04

- 01 2003년 6월 2일 포스코는 윤리규범을 선포하고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결의했다. 이구택 회장과 채상준 근로자위원 대표가 윤리규범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 02 포스코는 2003년 7월 1일 <기업윤리 핸드북>을 발간하고, 임직원의 윤리규범 실천을 독려했다.
- 03 추석 명절을 맞아 2003년 8월 25일부터 9월 17일까지 선물반송센터를 운영하며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했다. 포스코는 이후 매년 선물반송센터를 운영하며 윤리경영을 실천했다.
- 04 윤리경영을 선포한 포스코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윤리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윤리경영 실천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했다. 사진은 2004년 2월 18일 진행된 부패방지전문가 교육.

02 | 글로벌 생산 및 네트워크 강화

포스코는 세계 철강소비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더욱 확대했다. 2003년 11월 7일 포스코차이나를 설립하고, 중국 현지경영체제를 구축했다. 또 2004년 6월 본강 포항냉연박판 합작설립에 이어 2006년 11월 중국 내 외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장가항포항불수강의 스테인리스 일관생산설비를 준공했으며, 2007년 2월 중월포항(진황도)마구철을 합작설립했다. 가공센터 설립도 본격화해 고객 서비스와 물류경쟁력을 강화했다. 2004년 10월에는 도쿄지점과 PIO를 통합해 포스코재팬(POSCO-Japan)을 출범시켜, 일본 내 지역본사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인도와 베트남 등 성장지역에 대한 투자도 이어갔다. 2005년부터 인도 일관제철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8월 포스코인디아(POSCO-India)를 출범시켰다. 2006년에는 인도-중국을 연계한 아시아 지역의 네트워크 구축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포스코베트남(POSCO-Vietnam)을 설립하고, 2007년 8월 냉연공장 건설에 들어갔다.



01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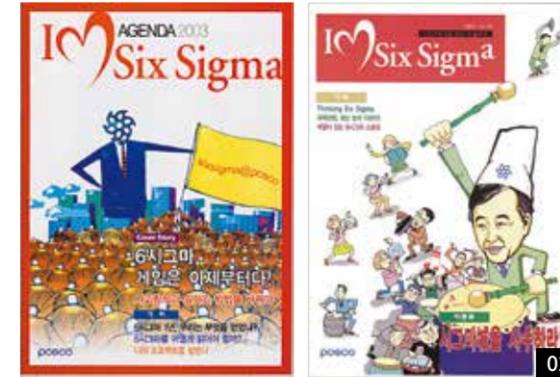


04

- 01 포스코는 2003년 11월 7일 중국 투자법인에 대한 마케팅과 투자사업 을 직접 주도할 포스코차이나를 출범시켰다.
- 02 2004년 10월 15일 기존의 도쿄지점과 현지 판매법인인 PIO의 업무를 승계하는 포스코재팬을 출범시켰다.
- 03 2006년 11월 22일 장가항포항불수강 스테인리스 일관생산설비 종합 준공식이 개최됐다. 사진은 준공식 전날 개최된 원료공급사 초청 간담회.
- 04 2007년 8월 1일 포스코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시장 선점을 위한 중추적인 공장이 될 포스코베트남 냉연공장을 착공했다.

| 03 | 혁신의 체질화

포스코는 2002년 5월 6시그마 활동을 시작해 2003년 4월까지 진행한 1~2차 웨이브를 도입단계로, 2003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진행한 3~5차 웨이브는 확산단계로, 2005년 이후 진행은 체질화단계로 나눠 전개했다. 정교한 방법론과 과학적인 프로세스에 근거한 6시그마 활동을 통해 혁신의 체질화를 이뤄 나갔다. 국내외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제조부문에 먼저 시작해 비제조부와 R&D부문에 6시그마를 확산시켰던 것과 달리, 과감하게 전 부문에서 동시 추진함으로써 ‘제품 품질’이 아니라 ‘경영 품질’을 향상시키는 혁신 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켰다. 특히 7차 웨이브 시기인 2005년 9월부터는 큰 문제는 전통적인 6시그마로, 작은 문제는 QSS(Quick Six Sigma)로 해결하는 포스코형 6시그마(PSSM : Posco Six Sigma Model)를 시범 추진했다. 이후 2006년 8월 11일 3기 혁신 1차 무브(Move) 출범식에서 포스코형 6시그마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하고 경영혁신을 가속화했다.



- 01 2005년 8월 29일 이구택 회장은 포스코형 6시그마 현장 파일럿 과제 수행자 22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02 포스코는 6시그마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케이션 책자 <I Love Six Sigma>를 발행했다.
- 03 2003년 10월 24일 제2회 6시그마 페스티벌에서 포스코 최초의 블랙 벨트 요원 70명이 탄생했다.



| 04 |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포스코는 2004년 3월 12일 열린 제36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구성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집중투표제 및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사항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60%로 높여 이사회의 독립성과 주주권익을 강화했다.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도 신설했다. 포스코는 같은 날 열린 이사회에서 이러한 지배구조의 이념과 원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확정했다. 기업지배구조 헌장은 전문경영진에 의한 자율책임경영,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이사회 의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균형,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06년 2월 24일 제38기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 의장과 경영진을 대표하는 CEO를 분리 선임하는 정관 개정안을 확정해 기업지배구조를 더욱 선진화시켰다.

- 01 포스코는 2004년 3월 12일 개최된 제36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구성 비중 확대, 집중·서면투표제 도입,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항들을 의결했다.
- 02 2004년 3월 12일 개최된 이사회는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하고 사외이사 비중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상임이사와 사외이사의 비율이 7대 8에서 6대 9로 조정됐다.



01



02

05 | 자동차강판 전문제철소 지향

포스코는 자동차용 고강도 제품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CGL공장을 잇달아 증설했다. 2005년 9월 연산 45만 톤 규모의 5CGL을 준공해 GA 및 GI형 첨단 고강도강(AHSS)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2006년 6월에는 연산 40만 톤 규모의 6CGL을 준공, 용융아연도금강판 210만 톤을 포함해 자동차강판 연산 650만 톤 생산체제를 구축해 생산규모에서 세계 2위로 부상했다. 이를 계기로 광양제철소는 7월 '글로벌 No.1 자동차강판 전문제철소 완성'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포스코가 세계 최고 글로벌 자동차강판 공급사로 거듭나는 기반이 될 것을 다짐했다. 8월 23일에는 TWB공장을 종합 준공해 고객이 요구하는 어떠한 사양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0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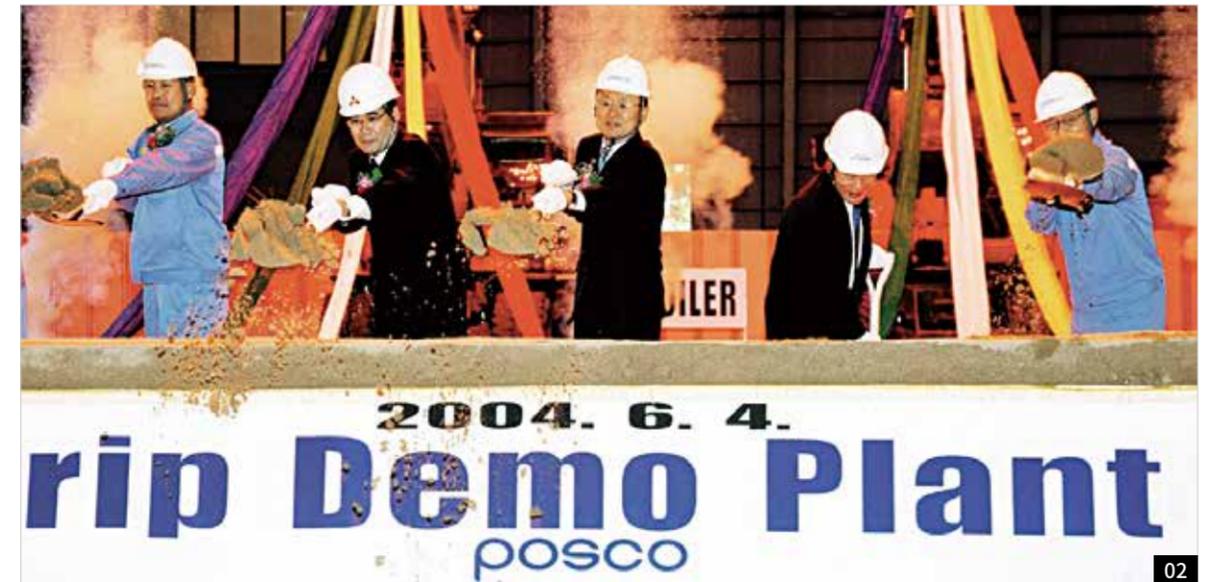
03

- 01 광양제철소는 2006년 7월 4일 '글로벌 No.1 자동차강판 전문제철소 완성'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세계 자동차강판 시장을 선점하는 초일류 제철소가 되기 위한 힘찬 비상을 시작했다.
- 02 2005년 9월 2일 연산 45만 톤 규모의 광양 5CGL공장을 준공했다. 사진은 5CGL 내부.
- 03 포스코는 2006년 6월 30일 광양 6CGL공장을 준공하고, 자동차강판 연산 650만 톤 체제를 구축했다. 이로써 포스코는 자동차강판 생산규모 면에서 세계 2위로 부상했다.

2000년대 들어 세계 철강산업에서 급속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중국 등 후발 철강국가들이 기술개발에 나서면서 포스코를 둘러싼 경영환경은 급격히 변화했다. 이에 대응해 포스코는 파이넥스, 스트립캐스팅 등 고유 혁신기술 상용화에 박차를 가했다. 2003년 5월 포항에 연산 60만 톤 규모의 파이넥스 데모 플랜트를 준공한 데 이어 2004년 8월 연산 150만 톤 규모의 상용설비를 착공해 2007년 5월 준공했다. 1992년부터 5000억 원 이상의 R&D 투자를 통해 15년 만에 거둔 쾌거였다. 세계 최초로 파이넥스 상용설비를 성공적으로 가동하면서 포스코는 철강제조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며 글로벌 철강기술 리더십을 확보했다. 또 하나의 혁신 철강기술인 스트립캐스팅 상용화는 2004년 6월 포항에 연산 60만 톤 규모의 스트립캐스팅 데모 플랜트를 착공한 후 2006년 준공하면서 본격화됐다. 7월에는 포항 2열연공장 신예화 사업과 병행해 연연속설비를 준공하고, 세계 최초로 전단변형 접합방식을 적용한 연연속 열연 조업에 성공했다. 이후 2007년 6월 정상조업도를 달성하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했다.



01



02



03

- 01 포스코는 2007년 5월 30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연산 150만 톤 규모의 파이넥스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파이넥스 준공은 '영일만에서 철강산업의 불을 지핀 지 40년 만에 세계 철강사를 새롭게 쓰는 쾌거'라고 강조했다.
- 02 2004년 6월 4일 포스코는 새로운 철강주조기술인 스트립캐스팅 공정의 상용화 기술 개발을 위한 포스트립(poStrip) 데모 플랜트를 착공했다.
- 03 포스코가 완성한 파이넥스 기술로 우리나라는 독자적 제철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 07 | 함께하는 포스코

포스코는 2003년 5월 29일 한층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사랑의 손길, 희망의 나눔'을 모토로 포스코봉사단을 창단했다. 이를 통해 포스코는 이웃돕기, 의료봉사, 농촌일손돕기 및 농산물 사주기, 도로보수 및 식수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전개하며 포항과 광양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사업에도 적극 참여했다. 포스코는 2005년 6월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발족한 데 이어, 2008년 11월에는 상생협력실천사무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동반성장과 상생경영을 강화했다. 2005년 9월에는 사회공헌사업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포스코장학회를 발전시킨 포스코청암재단을 출범시켰다.



01



02



03



04



05

- 01 2004년 3월 6일 개최된 아름다운 가게 '포스코데이'.
- 02 2003년 5월 29일 포스코는 '사랑의 손길, 희망의 나눔'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포스코봉사단을 창단했다. 포스코봉사단 창단으로 지역사회 위주로 수행해 오던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의 각 분야로 확대하면서 활동 내용과 방식을 체계화했다.
- 03 자매마을 의료봉사활동.
- 04 포스코청암재단은 2005년 9월 8일 이사회를 열고 '중장기 공헌사업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사진은 포스코청암재단 초대 이사진.
- 05 2007년 6월 27일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펼칠 포스코 대학생봉사단 발대식이 진행됐다. 봉사단원은 40여 개 대학에서 선발됐다.

포스코는 철강에서 쌓은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비철강 분야 신사업 발굴을 모색했다. 에너지 및 소재, 친환경연료 등 지속가능경영에 부합하는 범포스코 차원의 동반성장 엔진 발굴에 주력했다. 스테인리스사업의 원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6년 5월 니켈 제련회사인 SNNC를 합작 설립하고 2007년 5월 페로니켈공장 건설에 착공해 2008년 11월 3일 준공했다. 2007년 7월에는 순천 해룡산업단지 내에 연산 3000톤 규모의 마그네슘 판재공장을 준공했다. 마그네슘 판재는 철강 판재류에 비해 가격은 약 8배 수준이나 무게는 철강재의 25%, 알루미늄의 70% 수준의 아주 가벼운 금속소재로 각광받았다.



01



02

- 01 포스코가 국내 최초로 해외에서 직접 니켈광석을 들여와 제련하는 페로니켈공장을 준공했다. 2008년 11월 3일 준공한 SNNC 페로니켈공장의 생산량은 포스코가 매년 스테인리스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물량의 절반인 3만 톤에 달한다. 사진은 2008년 10월 19일 1기 전기로 첫 출선 장면.
- 02 2007년 7월 27일 포스코는 순천 해룡산업단지에 마그네슘 판재공장을 준공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연산 3000톤 규모의 마그네슘 판재공장은 일관생산설비로, 설비집중과 물류통합 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
- 03 순천 마그네슘 판재공장 전경.



03

- 01 녹색성장 추진
- 02 세계 최대 규모, 최고 경쟁력 추구
- 03 창의적 기업문화 혁신
- 04 EVI 활동 본격화
- 05 사업영역 확장
- 06 패밀리 차원 기술혁신 적극 추진
- 07 사랑받는 기업, 포스코
- 08 글로벌 생산기지 확대

박태준 명예회장 영면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단지 미국에 국한된 것도, 금융산업에 국한된 것도 아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를 강타해 포스코도 성장위주 전략에 대한 일부 수정이 불가피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세계 각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위기를 빠르게 극복했으며, 포스코 역시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룹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갔다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2009년 2월 27일, 정준양 회장이 취임했다. 정준양 회장은 ‘열린경영, 창조경영, 환경경영’을 새로운 경영이념으로 제시했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원회의를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고, 회사 및 그룹사의 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조직 역량을 배가해 나갔다. 4월 창립기념식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전 그룹사가 힘을 합쳐 극복하고 비전 2018을 실현하자라는 의지를 담아 ‘10대 전략, 100대 실행 과제’를 발표하고,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업(業)의 진화, 장(場)의 확대, 동(動)의 혁신’(이하 업장동 전략)을 제시했다.

업장동 전략은 포스코가 창업단계, 수성단계를 지나 ‘포스코 3.0’ 시대에 접어든 만큼 이에 걸맞게 사업영역, 사업범위, 일하는 방식을 모두 새롭게 함으로써 100년 기업의 기반을 다져 나간다는 의미였다. 즉 기존 철강 중심에서 소재·녹색·해양 등의 신사업과 그룹사 중심의 건설·ICT·에너지 등으로 업의 범위를 진화시키고, 사업활동 무대를 국내 중심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며, 그룹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섭형 창의적 인재를 확보하고, 다양성이 바탕이 된 개방적 문화를 창출한다는 것이었다. 2010년에는 직원들을 초우량 기업에 걸맞은 통섭형 지식근로자로 성장시켜 개인과 회사가 동반성장한다는 ‘인(人)의 성장’ 개념이 추가됐다.

포스코는 그룹 통합경영인 ‘포스코패밀리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사업장까지 모두 아우르는 ‘원(One) 포스코’ 구축을 지향해 나갔다. 이를 위해 단일 브랜드 전략을 도입한 브랜드 경영을 추진해 2010년 4월에는 패밀리 차원의 브랜드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그룹사도 ‘포스코’라는 통합 브랜드로 묶어 냈다. 5월에는 그룹 통합 CI를 도입해 포스코와 그룹사가 일관된 디자인 체계를 적용해 단일 브랜드의 ‘원 포스코’ 이미지를 구축해 나갔다. 시스템 인프라 측면에서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포스코패밀리의 경영전략과 업무 프로세스,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포스피아(POSPIA) 3.0 구축을 추진해 나갔고, 2012년 12월에는 그 일부로서 포스코 고유의 일하

는 방식과 연계한 스마트워크플레이스(SWP) 시스템을 가동했다.

구체적인 사업영역에서는 변화하는 경영환경, 새로운 경영전략을 반영해 사업부문을 철강, 종합소재, 에너지 등 3대 핵심영역으로 확립했다. 철강부문에서는 철강본업을 바탕으로 한 경쟁우위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국내 조강 생산 4000만 톤 체제 확립과 고부가가치 제품 양산을 위한 설비투자에 집중했다. 2009년 7월 광양 4고로를 개수해 세계 최초의 연 500만 톤, 세계 최대 규모인 일일 1만 4000톤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2011년에는 제품 고부가가치화의 일환으로 광양 후판공장을 준공해 세계 최대 초광폭 후판을 생산하고, 세계 최초로 200만 톤 규모의 파이넥스 3공장을 착공해 미래 성장기반을 공고히 했다. 치열한 철강시장 환경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생산체제뿐만 아니라 세계 최우수 제품을 개발하고 공정기술을 고도화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했다. 2009년 ‘궁극통 공정기술’ 제도를 도입한 이래 저가 연·원료 사용을 늘리는 등 141건의 고유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강판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 개발에 성공해 33개 신강종을 개발했다.

2009년 9월부터 생산 및 판매부문을 중심으로 고객사의 니즈를 파악해 고객 맞춤형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EM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글로벌 자동차사를 대상으로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전 제품에 대한 EM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서비스를 확대했다. 또한 해외지역에는 가공센터를 신설, 12개국 38개의 가공센터를 현지화함으로써 글로벌 통합마케팅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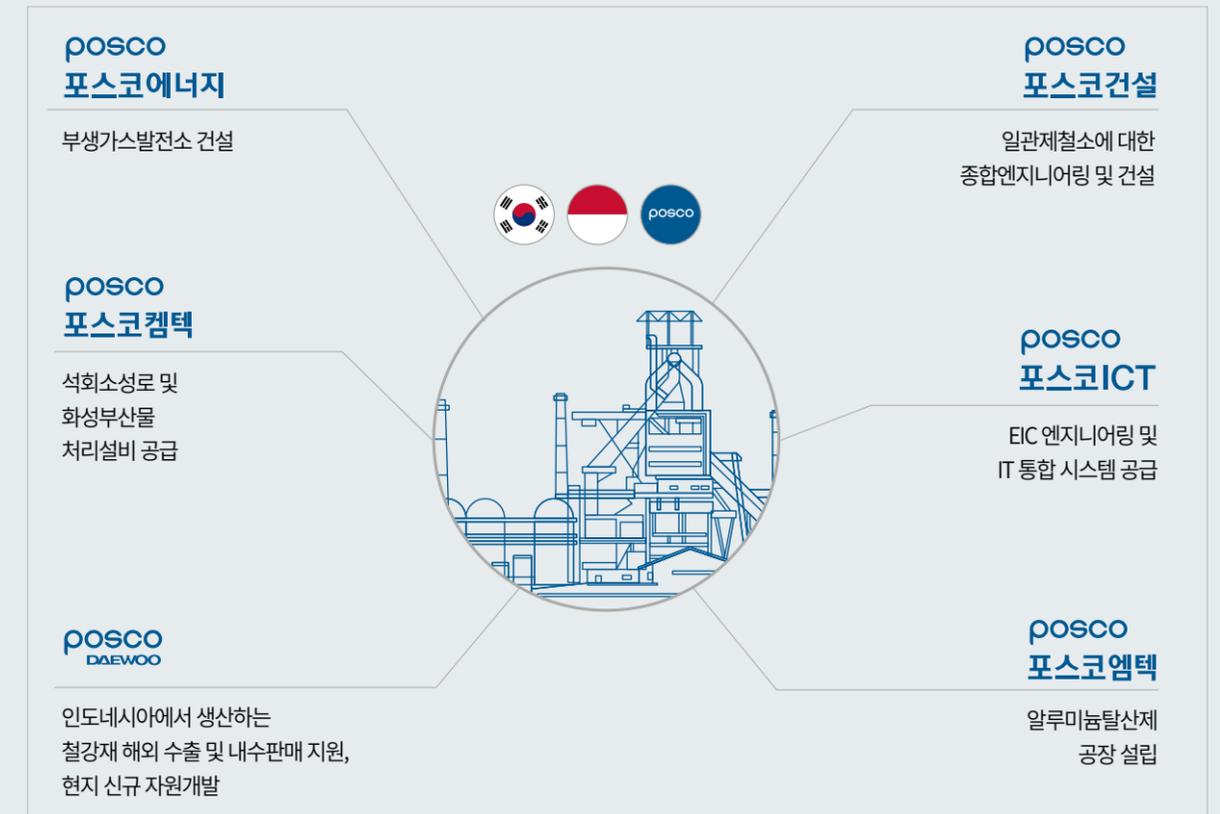
상공정 중심의 해외 신홍시장 투자사업도 활기를 띠어 2011년 6월 중국 장가항포항불수강에 외국기업 최초로 100만 톤 생산체제를 구축했고, 2013년 12월에는 동남아시아 지역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300만 톤 일관제철소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포스코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를 연결하는 철강벨트를 완성하고 동남아시아 철강시장을 확대해 나갔다. 한편 포스코는 철강벨트를 확대해 2011년에는 ‘U&I 글로벌 철강벨트’를 글로벌 시장 진출 로드맵으로 확립했다.

철강 이외의 사업부문으로는 저탄소 녹색산업, 해양산업, 소재산업을 중점 개척해 나갔다. 저탄소 녹색산업은 이차전지 양극재와 음극재,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소재 분야에서는 마그네슘·티타늄 판재사업, 리튬, 탄소, 실리콘 등을 비롯해 종합소재 메이커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특히 포스코는 철강, 종합소재, 에너지 등 사업군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되, 그룹사 간 유사한 분야는 통폐합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필요한 경우 M&A를 통해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갔다. 2010년 대우인터내셔널과 성진지오택을 인수해 해외시장 판매 네트워크와 E&C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원개발사업의 가능성을 확대했다. 사업군별 성장동력이 확보되면 이를 기반으로 사업군 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추진했다. 철강 분야의 수직계열화뿐 아니라 희유금속(Rare Metal) 확보와

신소재 개발, 원자력 발전설비 개발 및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패밀리 협업을 통한 통합형 사업 모델을 발굴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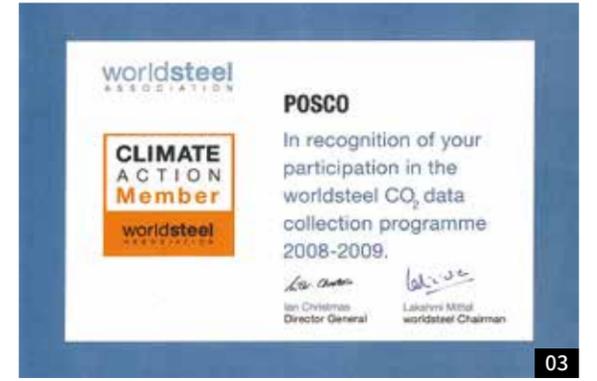
기업문화와 관련해 사회공헌활동을 패밀리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2009년 포스코패밀리 봉사단을 창단하고, 인재양성, 지역사회 봉사, 소외계층 자립지원,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등 나눔문화를 확산시켰다. 2011년 6월에는 지속가능경영을 더욱 구체화해 ‘사랑받는 기업’ 철학을 선포하고, 동반성장 추진과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동반성장을 패밀리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동반성장협의회를 운영하고, 포스코 고유의 성과공유 모델인 ‘FOCUS’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했다. 아울러 2013년 1월에는 사회공헌활동 3대 전략방향과 5대 중점영역을 설정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기반을 확보했다.

패밀리 통합경영체제 모델(KRAKATAU POSCO 사례)



01 | 녹색성장 추진

포스코는 2009년 2월 녹색성장추진사무국 신설에 이어 7월에는 범포스코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이윤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녹색성장을 추진했다. 에너지 고효율 철강재 보급과 철강 부산물의 자원화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그룹사와 함께 풍력발전사업, 연료전지 개발 및 국산화사업, 스마트그리드사업,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등 녹색성장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2011년 1월에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내 배출권 거래제 및 온실가스 감축 성과보상 제도를 시행했다. 2009년부터 대학생 홍보대사, 포스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후변화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3자 검증을 거친 탄소보고서(2014년부터 지속가능보고서로 통합)를 발간해 포스코의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 01 2009년 7월 7일 포스코는 주요 그룹사와 함께 녹색성장 추진과 환경경영 구현의 전략 수립 및 정책협의를 위한 '범포스코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날 위원회는 녹색성장 비전을 'Global Green Growth Leader'로 선정했다.
- 02 2009년 9월 25일 제1회 탄소중립 프로그램 발대식을 갖고, 참가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실천 아이디어를 선발하고,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참여형 공모전이다. 사진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광영중학교 과학탐구반.

- 03 2009년 10월 12일 세계철강협회로부터 기후변화 파트너 인증서를 받았다. 포스코는 2007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세계철강협회에 제출해 왔다.
- 04 포스코는 2010년 12월 27일 포스코패밀리 글로벌 환경경영을 선포하고, 그룹 차원에서 환경 리스크에 대응해 글로벌 선도기업의 위상에 걸맞은 그룹 통합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01



04

| 02 | 세계 최대 규모, 최고 경쟁력 추구

포스코는 2009년 7월 광양 4고로를 내용적 5500m³로, 2010년 10월에는 포항 4고로를 5600m³ 규모로 확대, 개수했다. 나아가 2013년 6월 광양 1고로를 세계 최대 규모인 6000m³ 규모로 재탄생시켰다. 2011년 3월에는 연산 200만 톤의 광양 후판공장을 준공, 700만 톤 생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최대 후판 생산능력을 갖춘 철강사로도 발돋움했다. 2013년 5월에는 포항 4선재공장을 준공해 고급 선재 생산에 돌입했고, 7월에는 포항 스테인리스 4제강공장을 준공함으로써 그동안 고철을 이용해 전기로에서 생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고로에서 생산된 용선을 이용해 400계 스테인리스강을 생산하게 됐다.



02



01



03

- 01 광양 후판공장은 2009년 9월 30일 세계 최대 규모의 조업연 하우징을 설치했다.
- 02 2009년 7월 21일 정준양 회장이 개수를 성공적으로 마친 광양 4고로에 화입했다. 건설 당시 국내 최대 규모였던 광양 4고로는 일일 출선량 1만 4000톤 이상으로 세계 최초로 단일 고로 연산 500만 톤 시대를 열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 03 2013년 6월 7일 광양 1고로는 내용적 6000m³ 규모의 세계 최대 고로로 재탄생했다.

| 03 | 창의적 기업문화 혁신

포스코는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비즈니스 3.0 시대를 맞아 직원들의 창의력 향상과 다른 기업들이 생각하지 못한 독점적인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한 기업문화 혁신에 힘을 쏟았다. 2009년 9월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포스코센터에 개관한 포레카(POREKA)는 창의력 증진 복합공간으로서 국내 최대인 총 1190㎡ 규모에 휴식(Refresh)·편(Fun)·스터디(Study) 공간으로 구분하고 휴식은 물론 다양한 놀이와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2011년 10월에는 20여 년간 계속 유지돼 온 제철소의 4조 3교대 근무체제를 4조 2교대로 전환했다. 직원만족도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치였다. 2011년부터 패밀리 및 해외 사업장을 원(One) 포스코로 통합하기 위해 포스피아 3.0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먼저 2012년 12월 포스코 고유의 일하는 방식을 시스템으로 구현한 SWP(Smart Work Place)시스템을 가동했다. 영상회의, 공동 문서작업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소통과 협업을 지원했으며,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일하는 방식의 글로벌 표준화를 강화했다.



01



02



03

01 놀이문화를 통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09년 9월 2일 포스코센터 내에 창의놀이방 포레카(POREKA)를 개관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창의놀이방 포레카는 휴식(Refresh)·편(Fun)·스터디(Study) 공간으로 구분돼 있어 이용자들이 휴식은 물론 다양한 놀이와 학습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02 2009년 12월 28일에는 포항과 광양 기술연구원에 포레카를 개관했다. 포레카는 1인 연구실·명상실로 꾸며진 창의마당, 토론과 화합의 공간으로 운영되는 토론마당, 다양한 게임과 휴식을 즐기는 재미마당으로 구성됐다. 사진은 포항 기술연구원의 포레카 내부.

03 포스코는 2011년 10월 17일부터 모든 과·공장에서 4조 2교대 근무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10월 12일 4조 2교대 시범운영 개소를 대상으로 본시행 전환투표(사진)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 94.4%가 나와 20년 동안 운영해온 4조 3교대 근무형태를 전면적으로 바꿨다.

| 04 | EVI 활동 본격화

포스코는 2000년 처음 도입한 EVI 활동을 보다 많은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2008년부터 2년마다 글로벌 EVI 포럼을 개최했다. EVI는 고객사의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포스코가 참여해 강재 적용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포스코와 고객사 간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2010년에는 글로벌 EVI 포럼을 자동차·가전·조선·에너지·건설·중장비 등 전 산업 고객사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제품의 기술력을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기술전시회도 글로벌 고객사가 있는 해외 현지에서 적극 개최했다. 2013년 4월 미국 자동차 빅3인 GM, 포드, 크라이슬러의 본사에서 기술전시회를 개최해 포스코의 자동차강판 기술력을 홍보했으며, 11월에는 중국 상하이GM에서 포스코 기술전시회를 열어 큰 호응을 받았다. 2011년 5월에는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양기술 박람회인 OTC(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에 패밀리사와 함께 통합 부스를 운영해 관련 업체들과 기술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02



01

- 01 포스코는 2009년 11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중국 광저우에서 자동차강판 EVI 포럼을 개최했다.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도약한 중국 현지에서 개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 02 포스코는 2008년 1월 29일과 31일 사흘에 걸쳐 제1회 글로벌 EVI 포럼을 개최했다. 포스코가 2000년대 이후 자동차강판 메이저 공급사로 성장한 것을 알리고, 글로벌 자동차사와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포럼에는 세계 100여 개 자동차 및 부품사 관계자 300여 명이 참가했다. 사진은 1월 30일 포럼에 참가한 글로벌 고객사 임직원들이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포스코의 차세대 강판 기술 강연을 듣고 있는 모습.
- 03 포스코는 2012년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된 세계 해양기술박람회(OTC)에 참가해 수요 개발 활동을 펼쳤다.
- 04 2013년 11월 7일 중국 상하이GM에서 열린 포스코 기술전시회. 방문객이 자동차용 소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03



04

| 05 | 사업영역 확장

포스코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009년 이후 저탄소 녹색사업과 해양사업으로의 사업영역 확대를 모색했다. 2012년 4월에는 '꿈과 희망, 소재와 에너지로 더 나은 세상을!'이라는 비전 2020 슬로건을 선포하고 그룹 차원에서 저탄소 에너지사업과 소재사업 강화에 나섰다. 에너지사업에서는 포스코건설이 2008년 12월 태기산 풍력발전단지를 준공했으며, 포스코ICT가 2009년 제주시의 스마트그리드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참여했다. 포스코켄텍과 포스코ESM이 이차전지사업에 진출했으며, 포스코파워(현 포스코에너지)가 2011년 3월 포항에 연료전지의 핵심설비인 스택(Stack) 제조공장을 준공했다. 소재사업에서는 친환경 차세대 핵심소재로 각광받는 리튬, 티타늄, 마그네슘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성장동력을 마련했다. 2010년 9월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대우)을 인수함으로써 해외 에너지 탐사 개발사업을 비롯한 신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01



02



03

- 01 포스코는 2010년 8월 30일 대우인터내셔널 공동매각협의회 대표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포스코는 대우인터내셔널의 해외자원 개발 능력과 중동 및 아프리카 등 미개척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해 놓은 글로벌 판매 채널을 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 02 2010년 1월 22일 포스데이타와 포스코의 합병법인인 포스코ICT가 출범식을 갖고 CI와 비전 등을 선포했다.

- 03 대우인터내셔널(2016년 3월 21일 포스코대우로 사명 변경)이 운영권을 갖고 있는 미얀마 가스전은 2013년 6월 22일 생산을 개시했다. 미얀마 가스전에서 생산한 가스는 미얀마는 물론 중국 윈난성, 구이저우성을 거쳐 최남단 광시 좡족(廣西壯族)자치구 등으로도 공급됐다.

| 06 | 패밀리 차원 기술혁신 적극 추진

포스코는 2010년 11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글로벌 R&D센터를 준공했다. 이 센터는 지상 15층의 레지던스홀을 비롯해 연구동, 러닝센터, 컨벤션센터, 실험동 2동 등 모두 6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R&D센터는 송도제품이용연구센터와 개방형혁신기술연구센터, 리더십센터의 기능을 갖추고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인근지역 중심의 철강기술 R&D 활동을 더욱 확장하고, 패밀리 차원에서 이종 분야의 융복합 기술혁신을 추진했다. 센터에는 RIST 강구조연구소를 비롯해 포스코건설 기술연구소 및 포스코 ICT 기술연구소 등이 입주해 포스코패밀리의 연구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수도권과 글로벌 기업·대학과의 산학연 R&D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차세대 융복합 혁신기술 개발을 선도했다.



01



02



03



04

- 01 포스코는 2010년 11월 4일 창조적 혁신활동과 이종 분야의 융복합 기술혁신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글로벌 R&D센터를 준공했다. 글로벌 R&D센터는 국제도시로 성장한 송도에 들어섰다.
- 02 성형실험동.
- 03 강구조실험동.
- 04 글로벌 R&D센터 전경.

| 07 | 사랑받는 기업, 포스코

포스코는 2009년 11월 포스코패밀리 차원의 사회공헌활동을 정립하고, 포스코패밀리봉사단을 창단했다. 2011년부터는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등 해외 진출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회공헌을 확산시켰다. 6월에는 '사랑받는 기업 현장'을 제정해 크고 강한 기업을 넘어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이후 2013년 1월 포스코는 '지역사회·글로벌 인재·지구 환경·다문화·문화유산' 등 5대 중점영역을 설정하고 더욱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대기업 최초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포스위드와 사회적기업인 포스에코하우징을 합병해 포스코휴먼스를 설립하고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앞장섰다. 11월에는 포스코1% 나눔재단을 설립해 임직원의 기부금과 회사의 매칭그랜트로 기금을 조성,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운동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01



02



03

- 01 포스위드와 포스에코하우징의 통합법인 포스코휴먼스가 2013년 1월 4일 공식 출범했다. 사회적기업 포스코휴먼스는 포스코그룹의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체계적이고 폭넓게 실천했다.
- 02 포스코는 2010년 8월 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포스코-기아대책 동남아 긴급구호센터를 개소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제작한 키트를 배송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현지에서 직접 키트를 제작, 보관, 배송하기 위해 긴급구호센터를 마련했다.

- 03 2013년 8월 8일 정기 이사회는 임직원의 급여 1%에 해당하는 나눔 기부액에 일대일 매칭그랜트로 기금을 출연하는 것과 자금 운영을 위한 1%나눔재단 설립안을 의결했다. 포스코뿐만 아니라 그룹사에서도 1%나눔활동에 적극 참여해 2013년 11월 18일 포스코1%나눔재단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첫 사업으로 태풍 하이옌으로 고통받는 필리핀 이재민들에게 30만 달러를 지원했다.

| 08 | 글로벌 생산기지 확대

포스코는 2011년 글로벌 시장 진출 로드맵으로 동유럽과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을 아우르는 'U'축과 북미와 중미, 남미를 연결하는 'I'축을 잇는 'U&I 글로벌 철강벨트'를 설정하고 글로벌 생산기지에 주력했다. 2009년 8월에는 멕시코 CGL공장 준공식을 갖고 해외에 처음으로 자동차강판 생산공장을 확보했다. 또 동남아시아 생산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9월 베트남의 ASC(Asian Stainless Company)를 인수해 POSCO-VST를 설립하고 2012년 2월 스테인리스 2냉연공장을 준공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 진출도 가속화해 2009년 3월 포스코마하라슈트라(POSCO-Maharashtra)를 설립하고 2012년 CGL공장, 2013년 전기강판공장을 준공했다. 2011년 3월에는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터키에 POSCO ASSAN TST를 설립해 2013년 8월 스테인리스 냉연공장을 준공, 유럽지역에 생산공장을 처음으로 확보했다. 중국에도 2012년 10월 광동포항기차판을 설립해 2013년 4월 CGL공장을 준공함으로써 중국 내 고급 자동차강판 수요에 대응했다. 인도네시아에는 2013년 12월 동남아시아 지역 최초의 일관제철소인 크라카타우포스코(KRAKATAU POSCO)를 본격 가동했다.



01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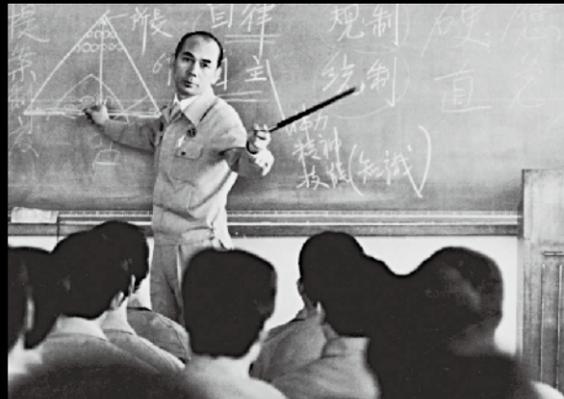
04

- 01 2013년 12월 23일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포스코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크라카타우포스코는 동남아시아의 첫 일관제철소이자, 포스코가 해외에 건설한 첫 일관제철소이다. 포스코는 2010년 8월 크라카타우포스코를 설립했고, 2010년 10월 부지공사를 시작한 뒤, 1단계 300만톤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 02 2009년 8월 6일 포스코 최초의 해외 자동차강판공장인 멕시코 CGL공장이 준공됐다. 멕시코 CGL공장은 연산 40만톤 규모이며, 준공식에는 정준양 회장과 멕시코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이 참석했다.
- 03 포스코가 2009년 10월 19일 베트남에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냉연공장을 준공했다. 연산 120만톤 규모의 냉연공장은 2007년 8월 착공해 26개월 만에 완공했다. 사진은 냉연공장 내부.

- 04 2013년 8월 15일 터키에 유럽지역 첫 생산공장인 POSCO ASSANT TST를 준공했다. 연산 20만톤 규모의 스테인리스 냉연공장 건설로 포스코는 중동, 러시아, CIS, 북아프리카 등 인접국가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을 마련했다.

박태준 명예회장 영면

2011년 12월 13일, 박태준 명예회장이 84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제철보국교육보국의 철학으로 일생을 완주한 고인은 철강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 최초의 종합제철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경영해 포스코를 글로벌 일류 철강사로 우뚝 세운 '세계 최고의 철강인'으로서 철강업을 통해 조선기자자동차기계 등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한국경제의 거목이었을 뿐만 아니라 생전에 14개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한국 최초의 연구중심대학인 포스텍을 설립해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육성한 교육위인이었다. 영결식은 각계 인사 600여 명이 장례위원으로 참여한 사회장으로 엄수됐으며, 서울·포항·광양 등 전국 7곳의 분향소에 8만 7000여 명이 조문했다. 12월 17일 고인은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됐다. 2012년 미국 철강전문지 AMM이 처음 '철강 명예의 전당'을 만들고 미국 카네기 철강사 창업자 앤드루 카네기, 일본 신일본제철 초대 사장 이나야마 요시히로 등과 함께 세계 철강업계 지도자 8인으로 박태준 명예회장을 선정하기도 하는 등 고인의 삶과 업적은 세계인들에게도 큰 울림으로 남았다.



1970년대 박태준 명예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자주관리 특강을 하고 있다. 박태준 명예회장은 철강 불모지에 종합제철을 세운 건설의 주역이며, 영원한 철강인이었다.

박태준 명예회장을 추모하는 추모집 <칭암 박태준>이 2012년 3월 21일 발간됐다.



2011년 12월 2일 포스텍은 개교 25주년을 하루 앞두고 포스텍 노벨동산에 박태준 설립자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박태준 조각상'을 세웠다. 이 조각상은 시민, 포스텍인 등 2만 2905명의 성의로 제작됐다.



박태준 명예회장 영결식이 사회장으로 치러졌다. 5일 동안 전국 7개 분향소에 8만 7000여 명이 조문을 했고, 포스코센터 임직원 1500여 명이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각계 인사 600여 명이 장례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 01 철강사업 본원경쟁력 강화
- 02 포스코 고유 혁신모델 정립
- 03 고강도 경영쇄신 추진
- 04 포스코명장, 듀얼래더(Dual Ladder) 체계 구축
- 05 기가스틸 시대 개막
- 06 사회공헌사업 확장
- 07 미래성장동력 창출
- 08 자동차강판 1000만 톤 판매체제 구축
- 09 고객가치 지향 솔루션마케팅
- 10 Smart POSCO, Smartization 실현
- 11 100년의 새 꿈, 미래비전 선포

2014년 3월 14일 권오준 회장이 취임할 당시, 포스코는 세계적인 철강 공급과잉과 과거의 성장위주 투자로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그룹 경영이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포스코는 경영 패러다임을 내실성장으로 전환하고, 'POSCO the Great'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POSCO the Great는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인류에게 제공해 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했던 포스코의 위상을 다시 한번 창조하자는 의미였다.

포스코는 POSCO the Great 실현을 위해 혁신포스코 1.0을 추진했다. 혁신포스코 1.0은 자만과 허울을 벗고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였다. 동시에 새롭게, 하나가 되어, 일등이 되자는 뜻을 담고 있었다. 실행 어젠다로는 철강 본원경쟁력 강화, 신성장사업 선택과 집중, 재무구조 획기적 개선, 경영인프라 쇄신을 설정했다. 혁신은 조직개편으로부터 시작됐다. 기존 6개 부문을 철강사업, 철강생산, 재무투자, 경영인프라 등 4개 본부제로 개편하고, 그룹 효율성 제고와 사업 구조조정을 전담할 가치경영실을 신설했다. 가치경영실은 이후 가치경영센터로 확대돼 국내외 그룹사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담당했다.

혁신포스코 1.0은 단기간에 작지 않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냈지만, 2015년 들어 그룹사 및 해외사업 부진과 구조조정 지연은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었고,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신뢰 위기가 발생하면서 대내외 위기가 고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2015년 5월 비상경영 쇄신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혁신포스코 2.0을 선포하고 경영혁신을 가속화했다. 기존 4대 어젠다도 업그레이드해 철강 본원경쟁력 강화, 사업구조 혁신 가속화, 신성장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윤리기반의 경영인프라 구축 등으로 조정했다.

포스코는 혁신포스코 1.0과 2.0을 통해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다.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비핵심 그룹사와 저수익 자산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건전화였다. 2014년 구조조정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이후 2016년에 이르기까지 그룹사 구조조정 77건, 자산 구조조정 49건 등을 추진해 5조 8000억 원의 재무개선 효과를 거뒀다. 또 연결 순운전자본 및 투자비 감축을 통해 철강 본원경쟁력 강화와 신성장사업 육성을 위한 투자여력을 확보했다.

특히 그룹 사업 구조조정은 재무구조 개선에 그치지 않고, 그룹 차원의 가치경영 도입과 시

너지 창출로 이어지도록 했다. 그룹사업을 철강본업 외에 무역, 인프라, 에너지, 소재 분야 등 4개 사업 도메인으로 정비하고, 각 사업 분야는 경영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관리 강화와 성과 극대화를 이루도록 유도했다. 특히 철강 유통사업군은 2017년 3월 포스코대우와 포스코P&S 합병 등의 구조재편을 통해 철강 영업력을 강화하고 해외 유통망을 효율화했으며, E&C사업군은 다운사이징 및 구조조정을 통한 전문화를 추진했다.

사업 구조조정 성과를 경영실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철강 본원경쟁력 강화는 솔루션마케팅과 월드프리미엄(WP : World Premium) 제품 판매 확대라는 양 날개로 추진했다. 특히 내실성장을 위해 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투자를 억제했지만, 꼭 필요한 투자는 과감하게 집행했다. 2014년 10월 연산 330만 톤 규모의 광양 4열연공장 준공, 2016년 5월 광양 4냉연공장 설비합리화 준공을 통해 고급 자동차강판과 고기능 강재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공고히 했다.

해외부문에서도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해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해외법인들은 자체 구조혁신을 추진하고 솔루션마케팅을 강화해 조기에 흑자전환을 달성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 미주, 동남아시아, 인도 등 기존 해외투자사업이 점차 안정화를 이뤄 나갔다. 2014년 12월 중국 포산에 자동차 외판 가공라인을 포함한 복합가공센터인 POSCO-CFPC 3공장, 2015년 1월 인도 마하라슈트라에 연산 180만 톤 규모의 냉연공장을 준공했다. 2016년 8월에는 동남아시아 최초의 자동차강판 생산기지인 연산 45만 톤 규모의 태국 CGL을 준공해, 현지 가공법인은 물론 베트남 생산법인 등과 함께 생산에서 가공·판매·기술지원에 이르기까지 최적화된 솔루션마케팅 체제를 동남아시아 지역에 구축했다. 이로써 포스코는 해외 생산기지에서 자동차용 강판 생산능력을 연간 225만 톤으로 늘리고, 글로벌 철강사들과의 경쟁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 2016년 신성장사업은 종전에 추진 중이던 신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소재와 에너지 분야의 성장사업 후보를 선정하고, 그 밖의 비핵심사업은 퇴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에너지저장 소재·경량소재 분야에서 고유기술에 기반한 이차전지 양극재 및 마그네슘 양산 공급체계를 구축했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가스, 해외발전, 신재생에너지 등에서 신수종 사업을 전개했다. 2017년에는 향후 100년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미래 경영환경의 메가트렌드에 부합하는 바이오·농업 분야의 사업 진출을 검토했다.

혁신포스코의 성과는 별도 기준 투자릿수 영업이익률 회복,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흑자전환, 별도 기준 창립 이래 최저의 부채비율 등 정량적인 성과도 컸지만, 임직원들이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한 것이 가장 컸다.

2017년 3월에는 권오준 회장 2기 체제 출범에 즈음해, 혁신포스코의 성과를 기반으로 글로벌 톱(Top) 수준의 철강수익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미래성장사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중기전략을 발표했다. 신중기전략은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고유기술 기반 철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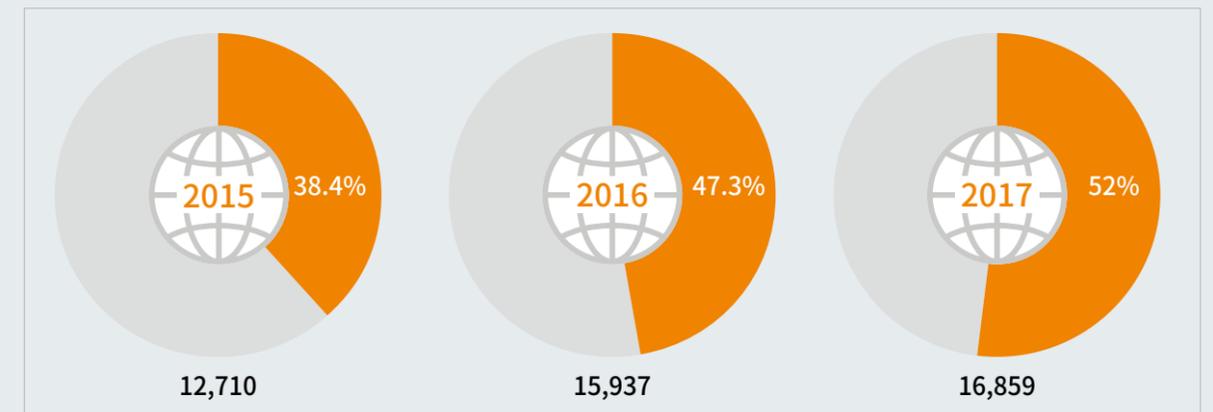
업 고도화, 비철강사업 수익성 향상, 차별화 역량 기반 미래성장 추진, 그룹사업 스마트이제이션(Smartization) 등 4대 핵심 어젠다를 추진하며,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겠다는 각오였다. 같은 해 5월에는 회장 직속의 미래성장위원회를 발족했다. 미래성장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해외 발전, 스마트솔루션, 소재 분야 등을 특화해 종전에 포스코와 각 그룹사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신사업을 그룹 차원의 전략으로 수립하고, 설정한 목표에 따라 관련 그룹사들이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했다. 지속적인 혁신과 내실경영에 힘입어 2017년 12월 제54회 무역의 날에는 '10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포항 1기 가동 후 1975년 제12회 수출의 날에 '1억불 수출의 탑'을 받은 이래 42년 만에 100배의 수출 성과를 달성한 것이었다.

포스코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1968년 4월 1일, 제철보국의 사명으로 출범한 이래 지난 50년간 연관산업 발전을 이끌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해왔다. 포스코의 사업범위는 철강 본원경쟁력을 바탕으로 E&C, 무역, 소재·에너지를 아우르게 됐고, 사업무대도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누볐다. 지배구조와 경영체제를 지속적으로 선진화하고, 윤리경영과 성과중심의 기업문화, 동반성장과 상생경영체제를 구축해 글로벌 기업문화를 선도하며 Next 5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WP제품 판매량 및 점유비

(단위 : 천 톤)



01 | 철강사업 본원경쟁력 강화

2014년 3월 포스코는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내실 있는 성장’을 통한 ‘POSCO the Great’ 재창조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글로벌 톱 수준의 철강 수익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철강 본원경쟁력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2014년 10월 연산 330만 톤 규모의 광양 4열연공장을 준공함으로써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고급 자동차강판 수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포스코가 포스코건설, 포스코ICT 등 그룹사와 함께 자력 엔지니어링으로 건설해 더욱 의미가 있었다. 2015년 3월에는 SNNC가 2기 페로니켈공장을 준공하면서 포스코는 세계 최초로 니켈광산-니켈제련-스테인리스강 제조로 이어지는 수직적 통합체계를 완성, 원가경쟁력을 크게 제고했다. 이후 2016년 6월 광양 5고로를 5500m³로 확대, 개수하며 광양제철소 조강 연산 2300만 톤 체제를 구축했다. 2014년부터는 수익성 창출의 핵심인 WP제품의 개발과 판매를 강화했다. 자동차강판의 경우 AHSS, MAFE, HPF강 등의 WP제품을 선정해 글로벌 고객사에 대한 마케팅 활동에 주력한 결과 고객과 포스코 모두 동반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포스코 전체 제품 판매량에서 WP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33%에서 2017년 52%까지 높아졌다.

- 01 포스코는 2014년 10월 31일 광양 4열연공장을 준공했다. 4열연공장은 초기 설계단계부터 그룹사와 함께 전로·연주기압연기 등을 비롯해 소프트웨어 설비인 제어·전기시스템까지 100% 독자 개발했다.
- 02 2015년 3월 6일 SNNC 페로니켈 제2공장을 준공했다. SNNC는 연산 5만 4000톤 체제를 구축해 포스코의 니켈 자급률은 80% 수준까지 올라갔다.
- 03 2016년 6월 7일 권오준 회장이 2대기 조업에 들어가는 광양 5고로에 화입했다. 광양 5고로는 개수작업으로 내용적 3950m³에서 5500m³로 증대돼 연간 500만 톤의 쇳물을 생산할 수 있었다.



| 02 | 포스코 고유 혁신모델 정립

포스코는 2014년 8월 고유의 혁신활동인 QSS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QSS+(Quick Six Sigma Plus)를 선포했다. 환경·설비 개선 및 낭비 제거를 위해 2005년부터 추진한 QSS를 부서 특성에 맞게 내실 있고 자율적인 활동으로 개선했다. 기존 설비기능 개선활동인 마이머신(My Machine)을 발전시켜 안전활동을 강조한 My M&S(Machine&Safety)로 운영하는 등 QSS+를 통해 품질(Quality), 조업안정(Stability), 안전(Safety)에 더욱 만전을 기했다. 특히 QSS+를 포함해 PWS(Project-based Working System), SWP(Smart Work Place)로 구성된 포스팀(POSTIM : POSCO Total Innovation Methodology)을 새롭게 정립했다. 이후 2015년 6월 6시그마를 기반으로 방법론들을 통합한 혁신방법론 PSS+(POSCO Six Sigma Plus)를 개발해 형식적인 절차를 지양하고 프로젝트 발굴과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시적인 임직원 창의 아이디어 제안과 매월 임원 주관 아이디어 굴리기를 통해 IP 프로젝트 기반의 일하는 방식을 확산시켰다.

- 01 2014년 12월 4일 포항 본사 대회의장에서 'IP Festival 2014'를 열고 권오준 회장이 POSTIM을 통해 한 해 동안 우수한 성과를 낸 조직과 개인들을 시상했다. POSTIM은 2014년 8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해 적용한 혁신모델이었다.
- 02 2014년 8월 12일 권오준 회장은 광양제철소 기술개발센터와 2CGL공장을 방문해 QSS+ 활동을 격려했다. 권오준 회장은 자율적·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에 옮겨 보람을 찾는다면 그 보람이 제철소의 경쟁력이자 포스코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01



02

| 03 | 고강도 경영쇄신 추진

2015년, 세계 철강산업의 공급과잉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경쟁사들의 공세는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포스코는 그룹사의 경영실적과 해외사업의 부진이 해소되지 않고, 구조조정 지연 문제가 겹치면서 경영난이 가중돼 더욱 근본적이고 강도 높은 경영쇄신이 필요했다. 5월 비상경영쇄신위원회를 발족한 포스코는 7월 혁신포스코 2.0을 선포하고 철강 본원경쟁력 강화, 신성장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함께 사업구조 혁신 가속화, 윤리기반의 경영인프라 구축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에 따라 저수익사업과 부실 그룹사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특히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정착시키기 위해 비윤리행위 무관용 원칙을 설정해 금품수수, 횡령, 성윤리 위반, 정보조작 등 4대 비윤리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철저히 적용했다. 또한 3대 100% 원칙(경쟁·공개·기록)으로 윤리경영을 더욱 강력히 실천했다. 작고 강한 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임원 감축을 추진해 2017년 2월 그룹 전체 임원 수를 전년대비 12% 줄였다.



01



02



03

01 포스코는 2015년 7월 1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5대 경영쇄신안을 발표했다. 권오준 회장은 경영환경 악화과 검찰 수사에 따른 국민신뢰 상실을 회복하기 위한 5대 경영쇄신안을 직접 설명하고, 3대 100% 원칙을 선언했다.

02 5대 경영쇄신안 설명회 다음날인 2015년 7월 16일 경영쇄신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그룹 임직원이 위기극복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경영쇄신의 필요성과 방안을 설명하면서 위기 주체는 전 임직원이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결집하는 것이 위기해결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03 2016년 10월 21일 POSCO Ethics Summit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포스코패밀리 경영층의 윤리경영 옹호를 강화하고 윤리실천 프로그램 활동과 향후 중점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04 | 포스코명장, 듀얼래더(Dual Ladder) 체계 구축

포스코는 2015년 현장기술인의 최고봉 '포스코명장(名匠)' 제도를 도입했다.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노하우로 회사에 기여하는 직원을 격려해 기술인이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한편 기술력을 더욱 발전시켜 분원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었다. 2015년 6월 열연·EIC기술·제선·제강 분야에서 총 4명을 첫 선발한 이후 2016년에 고로설비·전기설비·자동차강판 분야에서 총 3명, 2017년에는 전기제어 프로세스·전기강판 냉간압연기 제어·열간압연 분야에서 총 3명을 포스코명장으로 선발했다. 2018년에도 계측기 정도관리 및 정합성 검증기술 분야·제선 풍구 곡손 방지형 신풍구 개발 분야·연주 가이드 롤 설계 및 정비 기술 분야에서 총 3명을 포스코명장으로 선발했다. 이 중 손병락 명장은 2018년 1월 상무보로 신규 선임돼 명장 최초의 임원이라는 영광을 안았다. 한편 포스코는 2015년 3월 경영리더(직책자)와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듀얼래더(Dual Ladder) 직급체계를 전 그룹사로 확대 적용하고 2017년에는 월급제 직원에게 E(Expert)직급을 부여했다.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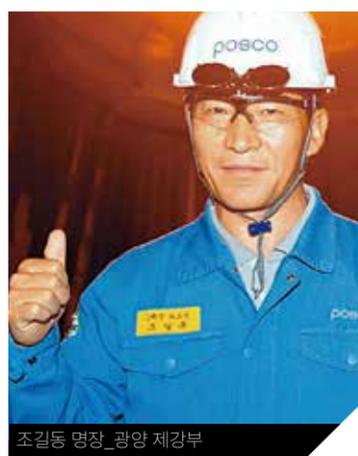
권영국 명장_포항 열연부



손병락 명장_포항 EIC기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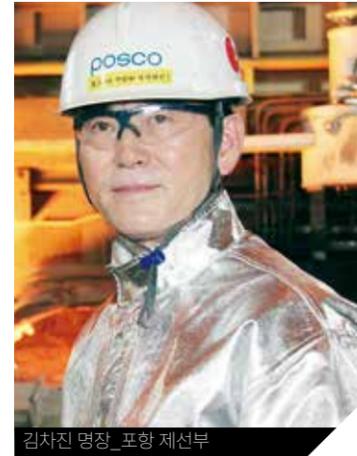


조영기 명장_광양 제선부



조길동 명장_광양 제강부

2016년



김차진 명장_포항 제선부



신승철 명장_광양 냉연부



김성남 명장_광양 EIC기술부

2017년



남태규 명장_포항 제강부



서광일 명장_포항 전기강판부



김용훈 명장_광양 열연부

2018년



이경재 명장_포항 EIC기술부



배동석 명장_광양 제선부



한병하 명장_엔지니어링솔루션실

| 05 | 기가스틸 시대 개막

“자동차강판용 기가급 강재 등 WP제품 생산에 주력해 초고강도강 기가스틸로 세계 철강업계는 물론이고 미래 자동차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포스코는 2016년 8월 31일 태국 CGL 준공식에서 ‘기가스틸’ 시대 개막을 공식 선포했다. 기가스틸은 포스코의 첨단기술력이 집약된 1기가파스칼(GPa)급 이상의 고장력 자동차강판으로, 알루미늄 등 경쟁 소재보다 더 가볍고, 강하고, 싸고, 튼튼하면서도 자유자재로 가공할 수 있는 꿈의 소재다. 포스코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자동차 파트별 특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8종류의 기가스틸 강종을 양산 수준으로 개발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강판 기술력을 통해 세계 자동차사의 꿈을 현실화시키고 있었다. 2018년 이후에는 1000만 톤 판매체제를 완성할 계획이었으며, 이는 전 세계 800여 개 철강사 가운데 자동차강판 생산이 가능한 20여 곳의 글로벌 메이저 철강사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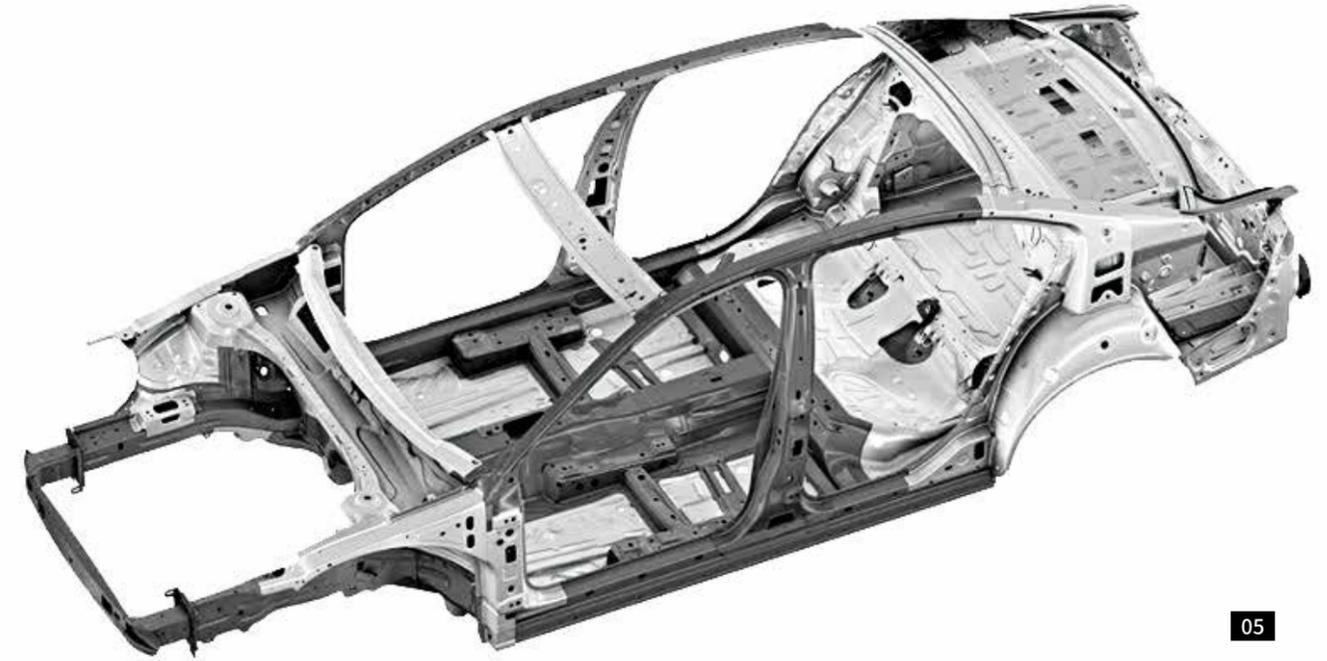
03



04



01



05



02

- 01 포스코는 2016년 8월 31일 동남아시아 첫 자동차강판공장인 태국 CGL을 준공했다. 태국 CGL공장 준공으로 포스코는 태국 가공법인은 물론 베트남 생산법인 등과 함께 생산부터 가공, 판매, 기술지원에 이르기까지 최적화된 솔루션마케팅 체제를 동남아시아 지역에 구축했다. 사진은 준공식 후 공장 내부를 시찰하는 권오준 회장.
- 02 포스코는 2017년 4월 8일부터 철강제품 기가스틸 광고를 방영했다. 이 광고는 포스코가 철강 제품을 전면에 내세운 첫 광고였다.
- 03 2014년 10월 2일 2014 파리모터쇼 프레스테이에 공개된 르노 이오랩(Eolab) 콘셉트카.
- 04 1.5기가파스칼급 고강도강을 기본 차체로 사용한 쌍용자동차 G4렉스턴(2017.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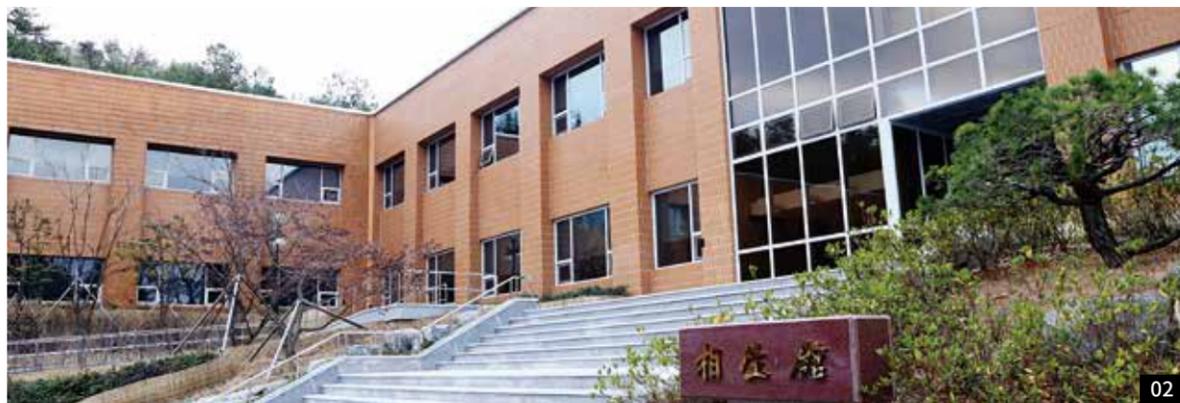
05 알루미늄보다 가볍고 3배 이상 강한 기가스틸로 제작된 차체. 이 차체에는 CP(Complex Phase)강, DP(Dual Phase)강, TRIP(Transformation Induced Plasticity)강, MART(MARTensite)강, PHT(Post Heat Treatment)강, HPF(Hot Press Forming)강이 적용됐다.

| 06 | 사회공헌사업 확장

포스코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하여(For A Better World)'라는 사회공헌 슬로건 아래 포스코1%나눔재단을 중심으로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임직원과 회사가 매칭그랜트 형식으로 출연한 기금을 바탕으로 포스코 스틸 빌리지(POSCO Steel Village) 조성 등 다양한 사회공익활동을 전개했다. 포스코 스틸 빌리지는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을 건축하고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집을 건립했다. 포스코는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2017년 12월 UN 지속가능 개발목표 우수등급으로 등재됐다. 산업단지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면서 전통음악과 대중가요의 크로스오버 공연을 펼치는 등 문화유산 보존계승에도 힘썼다. 중소기업, 외주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전개했다. 금융지원, 기술협력, 파트너십 강화, 컨설팅 및 교육, 일자리 창출 등 전 부문에 걸쳐 동반성장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2016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기업 대상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01



02



03



04

- 01 포스코 대학생봉사단 비욘드(Beyond) 8기가 발대 후 첫 활동으로 2014년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강원도 춘천에서 '드림 프로젝트(Dream Project)'로 집짓기·플레이시움·모금활동 등을 펼쳤다.
- 02 2016년 5월 27일 포스코는 현장직원과 엔지니어는 물론 중소기업과 외주 파트너사 직원들에게까지 직무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기술인 육성의 요람, 상생교육센터를 준공했다.
- 03 2016년 12월 20일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을 수상했다. 포스코는 2013년부터 4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 동반성장 부문 국내 최고의 기업임을 입증했다.

04 포스코는 2017년 9월 12일 서울 가산디지털산업단지에서 '우리들의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우영음)'를 개최했다. 우영음은 우리 사회 발전의 주축이 되어온 산업 근로자들의 일터로 직접 찾아가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크로스오버 공연을 펼치는 포스코1%나눔재단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이었다.

| 07 | 미래성장동력 창출

포스코는 에너지저장 및 경량소재 분야에서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갔다. 에너지저장 소재 분야에서는 이차전지(양·음극재)의 필수 소재인 리튬의 직접추출(PosLX : POSCO Lithium Extraction) 기술 개발을 위해 2015년 200톤급 파일럿 플랜트를 통한 3단계 검증을 완료하고, 2017년 2월 광양제철소에 연산 2500톤 규모의 PosLX공장을 준공해 국내 최초로 리튬 상업생산에 돌입했다. 경량소재 분야에서는 2007년 7월 순천에 마그네슘 판재공장을 준공한 이후 마그네슘 광폭판재 생산기술을 고도화했다.



01



02



03



04

- 01 포스코는 2017년 2월 7일 광양제철소 PosLX공장 준공식을 갖고 국내 최초로 리튬 상업생산에 들어갔다.
- 02 권오준 회장은 2017년 2월 10일 구미에 위치한 포스코ESM 양극재 생산공장을 둘러보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포스코ESM은 전기차, 노트북, 휴대폰 등 휴대용 IT기기의 배터리인 이차전지 제작에 사용되는 필수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했다.

- 03 2007년 7월부터 순천 해룡산업단지에서 가동되고 있는 마그네슘 판재공장 내부.
- 04 2017년 8월 7일 PosLX 탄산리튬제품 초도 출하가 이뤄졌다. 2017년 2월 준공된 이후 6개월 만의 첫 출하로서 포스코가 리튬사업을 추진한 지 7년 만에 거둔 쾌거였다.

| 08 | 자동차강판 1000만 톤 판매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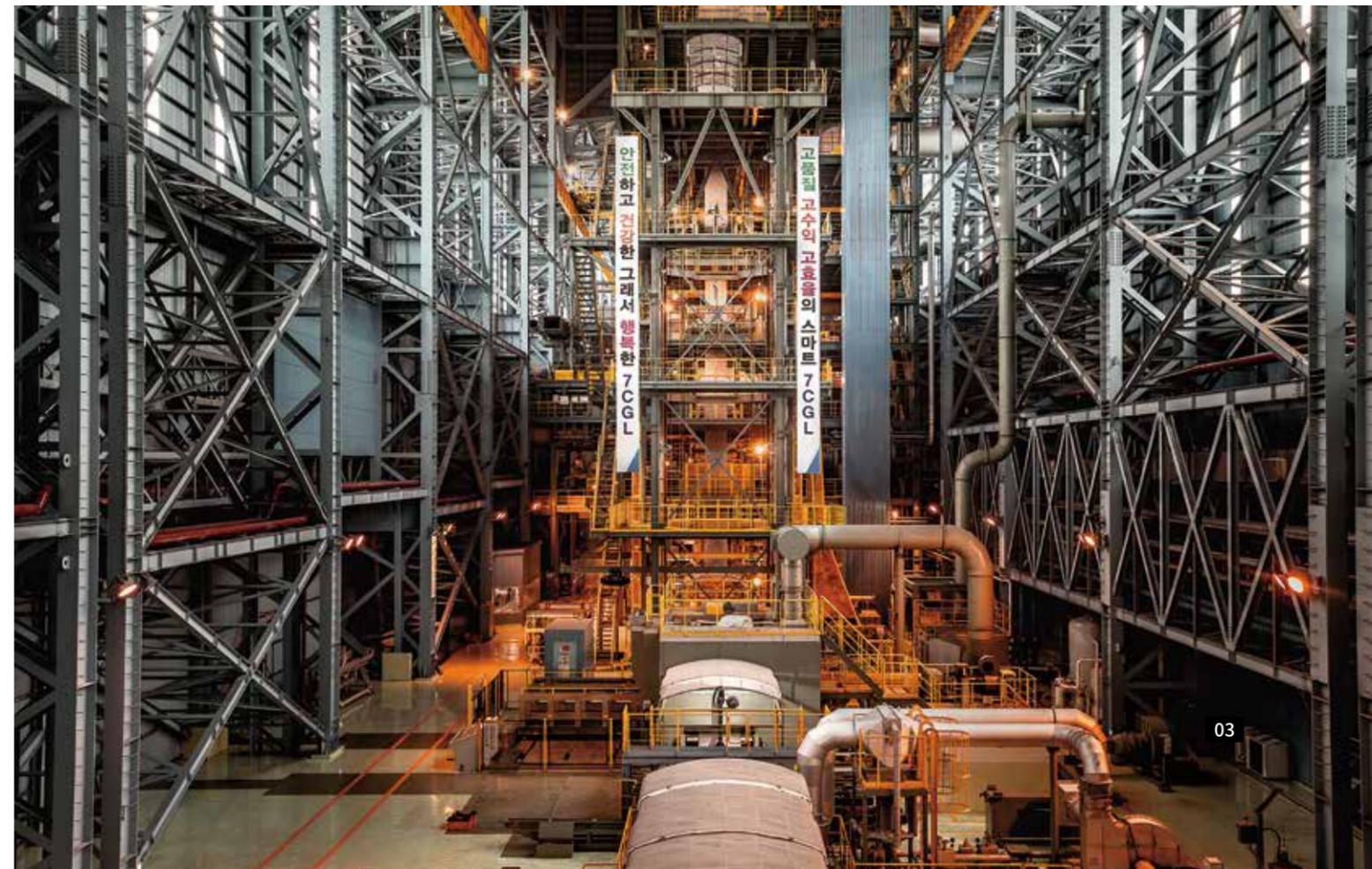
포스코는 2017년 4월 26일 광양제철소에 기가스틸 전용 생산라인인 연산 50만 톤 규모의 7CGL을 준공해 글로벌 자동차강판 메이커로서 입지를 강화했다. 이로써 국내 7기를 비롯해 멕시코(2기), 인도, 중국, 태국 등에서 총 12기의 CGL을 가동하게 됐다. 기술에서도 발전을 거듭했다. 2008년 세계 최초로 TWIP 강 개발에 성공한 이후 2014년 10월 파리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2GPa급 강종인 HPF강을 적용한 이오랩을 공개한 데 이어 2016년 1월 철강사 최초로 북미국제오토쇼(NAIAS)에 참가하는 등 글로벌 자동차강판 시장에서 단연 두각을 보였다. 그 결과 2016년 자동차강판 판매량 약 900만 톤을 달성했으며, 2018년 1000만 톤 판매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역량을 모았다.



01 2016년 1월 12일 북미국제오토쇼(NAIAS)에서 글로벌 자동차사들이 각사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모델과 기술력을 총집약시킨 콘셉트카를 선보인 가운데 포스코는 모터쇼 이래 철강사 최초로 회사를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02 2017년 4월 26일 포스코는 세계 최초의 기가스틸 전용 자동차강판공장, 광양 7CGL공장을 준공했다. 7CGL공장은 인장강도 1.5기가급의 초고강도 기가스틸을 생산할 수 있으며, 규모는 연산 50만 톤이었다.

03 초고강도 기가스틸 전용 생산공장인 7CGL공장 내부.



09 | 고객가치 지향 솔루션마케팅

포스코는 2014년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EVI 활동을 발전시킨 솔루션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솔루션마케팅은 단순히 좋은 품질의 강재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고객이 포스코의 강재를 보다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솔루션(Technical Solution)과 상업적 솔루션(Commercial Solution)을 제공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는 여기에 고객감동을 추구하는 휴먼 솔루션(Human Solution)까지 더했다. 해외에서는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솔루션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주요 거점지역에 테크니컬 서비스 센터(TSC: Technical Service Center)를 설립했다. 2017년 기준으로 국내외 7개 권역에 34개소의 TSC를 운영하며 현지 고객사를 밀착 지원했다. 약 5년간에 걸쳐 솔루션마케팅을 전개한 끝에 2017년 3월 포스코가 개발한 고망간강을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엑손모빌에 공급하기로 하는 등 기가스틸, 고망간강과 같은 고유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제품의 솔루션마케팅을 적극 전개했다.



01



02



03



04

- 01 포스코는 2017년 10월 30일 글로벌 R&D센터에서 ‘글로벌 전기차 소재 포럼 2017’을 개최했다. ‘EV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EV Total Solution Provider)로의 도약’을 주제로 열린 포럼은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메가트렌드에 대비해 포스코가 전기차 핵심소재 공급 선도기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 02 권오준 회장은 취임 후 고객사를 방문하며 솔루션마케팅을 지원해왔다. 2014년 8월 27일에는 세계 2위의 와이어 제조사인 고려제강 경천공장을 방문, 고려제강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 03 2017년 3월 22일 포스코는 엑손모빌과 공동개발한 슬러리파이프용 고망간강 양산 및 공급에 합의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세계 최대 석유회사이며 업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엑손모빌이 포스코의 제품을 적용함에 따라 포스코는 오일샌드 산업의 슬러리파이프용 고망간강 판매 확대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 04 포스코는 2017년 7월 18일 강건재 고객 64개사를 초청해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 대응 솔루션마케팅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포스코는 고객사들의 강건재 제품 정보 기반의 디지털 네트워크 시스템인 ‘강건재 스마트 플랫폼’ 구축에 대해 설명했다.

| 10 | Smart POSCO, Smartization 실현

포스코는 2016년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시대의 도래에 대응해 '스마트 포스코'를 선언하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등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아이제이션(Smartization)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후 2017년 3월 신중기전략 발표를 계기로 4월부터 철강사업뿐 아니라 포스코와 그룹사업 전체의 경영 전반으로 스마트 포스코를 확장했다. 'Smart POSCO, Smartization을 기반으로 Biz. Transformation'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스마트팩토리, 스마트비엔씨(B&C), 스마트에너지로 구분해 영역별로 추진했다. 이와 함께 핵심인력을 AI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스마트 포스코의 실행력을 높였다.



01



02



03

01 권오준 회장은 2016년 11월 7일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공학교육 및 글로벌 산학협력포럼에서 '스마트 인더스트리를 이끌어 가는 스마트 포스코(Smart POSCO, Leading the Smart Industry Initiative)'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02 2017년 10월 19일 제6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고유의 지식기반 혁신 방법론 POSTIM을 내실화하고 발전시켜 스마트 지식경영체계를 완성한 포스코는 대통령상 수상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스마트 포스코 전략과 스마트팩토리 구축 추진성과를 인정받았다.

03 포스코는 2018년 2월 12일 GE와 제철설비에 최적화된 하이브리드형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을 공동개발함과 동시에 사업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MOU를 체결했다.

11 | 100년의 새 꿈, 미래비전 선포(1)

포스코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2018년 4월 1일 포스텍 체육관에서 포스코, 그룹사, 외주 파트너사 등 포스코패밀리 2,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년 기업을 향한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반세기 성장역사를 기념하는 ‘창립 50주년 기념식’, 100년 기업을 향해 새날을 여는 ‘POSCO 100 비전 선포식’, 그리고 ‘鐵 인류의 영원한 유산’을 주제로 한 ‘축하공연’ 등 크게 세 가지 테마로 진행됐다. 권오준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50년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국민경제와 글로벌 경영의 기반을 다진 역사’로 규정하고, 임직원들에게 “이러한 유산 위에서 도전정신과 창의로 한계를 뛰어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권오준 회장이 미국의 테드(TED)강연 방식으로 설명한 글로벌 100년 기업 포스코의 새로운 미션은 ‘Unlimit the Limit : Steel and Beyond’로서, 지난 50년 포스코 도전의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에는 철강뿐 아니라 비철강 분야에도 강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미션과 함께 선포한 비전 역시 취임 초 선포한 ‘POSCO the Great’에서 더 나아가 사업구조와 기술, 조직문화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의미인 ‘Great Business, Great Technology, Great Culture’로 구체화했다. 또한 ‘안전·윤리·창의·고객’이라는 4가지 핵심가치와 ‘철강·인프라·신성장’이라는 3가지 사업 포트폴리오도 함께 제시했다.



- 01 2018년 4월 1일 개최된 창립 50주년 기념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권오준 회장이 ‘POSCO 100’ 비전을 발표했다.
- 02 포스코는 창립 50주년을 맞이까지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해준 고객사와 공급사에 감사패를 전했다.
- 03 행사장 밖에서 직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한 권오준 회장.



| 11 | 100년의 새 꿈, 미래비전 선포(2)

포스코는 창립 50주년에 즈음해 Next 50년이라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만 보며 숨 가쁘게 달려온 50년과 현재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들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3월 26일 창립 50주년 기념 창립요원 초청만찬을 개최했고, 3월 27일에는 광양 전남드래곤즈 축구장에서 KBS 열린음악회를 열었다. 4월 2일에는 권오준 회장 및 중우회 회원들이 박태준 명예회장의 묘소를 참배했다. 또한 포스코센터 리노베이션 공사를 종합 준공하는 한편, 이해관계자들을 포스코센터로 초청해 창립 50주년 기념 리셉션을 열었다.



01



02



03



04



05

- 01 광양시민과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가 3월 27일 광양 전남드래곤즈 축구장에서 열렸다.
- 02 포스코는 2018년 3월 26일 창립요원들을 초청해 감사를 전하고, 소중한 경험과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앞줄 왼쪽부터 박준민, 이상수, 장경환, 황경노, 안병화, 여상환, 안덕주, 이영직 창립요원).
- 03 포스코와 지역민들은 3월 31일 포항스틸러스 홈경기장에서 열린 울산 현대와의 축구경기를 관람하고 2018 K리그에서의 건승을 기원했다.

- 04 포스코는 4월 2일 포스코센터 리노베이션을 종합 준공했다. 사진은 포스코센터 1층과 2층에 들어선 제품종합전시관 개관식 장면.
- 05 포스코는 4월 2일 포스코 발전에 기여해온 이해관계자들을 포스코센터 스틸클럽으로 초청해 창립 50주년 기념 리셉션을 열고, 감사를 전했다.
- 06 권오준 회장은 4월 2일 아침 현충원을 찾아 박태준 명예회장의 묘소에 참배하고, 새롭게 선포한 미래비전을 보고하는 등 중우회 회원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06

With POSCO,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출발

- 01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미래 가치 추구
- 02 신뢰와 창의의 기업문화 조성
- 03 '100대 개혁과제' 발표
- 04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반 미래 기업으로 도약

2018년 7월 27일 최정우 회장 취임과 함께 포스코는 'With POSCO'를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했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포스코가 100년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철보국'이라는 창업이념을 계승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 즉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비전 달성을 위한 3가지 개혁 영역으로는 △고객, 공급사, 협력사 등과 함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Business With POSCO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Society With POSCO △신뢰와 창의의 기업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People With POSCO를 제시했다. 최정우 회장은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임직원들의 마음가짐으로 △형식보다는 실질(實質) △보고보다는 실행(實行) △명분보다는 실리(實利) 등 실사구시의 '3실(實)'을 당부했다. 8월 1일 전사적으로 철강 분야의 협업을 강화하고 CEO의 그룹경영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데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고객, 공급사, 협력사 등과 함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Business With POSCO를 위해서는 8월 23일 제30회 포스코 기술콘퍼런스에서 포스코 등 그룹사를 비롯해 협력사, 대학 연구기관 등의 기술인들이 모인 가운데 최신 기술과 미래 방향을 모색했다. 최정우 회장은 9월 1일 국빈 방한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같은 달 18일부터 2박 3일 동안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경제사절단 공식일정 수행, 10월 10일 현대중공업 방문 등의 행보를 이어갔다.

포스코는 또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Society With POSCO를 위해 인도네시아 저개발지역에 주택-공공시설을 건립해 기부하는 스틸빌리지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국내에서는 청년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세어하우스 청년누리 건립을 지원해 9월 19일 입주식을 가졌다.

People With POSCO를 위한 방안으로는 신뢰와 창의의 기업문화 조성에 힘썼다. 계열사는 그룹사로, 외주사는 협력사로 명칭을 바꿔 부정적 인식을 바꾸며 상생과 협력을 강화했다. 최정우 회장은 7월 27일 포항제철소, 30일 광양제철소 방문을 시작으로 10월 5일 안전다짐대회, 19일과 26일 포항제철소-광양제철소 협력사 방문, 20일과 27일, 11월 17일 3차례에 걸쳐 포항-광양서울 주재 임원과 함께한 CEO 트레킹 토크를 갖고 People With POSCO 실천에 앞장섰다.

포스코는 특히 9월 3일 2023년까지 5년 동안 철강사업 고도화, 신성장사업 발굴 등에 45조 원

투자, 2만 명 고용 계획을 발표했다. 한발 앞선 투자와 우수인재의 조기 확보를 통해 글로벌 철강산업과 제조업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함으로써 새로운 비전인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다.

포스코는 이어 최정우 회장 취임 100일을 맞은 2018년 11월 5일 ‘With POSCO 경영개혁 실천 대회’에서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핵심은 ‘모두 함께, 차별 없이, 최고의 성과’를 만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45조 원 투자, 2만 명 고용 계획’을 실천하며 50주년 기념식에서 천명한 2030년 매출 100조 원, 영업이익 13조 원의 장기 목표 달성에 다가선다는 청사진이었다. 개혁과제는 최정우 회장 취임을 전후한 7월부터 사내외 각계각층으로부터 받은 ‘러브레터’ 형식의 건의사항 3300여 건과 전 임원이 참여한 개혁 아이디어, 최정우 회장이 평소 생각해 온 개혁방안 등을 수렴해 확정했다.

먼저 비즈니스 분야(Business With POSCO)에서는 철강사업에서 2025년까지 자동차강판 판매량 1200만 톤을 달성해 글로벌 메이저 자동차강판 공급사 지위를 확고히 하기로 했다. 기술개발에서는 제품기술과 원가절감 기술개발에 더욱 집중하면서 개방형 협력·제휴 기술개발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자립·자력 기술개발을 고집하기보다 외부기술을 수용하는 기술협력과 제휴를 확대해 글로벌 패러다임의 급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와 함께 신성장사업을 신성장부문으로 조직을 격상하고 외부전문가를 총괄책임자로 영입해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그룹사업은 포스코의 LNG 도입 등 LNG 트레이딩 사업을 포스코대우로 일원화하고, 광양 LNG터미널은 포스코에너지로 통합하기로 했다. 설계, 감리, 시설 운영관리 등 건설 분야의 중복 유사 사업은 포스코건설로 통합해 시너지를 높이기로 했다. 또 포스코켄텍에 음극재와 전극봉 소재가 되는 침상코크스공장을 신설하는 한편 이차전지 종합연구센터를 설립해 그룹 신성장사업으로서 양음극재사업을 통합 육성하기로 했다. 그 첫 결실로 2018년 11월 8일 세종시 소정면 세종 첨단산업단지에서 포스코켄텍의 음극재 1공장 8·9호기 준공식 겸 2공장 1~4호기 착공식이 개최됐다. 또 포스코ESM의 광양 양극재공장 부지조성에 착수하는 등 미래 신성장사업으로 이차전지 소재 부문의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며 본격 양산체제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사회와 공동 발전하기 위한 방안(Society With POSCO)으로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실행조직으로서 기업시민위원회 및 기업시민실을 신설하고, 포항과 광양 벤처밸리 조성 과 청년 취·창업지원 캠프 지원 등을 담당하는 산학연협력실을 신설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앞장섰다. 주요 사업장의 어린이집을 확대해 그룹사와 협력사 직원 자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포항과 광양 지역에는 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시설인 포스코형 마더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포스코의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중소기업 현장에 적용

하는 등 동반성장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거래 문화 완전 정착을 위해서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공급사는 해당 사실을 등록하고 100% 경쟁구매를 통해 특혜시비를 차단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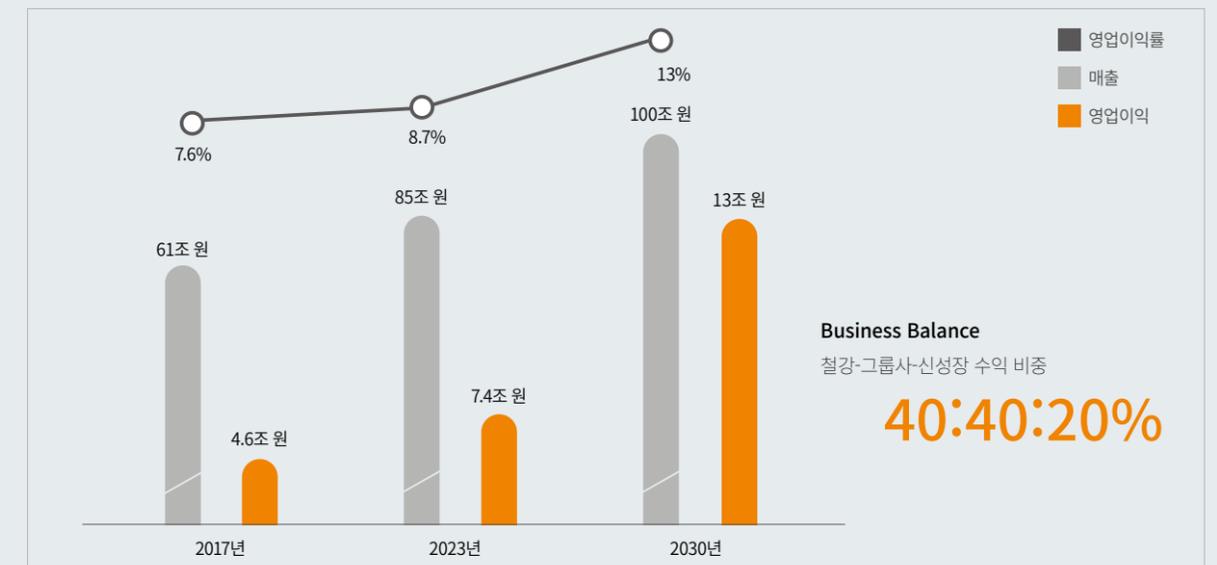
기업문화 및 제도(People With POSCO) 차원에서는 현장중심 경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조직을 포함, 광양으로 전진 배치하고, 기술멘토링 제도 등 선·후배 간 기술 및 업무 노하우 전수 등을 도모해 내부기술을 축적하며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협력사와의 임금 격차 해소, 복지후생시설 공동 이용, 갑질 신고창구 개설 등을 통해 협력사 처우 개선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포스코는 개혁과제 시행 5년 후인 2023년에 포천의 존경받는 기업 메탈 부문 1위, 포브스의 기업가치 130위 달성을 경영개혁 목표로 명시함으로써 임직원들의 몰입도와 실천력을 높였다.

포스코는 개혁과제 발표 후 비전과 과제에 대한 대내외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먼저 최정우 회장은 11월 9일 포스코 기업문화를 연구한 송호근 포스텍 석좌교수와 특별대담을 가졌다. 대담 내용은 사내방송 PBN, <포스코투데이>, <포스코 뉴스룸> 등을 통해 사내외에 전파하는 한편 인재창조원의 교육자료로 활용됐다. ‘With POSCO’ 배지를 그룹 차원에서 착용하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기업시민 콘텐츠를 중점 홍보함으로써 포스코 고유 브랜드화하기로 했다.

이제 50년을 이어 100년 기업을 향해 나아가는 전환점에 선 포스코는 ‘With POSCO’를 실천하며 ‘모두 함께, 차별 없이, 최고의 성과’를 만드는 기업시민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2030 포스코 미래 모습



01 |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미래 가치 추구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다. 2018년 8월 23일 개막한 제30회 포스코 기술콘퍼런스는 50년 철강 기술을 집약해 기업시민으로서 포스코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었다. 1박 2일 동안 포스코를 포함한 그룹사, 협력사, 대학 연구기관 등의 기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231개 주제의 초청강연과 발표를 통해 철강과 신사업 분야의 최신 기술과 미래 방향에 대한 지식과 비전을 공유했다. 포스코 기술인의 최고 영예인 포스코 기술대상 시상식도 열려 '원가경쟁력 높은 리튬 생산 공정 기술' 등 총 10건이 수상했다.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객과 비즈니스적 관계를 넘어 서로의 성장을 돕는 파트너십 구축도 이어졌다. 9월 10일 최정우 회장은 국민 방한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만나 크라카타우포스코를 포함한 철강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0월 10일에는 조선용 후판의 수요처인 현대중공업을 방문했다. 국가 기간산업을 책임지는 기업으로서 오랫동안 협력해온 양사의 파트너십을 이어가는 자리였다.



- 01 2018년 8월 23~24일 제30회 포스코 기술콘퍼런스가 포스텍과 RIST에서 개최됐다. 최정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의 창업을 한다는 각오로 철강의 뒤를 잇는 강력한 성장엔진을 발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엔지니어의 역할을 강조했다.
- 02 최정우 회장은 2018년 9월 10일 국민 방한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환담하고, 양국의 철강산업을 비롯해 포스코그룹과의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03 최정우 회장은 2018년 10월 10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해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을 만나 사업부문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01



03

02 | 신뢰와 창의의 기업문화 조성

최정우 회장은 취임과 함께 신뢰와 창의의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2018년 7월 27일 포항 본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후 곧바로 포항제철소 2고로를 방문해 스마트팩토리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30일에는 광양제철소를 찾아 2제강공장과 초고강도 자동차강판 전용공장인 7CGL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살펴며 직원들에게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최정우 회장은 19일 포항제철소 협력사인 영남산업과 포롤텍, 2선재공장, 파이넥스 3공장을, 26일 광양제철소 4열연공장과 협력사인 동후를 잇달아 둘러보고 협력사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즉각 개선해 With POSCO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을 당부했다.

최정우 회장과 포항·광양·서울 주재 임원이 각각 함께한 ‘CEO와 함께하는 트레킹 토크’에서도 100년 기업을 위한 With POSCO 실현 의지를 다졌다. CEO와 함께하는 트레킹은 10월 20일 경주 단석산, 10월 27일 광양 백운산, 11월 17일 하남 검단산에서 각각 진행됐다.



01



02



03



04



05

- 01 2018년 7월 27일 취임식을 마친 최정우 회장은 포항 2고로를 방문해 현장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격려했다.
- 02 최정우 회장은 2018년 7월 30일 광양 2제강공장과 7CGL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살펴봤다.
- 03 최정우 회장은 2018년 10월 19일 포항제철소 협력사인 영남산업과 포롤텍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 04 최정우 회장은 2018년 10월 26일 광양 4열연공장과 협력사인 동후를 방문해 상생의지를 다졌다.
- 05 2018년 11월 17일 최정우 회장은 서울 주재 포스코 및 그룹사 임원과 함께 경기도 하남 검단산 트레킹을 실시하고 'With POSCO, We're the POSCO' 실현을 염원했다.

03 | '100대 개혁과제' 발표

포스코는 2018년 11월 5일 최정우 회장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With POSCO 경영개혁 실천대회에서 포스코그룹 전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7월 최정우 회장 취임을 전후해 사내 외로부터 받아들인 러브레터 형식의 건의사항 3300여 건과 임원들의 개혁 아이디어, POSRI 자문교수 등의 의견과 함께 평소 최정우 회장이 생각해 온 개혁방안 등을 현업부서와 토론하고 추려 100대 개혁과제로 확정했다. 100대 개혁과제는 크게 비즈니스, 사회와의 공동 발전, 기업문화 및 제도 등으로 나누어 수립됐다. 포스코 임직원은 물론 주주·고객·협력사와 지역주민 등 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모두 함께 참여하면서, 임직원 간, 그룹사 간, 협력사 간 근무환경이나 처우에 차별이 없는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문화를 만들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선순환하는 경영활동을 통해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다.

최정우 회장은 11월 6일 글로벌 EVI포럼 기조연설과 11월 9일 사내방송 PBN, <포스코투데이> 및 대외 미디어 채널 <포스코 뉴스룸>에 보도된 송호근 포스텍 석좌교수와와의 특별대담을 통해 100대 개혁과제에 대한 대내외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혔다.



01



02



03

- 01 포스코는 2018년 11월 5일 최정우 회장 취임 100일을 맞아 With POSCO 경영개혁 실천대회를 개최하고,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100대 개혁과제는 취임 후 사내외로부터 받아들인 러브레터 형식의 건의사항과 임원들의 개혁 아이디어 등의 의견과 함께 평소 자신이 생각해 온 개혁방안을 현업부서와 토론을 통해 확정했다.
- 02 With POSCO 경영개혁 실천대회에 참석한 최정우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그룹 전 임원은 5대 경영개혁 실천 다짐문에 서명했다.

- 03 2018년 11월 9일 최정우 회장은 송호근 포스텍 석좌교수와 100대 개혁과제에 대한 특별대담을 가졌다. 특별대담은 사내방송 PBN과 대외 미디어 채널인 <포스코 뉴스룸>을 통해 보도돼 대내외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혔다.
- 04 포스코는 2018년 11월 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18 포스코 글로벌 EVI 포럼을 개최했다. 최정우 회장은 'Next 50 years with POSCO(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50년)'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04

| 04 |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반 미래 기업으로 도약

포스코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동시에 철강 그 이상의 100년 기업을 목표로 미래 신성장 사업인 이차전지 소재 부문에 역량을 집중했다. 포스코ESM은 2018년 8월 양극재공장 증설을 위해 16만 5287m³ 규모의 광양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했다. 2019년까지 연산 6000톤 규모의 양극재공장을 건설하고 2022년까지 5만 톤 생산체제로 확대함으로써 구미공장 생산능력을 포함해 연간 생산규모 총 6만 2000톤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포스코켄텍은 2018년 11월 8일 세종시 소정면 세종첨단산업단지에서 음극재 1공장 8-9호기 준공식 겸 2공장 1~4호기 착공식을 개최했다. 1공장 8-9호기 증설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음극재 생산규모는 2만 4000톤으로 늘어났다.



02



01



03



04

- 01 포스코켄텍은 2018년 11월 8일 음극재 1공장 8-9호기를 준공하며, 1공장을 종합 준공했다.
- 02 11월에 준공한 포스코켄텍 음극재 1공장 내부.
- 03 2018년 11월 8일 포스코켄텍은 음극재 1공장 종합 준공에 이어 2공장 착공식을 가졌다.
- 04 포스코ESM 광양 양극재공장 공사 모습(위)과 조감도.

포스코 50년사

현황화보

철강비즈니스
신성장비즈니스
그룹비즈니스
글로벌비즈니스
지속가능경영

Next 50 Years

포스코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비전 체계를 재정비하고, 미래 전략을 수립해

Next 50년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With POSCO, We're the POSCO!

포스코는 철강비즈니스, 신성장비즈니스, 그룹비즈니스, 글로벌비즈니스를 통해

100년 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ustainable Growth

그룹운영회의

철강비즈니스

Global Top Tier Mill

철강본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Top 철강회사

포스코는 국내 최초 일관제철소 건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을 선도해 왔습니다. 철강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포스코는 막강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Next 5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철강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저탄소, 저에너지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친환경, 스마트 생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Super WP(World Premium)제품으로 철강제품의 지속적인 고급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포스코는 새롭게 다가오는 50년에도 글로벌 Top 지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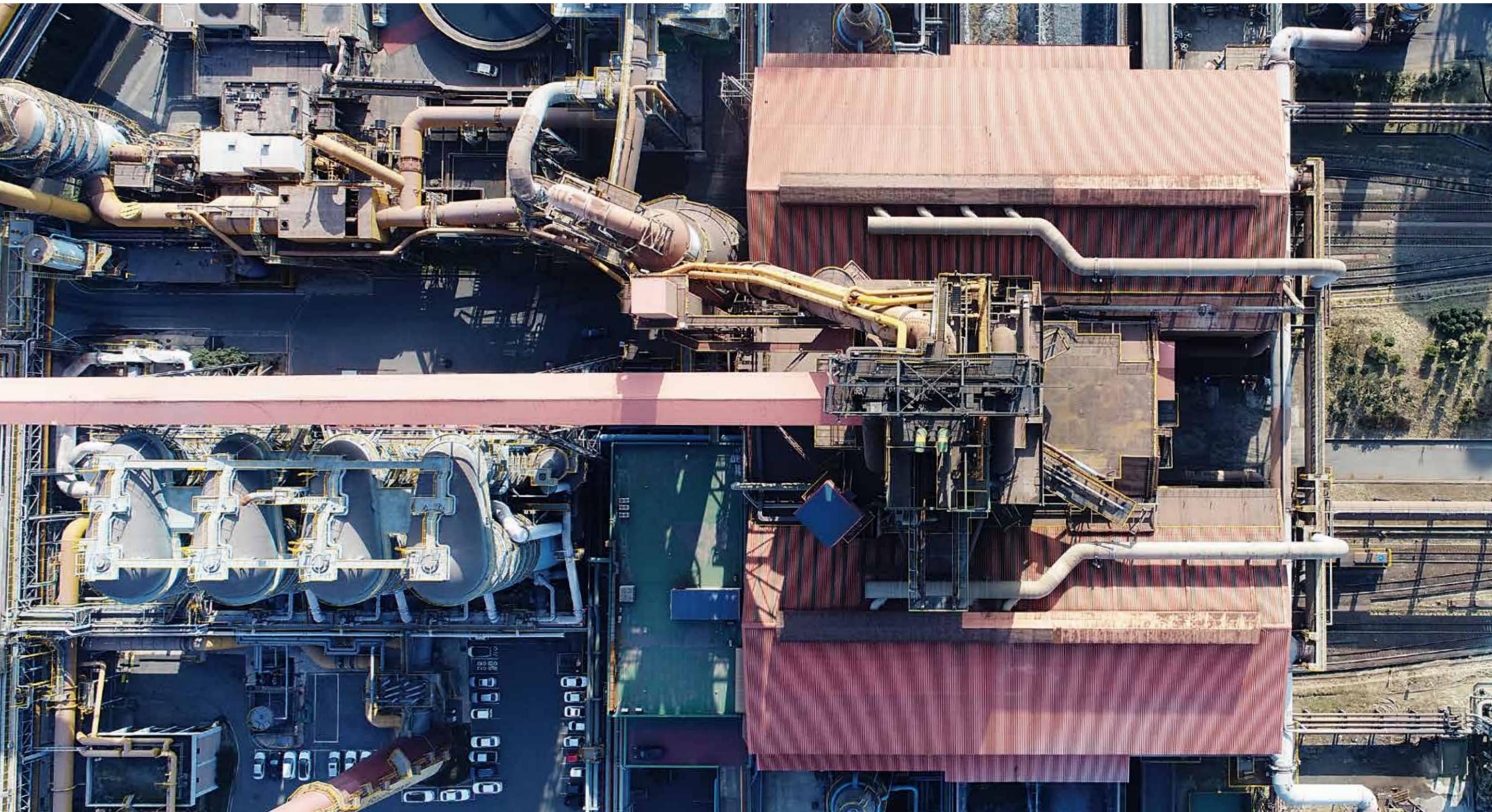




포항 원료공장 연·원료야드(석탄, 철광석)



포항 2제선공장(3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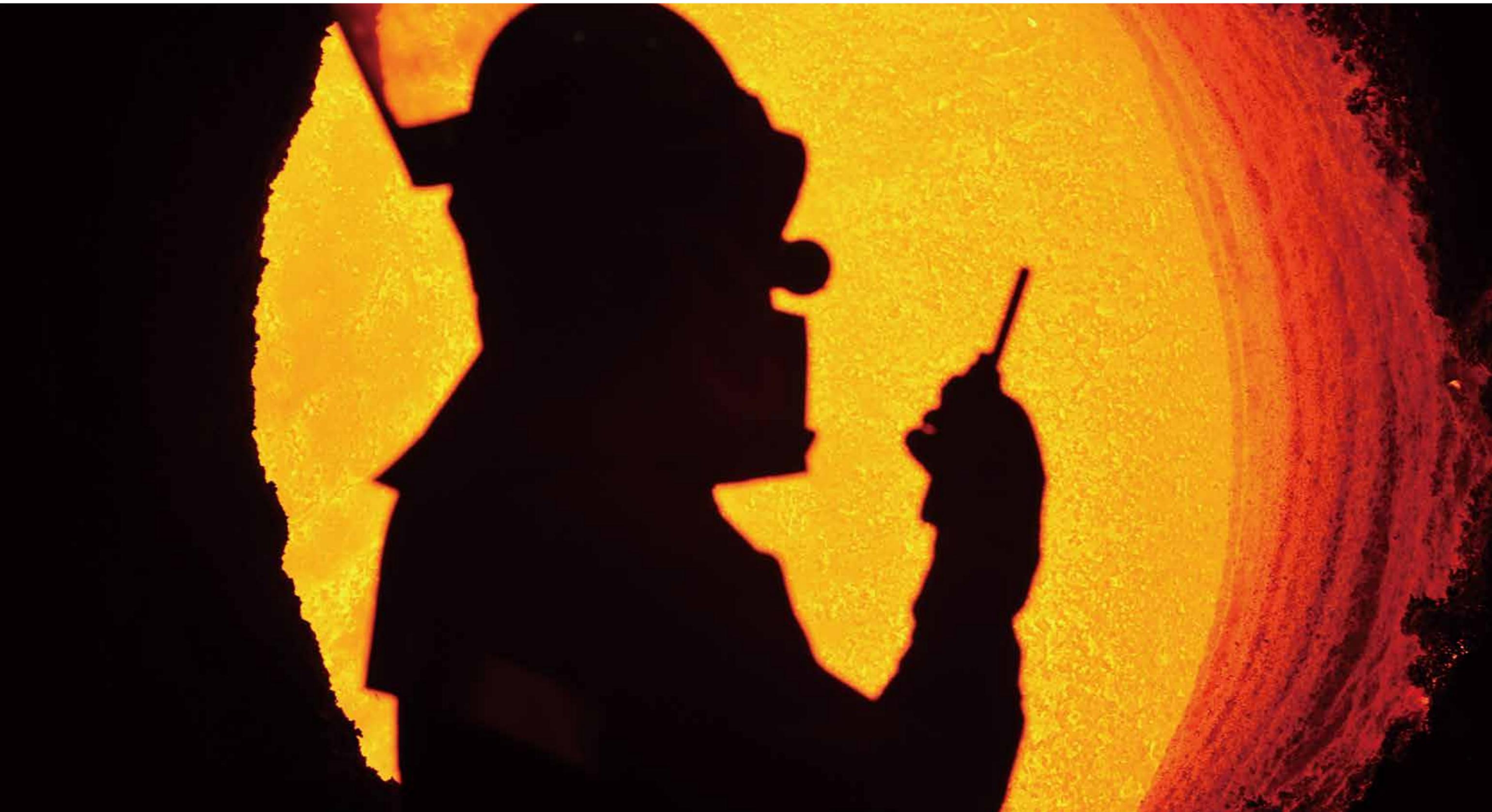
하늘에서 내려다 본 광양 1제선공장(1고로)



파이넥스 3:2:1공장(포항)



파이넥스 2공장(출선)



광양 1제강공장(전로 점검)





후판제품



아연도금합금강판제품



고객에게 인정받는 세계최고 기가스틸 생산

광양 4도금공장(7CGL 출측설비)



생산 중인 선재제품



도금강판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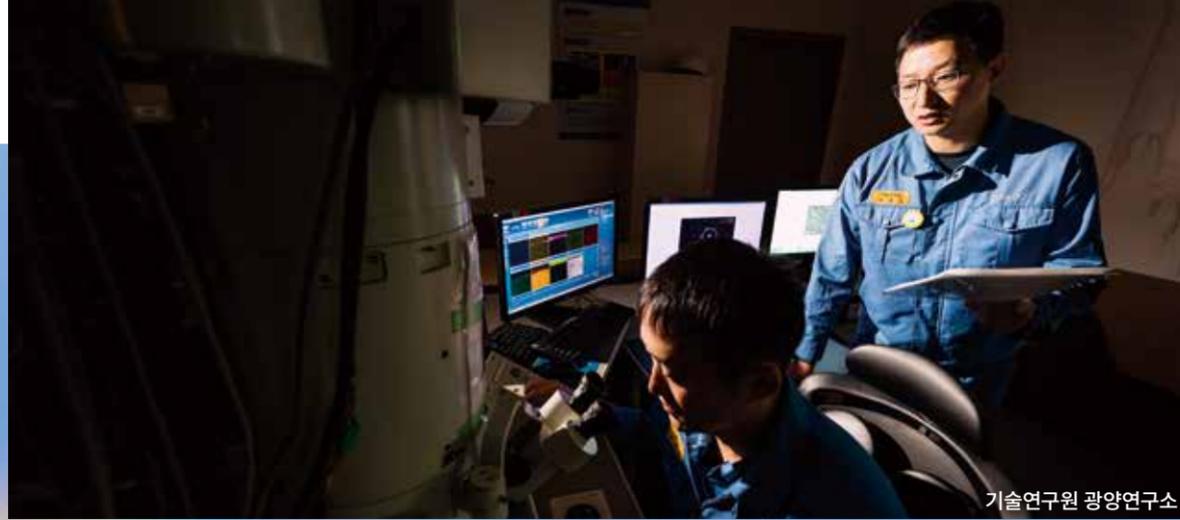
스테인리스 냉연제품



다색강판(포스코강판)



잉크젯프린트강판(포스코강판)



기술연구원 광양연구소



RIST(포항)



POSCO-China TSC(중국 쓰저우)

산학연 협력체제(노벨동산에서 바라본 포스텍 본관·중앙분수대)



강재성형 실험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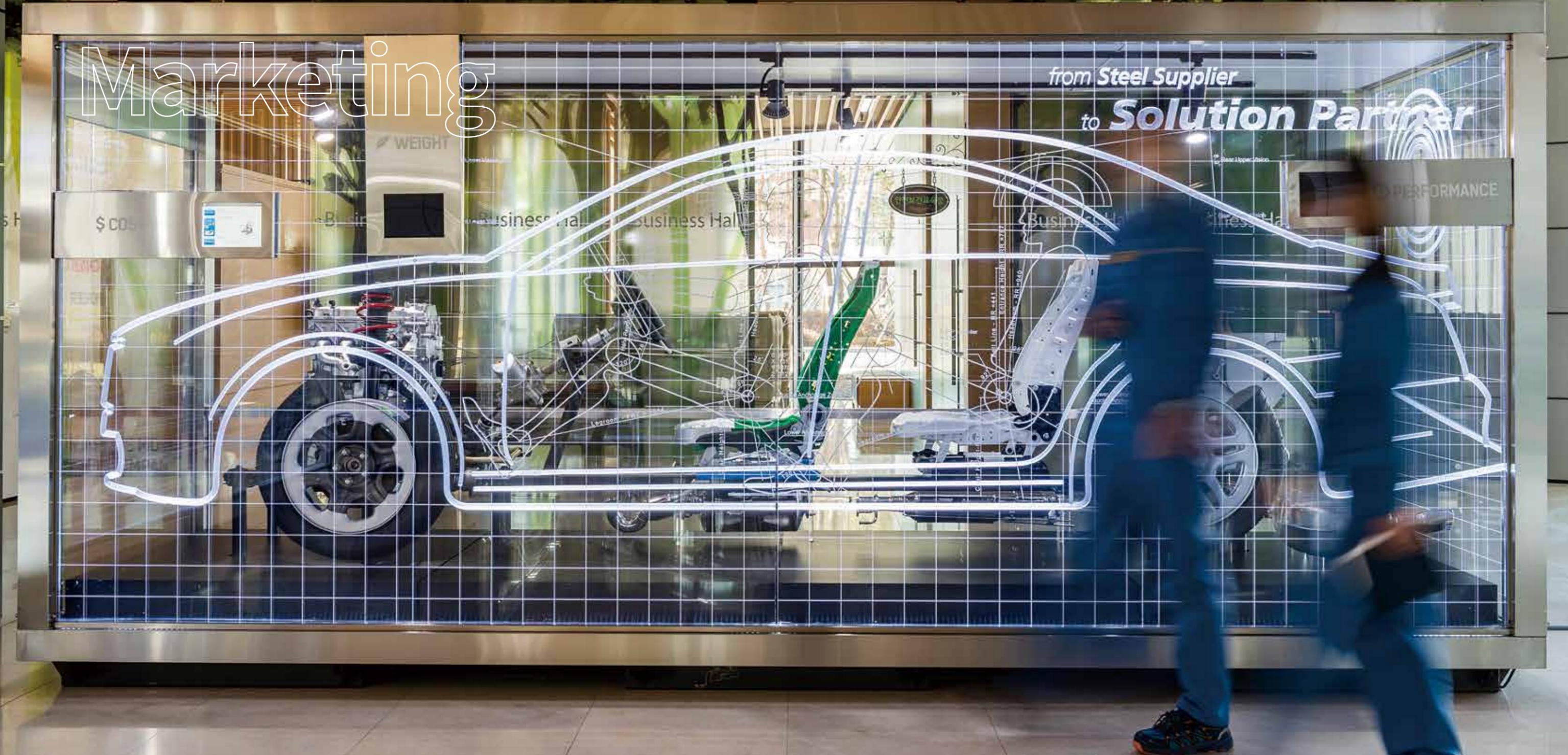


강구조 실험장면

포스코 글로벌 R&D센터(인천 송도)

Solution

Marketing



자동차 프레임과 가상의 차체를 통해 솔루션마케팅을 형성화한 쇼케이스(글로벌 R&D센터, 인천 송도)



고망간강을 적용한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그린 아이리스호



포스코 초고강도강과 마그네슘 판재를 적용한 르노의 콘셉트카 이오랩(EOLAB)

신성장비즈니스

Next 50년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포석

Next 50년을 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ESM(Energy Storage Materials, 에너지 저장 소재) 분야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PosLX 기술을 포함한 개방된 협업방식을 통해 리튬, 니켈, 인조흑연 등 ESM 원료와 양극재, 음극재 등 ESM 소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속성장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시드 사업으로 바이오, 탄소소재, 애그로(Agro) 등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음극재공장 중앙운전실(포스코켄텍, 충남 세종)



양극재공장(포스코ESM, 경북 구미)

음극재공장(포스코켄텍, 충남 세종)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수산화리튬

탄산리튬

PosLX공장 수산화리튬 생산라인(광양제철소)

그룹비즈니스

그룹사와 함께 성장하는 포스코

포스코는 철강뿐만 아니라 Trading, E&C, Energy, ICT, 소재 부문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그룹사 간 시너지를 창출하며 그룹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강 본업과 비철강, 제조와 서비스를 아우르는 폭넓은 스펙트럼의 사업구조를 통해 그룹사와 함께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하는 포스코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포스코대우 AMERICA(디트로이트)



미얀마 호텔(양곤)



인도네시아 팜농장(파푸아주)



미얀마 가스전(미얀마 북서부 해상)



노화-구도 연도교(전남 완도군)



평창 동계올림픽 미디어레지던스호텔(강원 평창)



여이도파크원(조감도, 서울)



송도국제업무단지(인천)

Energy



태양광발전(전남 신안)



삼척 화력발전소



인천 LNG복합발전소



ICT

충주 데이터센터 내부



인천공항 스마트 수하물 종합관리시스템(BHS : Baggage Handling System)



충주 데이터센터



포항 데이터센터(포항제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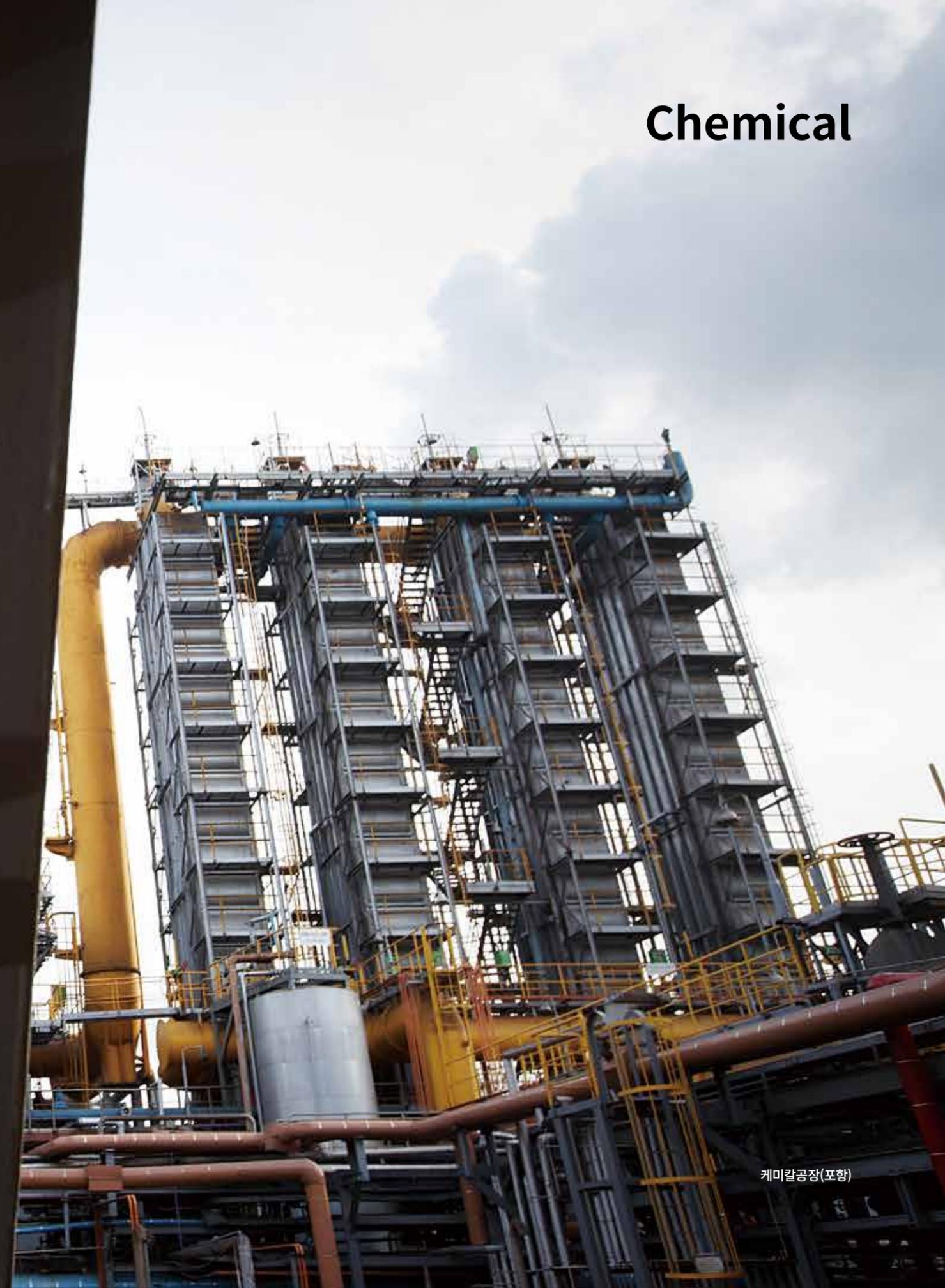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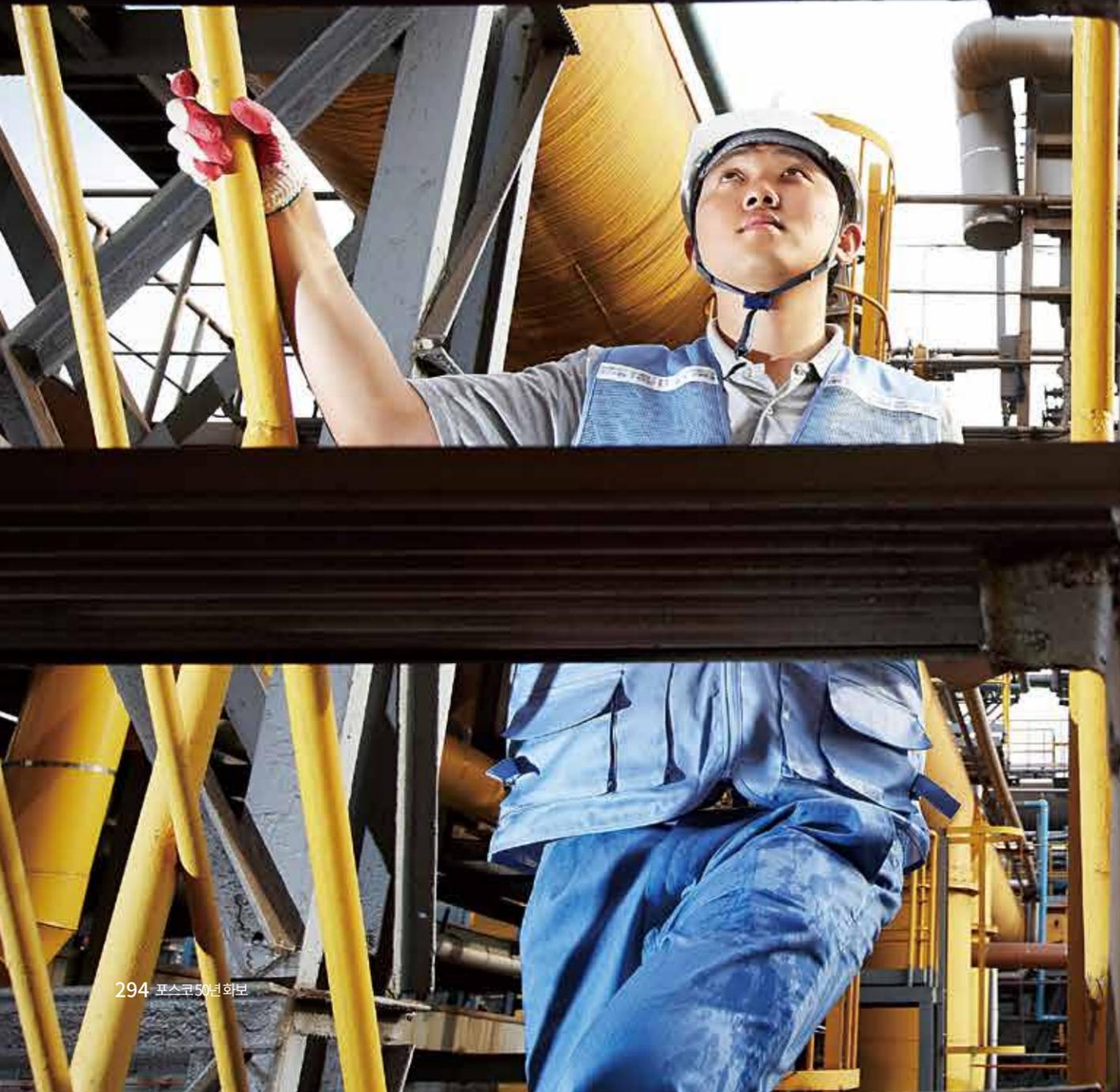
Chemical



이차전지 음극재 연구개발



소성내화물



글로벌비즈니스

세계와 함께 발전하는 글로벌 포스코

포스코는 1990년대 진출한 중국, 베트남 등의 아시아시장을 넘어 인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전 세계를 누비는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해 원료, 생산, 가공, 물류, 금융에 이르기까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영역을 끊임없이 개척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더 넓은 세상을 개척하고 더 많은 시장을 열어 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이 되겠습니다.



China





장기항포항불수강(장자강)



광동포항기차판(포산)



POSCO-CSPC(수저우)



POSCO-CSPC(수저우)

Thailand

Products are My Face
Quality is My Mind

Actualization of Defect "0"

No.1 Factory by QSS+

posco
TCS

Quality Stability Safety

Safety is the Happiness
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POSCO-SouthAsia(방콕)

Indone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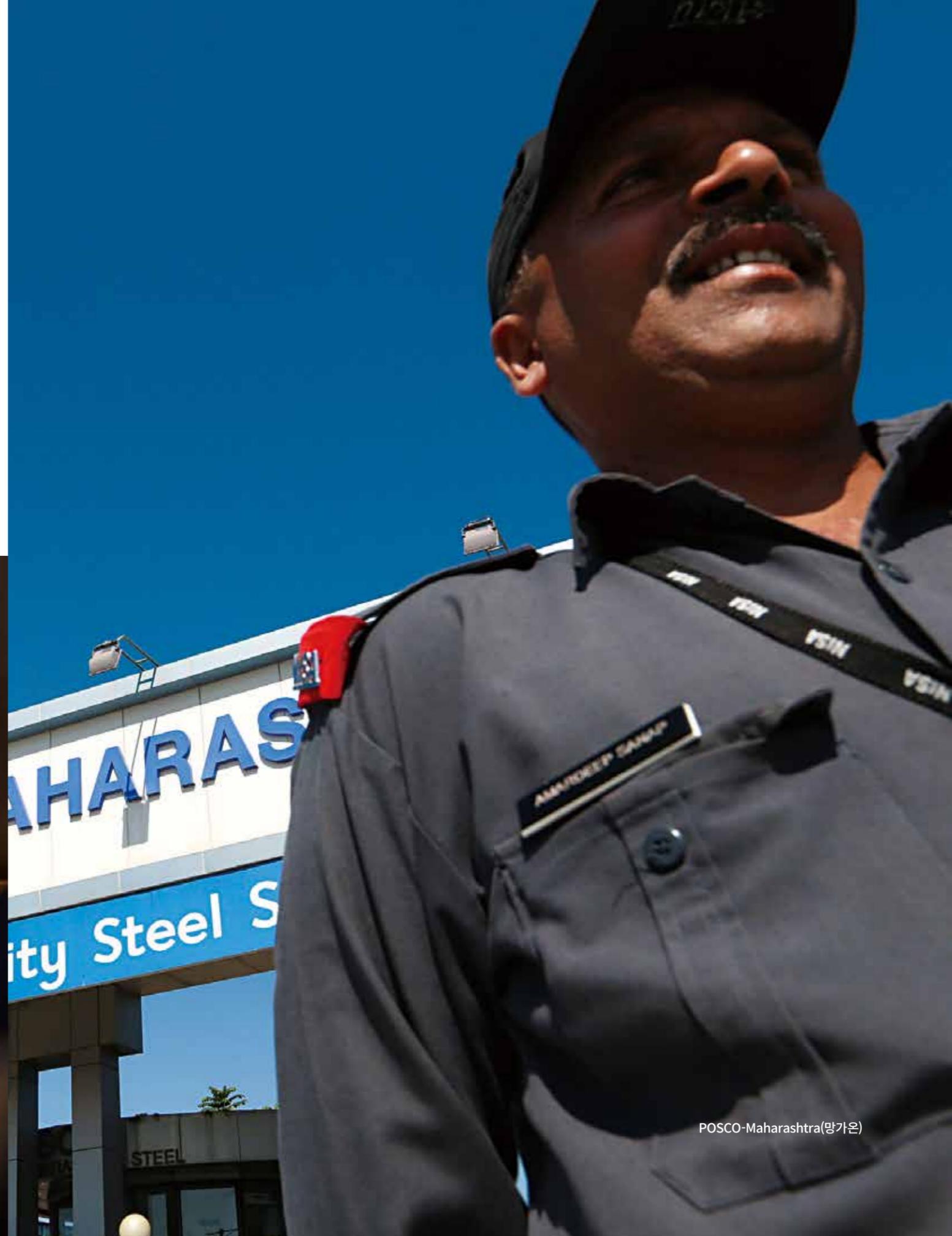


posco

India



POSCO India Holdings(델리가공센터)





POSCO-Australia(시드니)

POSCO-Japan PC(토요하시)

POSCO-AAPC(알라바마)

로이힐 철광석 광산(서호주)

Australia Japan USA



Turkey



POSCO ASSAN TST(이즈밋)



POSCO-TNPC(닐뤼페르)



POSCO ASSAN TST(이즈밋)

지속가능경영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드는 포스코

포스코는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경제적 성과를 이루어 내는 것'으로 지속가능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충실한 기업시민으로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펼치고 혁신으로 포스코만의 기업문화를 창조하며, 글로벌 시대 맞춤형 인재육성 등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과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혁신 파이팅!!(광양 화성부)





포스코 스틸빌리지 봉사(포스코 자원봉사자와 대학생봉사단 비온드)



해양정화활동(포스코 클린오션봉사단)



농기계수리 봉사(광양제철소 농기계수리 재능봉사단)



유치원 놀이공원 보수(POSCO ASSAN TST)

포스코 50년사

1968 - 2018

화보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인 최정우
발행처 주식회사 포스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도움주신분들

기획제작 (주)사사연(02-569-4409)
www.sasayeon.com

원고집필 안영은, 김성경

촬영 신한호, 손초원

인쇄제작 넥스프레스

비매품